

제11차 (2008)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www.kli.re.kr](http://www.kli.re.kr)

남재량 · 성재민 · 최효미  
신선옥 · 배기준



**KLI**  
한국노동연구원

제11차(2008)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남재량 · 성재민 · 최효미  
신선옥 · 배기준



# 목 차

제1장 머리말 .....	1
제2장 한국노동패널 11차 조사의 개요 .....	13
제1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	13
제2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과 설문 내용 .....	15
1.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	15
2. 설문 내용 .....	16
제3절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 .....	18
1. 조사 과정 및 조사 방법 .....	18
2. 조사 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	22
제4절 응답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	25
1. 응답 가구의 특성 .....	25
2. 조사성공가구의원의 특성 .....	29
제5절 이사·분가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	32
1. 이사가구의 특성 .....	32
2. 비원표본가구(분가가구)의 특성 .....	33
3. 비성공가구의 특성 .....	34
4. 신규 조사자의 특성 .....	37
제6절 한국노동패널의 가중치 .....	39
1. 1차년도 조사의 가중치 부여방법 .....	39
2. 2차년도 조사 이후의 가중치 부여방법 .....	40
3. 가중치 변수 및 이용방법 .....	41
제3장 조사가구의 특성 .....	43

제1절 가구 및 세대 구성 .....	43
제2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	48
1. 가구주의 특성 .....	48
2. 가구원의 특성 .....	49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	51
제4장 가계경제 .....	54
제1절 가구소득 .....	54
1. 가구의 총소득 .....	56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	57
제2절 가구지출 .....	58
1. 생활비 .....	59
2. 저 축 .....	60
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	63
제3절 주거형태 및 비용 .....	65
1. 입주형태 및 주거 비용 .....	65
2. 주택의 종류 .....	68
3. 주거지의 선택 .....	70
제4절 자산 및 부채 .....	70
1. 부동산자산 .....	71
2. 금융자산 .....	72
3. 가구의 부채 .....	74
제5절 자녀 교육비 .....	75
제5장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	78
제1절 경제활동상태 .....	78
제2절 취업자의 특성 .....	82
제3절 미취업자 .....	87
1. 구직활동 .....	87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	90

제6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	92
제1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	93
제2절 근로시간 .....	96
1. 평균 근로시간 .....	97
2. 초과근로시간 .....	100
제3절 임 금 .....	101
1.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산정방식 .....	102
2. 월평균 임금 .....	104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 .....	108
1. 비정규직의 규모 .....	109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	111
제7장 비임금근로자의 .....	113
제1절 종사상 지위 .....	114
제2절 근로시간 .....	116
1. 근로시간의 규칙 .....	117
2. 주당 근로시간 .....	118
제3절 근로소득 .....	122
제4절 사업체의 창업 .....	125
제8장 교육 부가조사 .....	127
제1절 중학교 재학과 사교육 경험 .....	128
제2절 고등학교 재학과 사교육 경험 .....	129
제3절 대학 선택과 대학 재학 .....	134
제4절 기타 항목 .....	137
제9장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 .....	139

## 표 목 차

<표 2- 1> 1~11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	14
<표 2- 2> 1~11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	15
<표 2- 3> 11차년도(2008년) 설문 변동 내용 .....	17
<표 2- 4> 각 연도별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	19
<표 2- 5> 각 연도별 조사 방식(본인, 대리인) 분포 .....	20
<표 2- 6>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 .....	21
<표 2- 7> 시기별·지역별 조사진행률 추이: 원가구 .....	22
<표 2- 8> 각국의 가구패널조사와 KLIPS 원표본유지율 .....	23
<표 2- 9>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 .....	25
<표 2-10> 1~11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 .....	26
<표 2-11> 1~11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가구주 특성 .....	28
<표 2-12> 1~11차년도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 .....	29
<표 2-13> 이사가구 분포 .....	32
<표 2-14>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수 .....	33
<표 2-15> 11차년도 비성공가구의 지역별 분포 .....	35
<표 2-16> 비성공가구 방문 횟수 .....	36
<표 2-17> 비성공사유별 평균 방문 횟수 .....	36
<표 2-18> 11차년도 신규 조사자의 인구학적 특성 .....	38
<표 2-19> KLIPS의 가중치의 사례수 .....	41
<표 3- 1> 연도별 가구원수 변화 추이 .....	44
<표 3- 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 .....	45
<표 3- 3> 연도별 가족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 .....	47
<표 3- 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분포 추이 .....	49

<표 3- 5> 1~11차년도 조사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	50
<표 3- 6> 2~11차년도 출생자의 특성 .....	51
<표 3- 7> 2~11차년도 사망자의 특성 .....	52
<표 4- 1> 연간 가구의 총소득 .....	56
<표 4- 2>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 .....	57
<표 4- 3> 2~11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 .....	60
<표 4- 4>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 .....	61
<표 4- 5> 2~11차년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 .....	62
<표 4- 6>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유무 .....	63
<표 4- 7>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액수 .....	64
<표 4- 8> 2~11차년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 .....	66
<표 4- 9> 2~11차년도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 .....	69
<표 4-10> 11차년도 가구 현재거주지로의 이사 동기 .....	69
<표 4-11> 부동산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	71
<표 4-12>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	73
<표 4-13> 부채 잔액 분포 .....	75
<표 4-14> 11차년도 가구내 자녀 유무 및 자녀수 .....	76
<표 4-15> 11차년도 자녀의 사교육비 및 부담 정도 .....	77
<표 5- 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수: 1~11차년도 .....	79
<표 5- 2> 경제활동상태 비교: 1~11차년도 .....	80
<표 5- 3> KLIPS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1998~2008년 .....	83
<표 5- 4> 경찰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1998~2008년 .....	83
<표 5- 5>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1998~2008년 .....	84
<표 5- 6> 경찰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1998~2008년 .....	85
<표 5- 7>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11차년도 .....	86
<표 5- 8>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 11차년도 .....	87
<표 5- 9> 특성별 구직방법: 11차년도 .....	89
<표 5-10> 미취업자가 구직시 주로 겪는 어려움 .....	91

<표 6- 1> 임금근로자수와 비중 .....	93
<표 6- 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 2008년 .....	95
<표 6- 3>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	97
<표 6- 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08년 .....	98
<표 6- 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08년 .....	99
<표 6- 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08년 .....	100
<표 6- 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 2008년 .....	101
<표 6- 8>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지급방법: 2008년 .....	102
<표 6- 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 2008년 .....	103
<표 6-10> 월평균 임금 비교 .....	104
<표 6-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 2008년 .....	106
<표 6-1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 2008년 .....	106
<표 6-13>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 직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 2008년 .....	107
<표 6-1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과 비정규직: 2008년 .....	109
<표 7- 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	114
<표 7- 2>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 .....	115
<표 7- 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분포 .....	116
<표 7- 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주평균 근로일수: 2008년 .....	118
<표 7- 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	119
<표 7- 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2008년 .....	120
<표 7- 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2008년 .....	121

<표 7- 8> 월평균 소득 비교 .....	122
<표 7- 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명목소득: 2008년 .....	123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2008년 .....	124
<표 7-11>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2008년 .....	125
<표 7-12>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2008년 .....	126
<표 7-13>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2008년 .....	126
<표 8- 1> 연령별 중학교 다녔는지 여부 .....	128
<표 8- 2> 연령별 고등학교 다녔는지 여부 .....	130
<표 8- 3> 실업계 진학 이유별 대학 진학률 .....	133
<표 8- 4> 연령별 대학교에 다녔는지 여부 .....	134
<표 8- 5> 대학/ 전공 우선선택 여부별 대학교 만족도 여부 .....	135
<표 8- 6> 전공을 본인이 선택했는지 여부별 대학 만족도 .....	136
<표 8- 7> 본인이 원하던 대학인지 여부별 대학 만족도 .....	136
<표 8- 8> 자녀와의 대화 .....	137
<표 8- 9>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위해 다음을 해본 적이 있다 .....	138
<표 8-10> 군복무 경험이 현재 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	138
<표 9- 1>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	140
<표 9- 2> 성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	141
<표 9- 3>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	143
<표 9- 4> 학력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	146

## 그림목차

[그림 2-1] 노동패널조사 연도별 계속응답가구수 .....	27
[그림 2-2] 각 연도별 원표본가구원수 추이 .....	30
[그림 2-3] 각 연도별 계속응답가구원수 추이 .....	31
[그림 2-4] 각 연도별 전체응답가구 대비 비원표본가구의 비중 .....	34
[그림 2-5] 비원표본가구원 신규 추가이유(2~11차년도) .....	37
[그림 3-1] 11차년도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 .....	46
[그림 3-2] 사망자의 사망원인 .....	53
[그림 4-1] 가구 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 .....	58
[그림 4-2] 11차년도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 .....	62
[그림 4-3] 11차년도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 .....	66
[그림 4-4] 11차년도 거주지별 전세거주자 임대보증금 .....	67
[그림 4-5] 11차년도 거주지별 월세거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세 .....	68
[그림 4-6] 11차년도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 .....	72
[그림 4-7] 2~11차년도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 추이 .....	74
[그림 5-1] 최근 7년간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인구비율 비교: 2002~08년 .....	81
[그림 5-2] 최근 7년간 실업률 비교: 2002~08년 .....	82
[그림 5-3]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11차년도 .....	88
[그림 5-4] 성별·근로시간 형태별 평균 희망임금 .....	90
[그림 6-1] 임금근로자의 학력 분포: 2008년 .....	94
[그림 6-2] 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 2008년 .....	94

[그림 6-3] 다양한 정의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2007년 .....	110
[그림 6-4]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008년 .....	111
[그림 7-1]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	119
[그림 8-1] 연령별 중학교 재학 당시 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중 ....	129
[그림 8-2] 연령별 고등학교 재학 당시 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중 .....	131
[그림 8-3] 연령별 고등학교 진학자 중 실업계 진학자 비중 .....	131
[그림 8-4] 연령 구간별 실업계 고교에 진학한 이유 .....	132



## 제 1 장

## 머리말

본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 제11차 조사 과정 및 그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한편, 자료 정제(data cleaning)를 마친 조사 자료(data)를 분석하여 기초적인 통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LIPS는 단편적인 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노동시장에 관한 미시자료(micro data)들을 패널의 형태로 얻기 위해 실시하는 종단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이 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한편, 자체 예산도 일부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1998년에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8년에 제11차 조사가 완료되었다.<sup>1)</sup> 이 보고서는 열한 차례에 걸친 패널조사 가운데 제11차 조사과정과 현장 실사 결과를 서술하고 있으며, 자료 정제를 마친 제11차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KLIPS는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5,0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표본가구와 이들 가구를 구성하는 13,321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패널조사의 사활은 무엇보다도 최초 추출된 표본을 이후 조사에서도 얼마나 많이 성공적으로 조사하는가에 달려 있다. KLIPS는 지난 제10차 조사에서 원표본인 5,000가구의 75.5%를 조사하여 높은 표본유지율

\* 본 연구는 남재량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노동패널팀의 최효미(제2장, 제3장), 배기준(제4장), 성재민(제5장, 제8장), 신선옥(제6장, 제7장), 그리고 남재량(제1장, 제9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1) 2009년 10월에 제12차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을 기록하여 오고 있다. 이번 제11차 조사에서는 원표본 가구 가운데 3,709가구를 성공적으로 조사하여 74.2%의 원표본 유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PSID, GSOEP, BHPS 등을 비롯한 외국의 우수한 패널조사의 표본 유지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제11차 조사도 지난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노동패널팀은 조사원 교육과 CAPI 교육에 참여하여 조사원들의 노동패널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노동패널팀 팀원들은 조사 현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욱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지원하였다.

2009년 2월 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된 제10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 총 3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를 통해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 역시 지난 학술대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참가자들의 열기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노동패널조사 관련 담당자들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KLIPS가 양과 질이라는 두 측면 모두에서 더욱 성공적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 사용자 제위께서도 KLIPS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탄없이 패널조사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제공한다면 KLIPS는 더욱 우수한 패널자료로 자리를 매길 것이다.

KLIPS는 자료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노동패널자료라는 양질의 패널자료를 가지고는 있으나 분석기법상의 한계로 인해 자료에 들어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그리고 엄밀하게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지난 제6회 학술대회는 특별 분과(special session)를 마련하여 패널자료 분석 방법론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 번의 노력만으로 방법론 습득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패널분석방법론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 가운데 한 분께서 2시간에 걸쳐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강연을 하여 200명을 훨씬 넘는 청중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강연자료

는 노동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KLIPS 자료를 사용하는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보다 우수한 패널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더욱 엄밀하고 풍부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KLIPS의 발전을 위한 유익한 제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언이 다시 KLIPS의 발전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KLIPS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제와 사회, 문화 등의 측면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우리 사회의 발전에 훌륭한 밑거름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를 마련하고 보충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미 지난 보고서들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FAQ는 노동패널자료의 사용과 관련하여 팀에 접수되는 질문들 가운데 빈도가 높은 질문들을 29개로 추려 이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를 사용자 지침(user's guide)에 추가하고 홈페이지에 올려 두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SAS와 SPSS 프로그램도 함께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STATA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KLIPS는 STATA 프로그램도 추가로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FAQ는 그동안 자료 사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는 FAQ의 문항을 더욱 늘리고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이 역시 홈페이지에 올려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자료 사용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한 이용자의 적극적인 문의는 앞으로도 FAQ를 더욱 확충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 외에도 노동패널자료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자료 사용자들이 일관된 분석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 응답자들의 무응답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 무응답 대체(imputation) 기법을 개발하고 그 대체치를 구현하여 완성된 자료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구가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응답의 부정확성을 보정하기 위해 노동패널조사 자료에 있는 가구와 개인의 사회경제적 정

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을 추정(tax imputation)하는 연구도 진행하였다. 무응답 대체와 조세 대체가 이루어진 자료는 11차 자료의 일반공개가 이루어지는 2010년 6월경에 함께 제공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KLIPS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였다. 외국의 연구자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KLIPS를 보다 일관되고 꼼꼼하게 영문화하여 홈페이지에 제공하였다.

KLIPS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패널자료(CNEF: Cross-National Equivalent File)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CNEF란 주요 국가들의 대표적인 가구패널자료들을 국가간에 서로 비교 가능하도록 재구축한 자료로서 PSID(미국), BHPS(영국), GSOEP(독일), SLID(캐나다), HILDA(호주) 등을 포함하고 있다. KLIPS-CNEF의 구축이 상당부분 진척되어 그 결과를 CNEF 워크숍에서 발표하였으며 KLIPS-CNEF의 완결성과 그 품질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새로운 자료(dataset)는 2010년 3월 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KLIPS-CNEF의 구축은 KLIPS의 활용도를 크게 제고하는 한편, KLIPS의 국제적인 위상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KLIPS의 구성과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 KLIPS는 기본조사과 부가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조사는 매년 반복되는 기본적인 내용들로 구성된다. 부가조사는 패널조사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기본조사에 덧붙여 실시하는 추가적인 조사이다. 기본조사는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의 경제활동을 주로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에 대한 조사는 가구의 구성과 가구 소득 및 소비, 주거 등의 내용을 조사한다. 가구원에 대한 조사는 가구를 구성하는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실시하며 취업자 개인(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과 미취업자 및 신규 진입자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내용은 개인의 경제활동, 노동력 상태, 소득, 노동이동 등 다양하다.

본 보고서의 구성도 KLIPS의 설문과 유사하다. 제2장은 제11차 조사에 대해 개관하고 있으며, 제3장과 제4장은 가구에 대한 주요 조사 자료들을 분석한 것으로서 각각 조사가구의 특성과 가계 경제에 대해 다룬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3장은 가구와 가구원의 현황 및 구성변화를 인

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 제4장은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살펴본다. 제5장부터 제7장은 가구원 개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5장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상태에 대해 분석한다. 제6장과 제7장은 각각 개별 근로자 가운데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근로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제8장은 11차 조사의 부가조사로 실시한 교육부가조사를 소개하고 몇 가지 주요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제9장은 패널자료의 특성을 심분 발휘할 수 있는 동학(dynamics)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상태에 있어 동태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다.

이제 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제2장은 11차년도 패널조사의 조사 방법 및 조사 결과, 표본유지율, 응답가구와 가구원 특성, 이사·분가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등과 같은 전반적인 조사 개요를 다루고 있다. 11차년도 조사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원표본 3,709가구 및 분가한 1,407가구를 합하여 총 5,116가구에 대한 조사에 성공하였다. 개인응답자는 전체 11,734명으로 이 중에서 기존 조사자가 11,342명, 새로 진입한 신규 가구원이 392명이었다.

표본유지율을 살펴보면 1차년도 원표본 5,000가구 대비 원표본유지율은 74.2%로 전년도 원표본유지율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하였다. 소멸가구를 제외한 유효표본가구(11차년도 4,862가구) 대비 표본유지율은 76.3%로 전년도 유효표본유지율 77.1%보다 0.8%포인트 감소하였다. 따라서 4차년도 이후 노동패널조사의 표본유지율은 가구 소멸로 인한 자연 감소를 제외하고는 표본 감소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조사의 질적 측면 역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 응답자 중 본인 응답 비율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가 증가한 91.7%를 기록하였다. 원가구 대비 1~11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의 비율은 52.1%이며, 원표본 대비 계속응답 개인의 비율은 39.7%로 분석되었다. 한편 비성공 가구의 비성공 사유로는 ‘강력 거절’이 56.6%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 한국노동패널의 조사 성과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강력거절’에 대한 대체가 매우 중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제3장은 조사에 성공한 가구와 가구원들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절은 지난 11년간의 노동패널 조사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표본 내에서의 인구변동에 대해 다룬다.

우선 11차년도 가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평균 가구원수는 3.1인이며, 4인 가구의 비중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가구주와 가구주의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 가구가 63.2%로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비중은 18.3%로 나타났다.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구성에 있어서 남성이 80.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평균연령은 50.1세로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대가 가구의 27.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5세 이상 전체 개인 응답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중이 47.4%로 남성보다 약간 낮았다. 평균연령은 41.9세이며,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미만 학력소지자가 2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1~11차년도 기간 동안 출생한 가구원은 총 1,857명으로 남자아이가 969명(52.2%), 여자아이가 888명(47.8%)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의 사망자는 700명이었으며 사망자의 평균연령은 72.4세였다.

제4장은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특성들을 살펴보고 있다. KLIPS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11차년도 조사 역시 지난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제1절은 가구 소득 부문으로서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 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2절은 가구의 지출을 생활비와 저축 항목으로 구분하여 알아보는 한편, 9차년도부터 대폭 설문이 보강된,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제3절은 가구의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

고, 제4절은 가구의 자산과 부채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자녀 교육비에 대해 알아본다.

연도별로 가구 총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11차년도 연간 총소득은 3,755만 원(월평균 313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6만 원 늘어났으며, 실질소득으로 환산하면 10차년도에 비해 61만 원 증가하였다.

월평균 생활비는 전년도에 비해 4만 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비의 증가폭은 4차년도까지 점차 커지고 5차년도부터는 완만해졌지만 10차년도부터 다시 상당한 폭으로 커졌다. 11차년도 조사가구 중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60.8%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47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9차년도에 설문이 대폭 강화된,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에 대해 살펴보면, 가구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24.8%였으며,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던 경우는 24.7%로 나타났다. 반면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66.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대로 가구주의 부모님과 가구주 배우자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도움은 각각 72.3%, 67.5%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도움은 26.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경제적 교류 액수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드린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11차년도 패널 응답가구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3.5%로 전년도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자산의 시가 총액은 1억~3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2차년도 71.2%에서 11차년도 59.5%로 지난 10년 동안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2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7차년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8차년도 이후 다시 증가하여 11차년도에는 2,079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48.5%를 차지하였다. 부채 잔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11차년도에는 3,603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5절은 재수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 탁아서비스 및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8.2%였으며, 이 가운데 자녀수가 2명인 경우가 50.0%로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15.8%의 가구만이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학생 자녀는 1명인 경우가 81.5%로 가장 많았다.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월평균 52만 2,000원(자녀당 교육비는 33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연평균 1,154만 9,000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당 연평균 971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5장은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KLIPS의 경제활동상태 구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 구분과는 다소 다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는 15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 기간<sup>2)</sup>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 수입이 있는 노동을 제공했으면 취업자로, 그 기간에 그런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며, 이들을 묶어 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반면 KLIPS는 조사일에 노동을 제공하고 있었으면 취업자로 보며, 그렇지 않은 사람 중 지난 1주(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한다. 조사 대상 기간만 고려하면 되는 횡단면 조사와 달리, 종단적으로 바뀌는 모든 일자리 변동 상황을 기록해야 하는 KLIPS의 특성상 미취업자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취업자를 정의할 때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의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할 때 2008년 경제활동참가율은 노동패널에서 55.8%로 나타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인 60.6%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참가율 추이 자체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두 자료는 가구조사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각각의 조사 특성을 반영하여 경제활동상태 분류 기준이 다소 상이하고, 조사 대상 기간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수치의 차이가 크지 않고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20%를 다소

2) 조사일 바로 전 주가 조사 대상 기간이다.

상회하는 표본탈락에도 불구하고 KLIPS가 비농가 부문의 경제활동을 여전히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6장은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을 살펴본다. 11차년도에는 전체 4,340명의 임금근로자가 조사되었으며,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은 1차년도 이후 꾸준히 늘다가 8차년도에 다소 감소한 후 9차년도부터 다시 증가하여 11차년도에는 71.4%에 달한다. 임금근로자 전체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력별로는 고졸자의 비중이 29.5%로 가장 높고, 연령별로는 30대가 2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 산업별로는 공공서비스업<sup>3)</sup>이 35.9%, 직종별로는 생산직이 36.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차년도 52.3시간에서 점차 감소하여 11차년도(2008년)에 48.0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는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비하여 약 8.5시간 가량 길지만<sup>4)</sup>, 근로시간 감소 추세는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9.8시간)이 여성(45.5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9.5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교육수준별로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적게 나타났다. 또 정규 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정규 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일하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11차년도에 28.7%로 나타나, 비교적 초과근로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8.9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임금 지급주기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94.0%는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시로 지급받는다’와 ‘매일 지급받는다’는 응답은 각각 2.2%, 3.3%에 그쳤다. 임금 산정방식별로도 월급제가 77.1%로 가장 많았으며, 연봉계약제는 11.5%에 불과하였다. KLIPS에서 조사되고 있는 월평균 실질임금은 1차년도 조사에서 135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3) 공공서비스업에는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사업 등이 포함된다.

4) 2008년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당 총 근로시간은 39.5시간(월 169.9시간)으로 나타났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11차년도에는 180만 7천 원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11차년도에 여성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138만 8,000원으로 남성의 59.2%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40대의 월평균 임금이 278만 7,000원으로 가장 높고, 여성은 30대가 167만 1,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322만 5,000원)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전문관리직(258만 8,000원)의 임금이 가장 높았다. 기업형태별로는 외국인 회사(324만 6,000원)가, 종업원규모별로는 500인 이상 기업(263만 7,000원)의 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7장은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본다. 10차년도의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2,034명이었으며,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8.6%이다. 11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주가 27.8%, 자영업자 54.6%,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7.5%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는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고용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중이 높았다.

한편 비임금근로자의 11차년도 주당 근로일수는 5.8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1.8시간으로 조사되었다. 1차년도에 59.8시간이었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이후 4차년도 조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5차년도 조사 이후 증가와 감소를 되풀이하는 가운데 11차년도 조사에서 감소한 것이다.

비임금근로자의 지난 11년간 월평균 명목소득은 1차년도 132만 2,000원에서 2차년도에 128만 3,000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11차년도에 274만 2천 원에 이르렀다. KLIPS에서 조사된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높았으며, 그 격차는 1차년도 26만 1,000원에서 5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가 이후 등락을 거듭한 가운데 11차년도에 75만 9,000원에 달하였다.

비임금근로자의 창업 과정을 보면, 우선 고용주와 자영업자 중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경우(유형 7)는 301명이었다. 창업 주체와 관련하여 가족 또는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기(4.8%)보다는 본인 스

스로 창업한 경우(87.9%)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시작하게 된 응답자에게 사업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응답 대상자의 84.3%가 본인 가족, 친지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였으며, 정부의 보조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제8장은 교육에 대한 부가조사를 소개하고, 몇 가지 항목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교육 부가조사는 각급 교육수준별로 다녔는지 여부, 다니지 않았다면 그 이유, 검정고시 여부, 학교 생활 만족도, 학교 활동, 성적 성취도, 사교육, 공부시간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문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각급 학교별 재학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재학률은 2008년 기준 만 39세 이하인 사람들의 경우 거의 모두 중학교 재학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40대의 경우 92.7%, 50세 이상에서는 70%에 약간 못 미치는 재학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50세 이상 집단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중학교 2학년 재학 당시 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중도 연령별로 보면 2008년 기준 40세 이상 연령에서는 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10% 미만에 머물렀다. 반면 40세 미만, 즉 1980년대 중후반경에 중학교를 다닌 연령대부터는 지속적으로 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08년 기준 만 39세 이하인 사람들은 거의 모두 고등학교 재학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40대의 경우 86.1%, 50~65세에서는 70%에 약간 못 미치는 재학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성별로는 역시 50세 이상 집단에서는 현격한 재학률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도 연령별로 계산해 보았는데, 2008년 기준 39세 이상 연령에서는 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10% 정도에 머물렀다. 반면 1980년대 후반이나 1990년대 초반경 고등학교를 다닌 36~39세 사이에서 사교육 경험률이 폭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8년 기준 만 39세 15%, 38세 18%, 37세 30%, 36세 43%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2008년 기준 50~65세의 32.7%가 대졸자였으며, 40대는 40.7%, 30대는 62.0%로 대학 경험자가 늘어 왔으며, 30세 미만에서는 80% 가까이 대학을 졸업했거나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30대

까지는 남성의 대학 졸업자 비중이 여성보다 높으나, 30세 미만에서는 중퇴까지 포함시 성별 차이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는 30대에서도 남녀 차이가 없었지만, 대학교의 경우는 30대에서도 남녀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상 소개한 항목 외에도 교육 부가조사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와의 대화 정도, 자녀 교육을 위한 이민이나 해외 유학, 이사 고민 여부, 학교 만족도 등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복무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도 포함하고 있다.

제9장은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패널자료란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적하여 조사한 자료이므로,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가 시간에 걸쳐 동태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패널자료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실시한 분석이 제9장의 분석이다. 노동시장 전체로 보아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 간의 이동을 먼저 분석한 뒤, 성과 연령 그리고 학력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의 이동경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10차와 11차에서 모두 조사된 개인들에 대한 동태적 분석뿐 아니라 9차와 10차에서 모두 조사된 개인들에 대한 분석도 비교를 위해 함께 제시하였다.

## 제 2 장

## 한국노동패널 11차 조사의 개요

## 제 1 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총 열한 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sup>5)</sup>

KLIPS의 진행 상황을 조사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1차년도에 조사된 가구는 5,000가구, 면접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13,321명이었다.

이후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원표본 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각각 87.6%, 80.9%에 그쳤다. 이는 패널조사가 생소했던 패널응답가구들이 지속적인 조사를 꺼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4차년도 이후 패널유지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게 되었으며, 심지어 6차년도에는 패널유지율이 소폭이지만 증가하기도 하였다.

2008년에 실시된 제11차 KLIPS 조사에서는 원표본 3,709가구 및 분

5)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연구는 노동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본 조사는 통계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통계청 승인번호 : 33601).

〈표 2-1〉 1~11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조사대상 원가구- 소멸가구	조사 성공 가구수 <sup>1)</sup>	원표본 가구수 <sup>2)</sup>	원표본 유지율 <sup>3)</sup>	유효표본 유지율 <sup>4)</sup>	분가 가구수	가구원 수 <sup>5)</sup>	실사 기간
1차('98)	5,000	5,000	5,000	100.0	100.0	-	13,321	6~10월
2차('99)	5,000	4,508	4,378	87.6	87.6	130	12,037	7~12월
3차('00)	5,000	4,266	4,044	80.9	80.9	222	11,205	5~10월
4차('01)	5,000	4,248	3,866	77.3	77.3	383	11,051	5~10월
5차('02)	5,000	4,298	3,798	76.0	76.0	500	10,966	4~ 9월
6차('03)	4,993	4,592	3,862	77.2	77.3	730	11,541	4~ 9월
7차('04)	4,950	4,762	3,863	77.3	78.0	899	11,661	4~ 9월
8차('05)	4,935	4,849	3,822	76.4	77.4	1,027	11,580	4~10월
9차('06)	4,914	5,001	3,820	76.4	77.7	1,181	11,756	4~10월
10차('07)	4,899	5,069	3,775	75.5	77.1	1,294	11,855	4~10월
11차('08)	4,862	5,116	3,709	74.2	76.3	1,407	11,734	4~10월

- 주: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 중 해당 연도에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원표본유지율'은 1차년도에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에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4) '유효표본유지율'은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소멸한 원가구를 제외한 가구 대비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5)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가한 1,407가구를 합하여 총 5,116가구에 대한 조사를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74.2%로 전년도에 비해 1.3%포인트가 하락하였다. 한편 개인 응답자는 전체 11,734명으로 이 중에서 기존 조사자가 11,342명, 신규 가구원이 392명이었다.

## 제 2 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과 설문 내용

### 1.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KLIPS는 10차년도 release 버전 자료부터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동안 각각의 연도별로 상이한 구조를 가졌던 설문지의 종류와 자료 및 변수들을 통합하고 재구조화하여 종단면 일치성(longitudinal consistency)을 갖도록 하였다. 개편된 자료는 크게 가구용 자료, 개인용 자료, 부가조사 자료, 그리고 직업력 자료로 나뉜다. <표 2-2>를 통해서 자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1~11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자료명		내 용	
가구용 자료	KLIPS_H	가구원의 기본정보 가구 특성 관련 설문(소득, 소비, 주거 등)	
개인용 자료	KLIPS_P	주된 일자리의 특성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응답자 공통	취업자 미취업자
		신규 조사자 문항	
부가조사 자료	KLIPS_A	청년층 조사(3차) 건강과 은퇴(4차) 중고령자 조사(6차) 근로시간과 여가(7차)	노동조합과 노사관계(8차) 청년층 조사(9차) 고용형태 조사(10차) 교육(11차)
직업력 자료	KLIPS11W	개인이 가졌던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	

우선 가구용 자료는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 및 소득, 소비, 거주형태, 자산, 부채 등 가구 단위의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개인용 자료는 크게 조사 당시 갖고 있던 주된 일자리의 특성과 관련된 문항,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 응답자에 관련된 문항, 그리고 조사에 진입할 당시에 한 번만 조사되는 문항들(출생지, 14세 당시 거주지, 부모님의 직업, 교육수준 등)로 나눌 수 있다.

직업력 자료는 개인의 주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15세 이후 가졌던 모든 일자리의 산업, 직업,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에 대해 ‘일자리 단위’로 누적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자료들이 조사 차수별로 각각 존재하는 반면, 직업력 자료는 1개의 데이터셋만을 가지게 된다.

가구용 및 개인용으로 구성되어 매년 비슷한 내용을 반복 조사하는 본 조사 자료와는 달리 3차년도부터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1차년도 조사가 행해진 2008년에는 응답자들의 교육수준과 학업 성취 등에 관한 ‘교육’ 부가조사가 실시되었다.

## 2. 설문 내용

KLIPS의 11차년도 설문지는 가구용 설문, 예비조사 설문, 유형 설문, 취업 및 미취업자용 설문, 신규 조사자용 설문, 교육 부가설문으로 구성된다.<sup>6)</sup>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11차년도 설문의 주요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3 참조).

11차년도 설문의 주요 특징은 10차년도 당시 부가조사로 실시된 ‘고용 형태’에 관한 문항을 대거 본설문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취업한 응답자들의 설문 부담이 상당부분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영어 능력 및 위험에 대한 태도 문항들은 삭제하였다. 또한 금연, 금주와 관련된 문항은 노동패널의 국제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KLIPS-CNEF<sup>7)</sup> 데이터를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된 문항이다.

6) 1~11차년도 조사자료의 설문 내용은 ‘통합 설문지 및 KLIPS 1~11차 User’s Guide’를 참조.

7) 세계 각국의 가구패널조사들이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일된 형태로 구축해 놓은 자료를 말한다. cross-national equivalent file의 약어이다.

〈표 2-3〉 11차년도(2008년) 설문 변동 내용

가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거주지 이사 동기</li> <li>▪ 저축관련 문항 항목조정</li> <li>▪ 기타 금융자산 문항 추가</li> <li>▪ 영어교육 및 논술교육 문항 삭제(10차년도만 조사)</li> <li>▪ 유동성제약 문항 삭제(10차년도만 조사)</li> </ul>
유형 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체의 주된 장소 문항 추가(유형 3, 4, 7, 8)</li> <li>▪ 사업자 등록증 여부 문항 추가(유형 3, 4, 7, 8)</li> <li>▪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항 추가(유형 3, 4, 7, 8)</li> </ul>
응답자 공통 (취업자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여부 문항 추가(비임금근로자)</li> <li>▪ 국민연금 가입형태 문항 추가(비임금근로자)</li> <li>▪ 특수고용 직업선택 문항 추가</li> <li>▪ 금연일자, 금주일자 신규문항 추가</li> <li>▪ 고용형태 신규 문항 set 추가</li> <li>▪ 영어관련 문항 삭제(10차년도만 조사)</li> <li>▪ 위험에 대한 태도 문항 삭제(10차년도만 조사)</li> </ul>
응답자 공통 (미취업자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연일자, 금주일자 신규문항 추가</li> <li>▪ 영어관련 문항 삭제(10차년도만 조사)</li> <li>▪ 위험에 대한 태도 문항 삭제(10차년도만 조사)</li> </ul>
신규 조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설문과 취업자용 설문, 미취업자용 설문의 수정 내용을 동일하게 반영</li> </ul>
교육 부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 개인의 학력사항</li> <li>▪ 학생시절 사교육관련 문항</li> <li>▪ 응답자 본인 및 자녀의 현재 사교육관련 문항</li> <li>▪ 학생시절 생활관련 문항</li> <li>▪ 학업성취도 등</li> </ul>

### 제 3 절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

#### 1. 조사 과정 및 조사 방법<sup>8)</sup>

KLIPS의 실사는 민간 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11차년도 조사는 2008년 4월에서 10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방법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 타계식(face-to-face interview)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 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설문지에 한하여 유치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절대적인 원칙은 가구용 설문지는 반드시 직접면접을 통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개인용 설문지는 직접면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정에 따라서 장기 출타중인 경우 설문지를 가정 내에 유치하기도 하고, 밤 늦은 시간에만 접촉이 가능한 경우 전화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 답변을 받기 위해 한 가지 방식만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면접을 한 후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은 전화로 재확인 작업을 하는 등 설문지 답변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응답 시기는 가구용 설문지와 각각의 개인용 설문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면접원이 가구원 중 한 명과 만나서 가구용 설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가구의 표본 대상 가구원을 파악한 후에 개인용 설문지를 면접하거나, 면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치를 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KLIPS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 구성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조사하였다. 첫째, 실사 기간 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은 직접조사하였다. 둘째, 가구로 복귀하지 않은

8) 한국노동패널의 표본 크기, 표본 틀 및 추출방법에 대한 내용은 노동패널 인터넷 사이트(<http://www.kli.re.kr/klips>)를 참조.

사람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화조사를 하였다. 셋째, 전화면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가구원(예: 영내 거주 군인 및 전투경찰, 취학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교도소·소년원·요양원 등 사회보호시설 수용자 등)은 개인용 설문지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 이들의 인적사항 등은 가구용 설문지에서 질문하였다. 넷째, 전화면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예: 취업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사업상 장기간 출타 중인 사람, 아르바이트 학생, 영내 거주 직업군인 및 경찰 등)에 대한 개인용 설문지는 해당 가구원의 가장 가까운 조사 대상자가 대리응답하였다. 또한 정신박약, 허약, 치매, 노환 등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은 가장 가까운 조사 대상자가 대리응답하였다.

<표 2-4>는 각 연도별 조사 방식이 어떤 비중들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면접조사의 비중이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 당시 면접조사의 비중은 64.4%에 그쳤으

<표 2-4> 각 연도별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단위: 명, %)

	개인 응답자수	전체 비중	면접	유치	전화	면접+ 전화	유치+ 전화	면접+ 유치	면접+ 유치+ 전화
1차년도	13,321	100.0	64.4	21.8	1.5	2.6	3.7	2.6	0.1
2차년도	12,037	100.0	77.8	7.6	7.4	4.7	2.5	0.1	0.0
3차년도	11,205	100.0	83.0	5.1	5.3	3.9	1.5	0.9	0.2
4차년도	11,051	100.0	83.7	3.4	4.6	4.9	1.2	1.8	0.5
5차년도	10,966	100.0	83.8	2.6	3.9	6.4	1.0	1.0	1.3
6차년도	11,541	100.0	86.3	1.7	3.8	5.7	0.9	1.3	0.4
7차년도	11,661	100.0	88.0	1.8	4.1	3.7	0.4	1.6	0.5
8차년도	11,580	100.0	85.4	1.6	2.8	6.1	1.4	1.7	1.0
9차년도	11,756	100.0	89.7	1.5	2.9	2.8	0.7	2.3	0.3
10차년도	11,855	100.0	91.3	1.1	3.2	3.1	0.6	0.6	0.1
11차년도	11,734	100.0	95.7	0.6	1.8	1.3	0.3	0.2	0.1

주: 1차년도와 3차년도의 전체 비중이 100%가 안되는 것은 '모름' 비중 때문임.

나,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1차년도에는 95.7%에 이르렀다. 반면 유치조사는 1차년도에 21.8%나 되었지만 11차년도에는 0.6%로 그 비중이 대폭 감소하였다.

<표 2-5>는 대리응답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1차년도 조사 당시 대리응답의 비중은 19.7%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차년도에는 11.3%로 낮아졌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전반적으로 대리응답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표 2-5> 각 연도별 조사 방식(본인, 대리인) 분포

(단위: 명, %)

	개인 응답자수	전체 비중	본인	대리인	본인+대리인
1차년도	13,321	100.0	74.0	19.7	0.4
2차년도	12,037	100.0	88.7	11.3	0.0
3차년도	11,205	100.0	88.3	8.1	3.6
4차년도	11,051	100.0	83.3	11.0	5.5
5차년도	10,966	100.0	83.8	9.8	6.4
6차년도	11,541	100.0	83.1	11.2	5.8
7차년도	11,661	100.0	85.7	9.7	4.7
8차년도	11,580	100.0	87.3	5.0	7.7
9차년도	11,756	100.0	90.0	3.0	7.1
10차년도	11,855	100.0	90.7	5.6	3.7
11차년도	11,734	100.0	91.7	5.8	2.6

주: 1차년도의 전체 비중이 100%가 안되는 것은 '모름' 비중 때문이다.

한편 11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면접원 방문 횟수는 평균 2.3회로 10차년도의 2.6회보다 다소 감소하였다(표 2-6 참조). 조사성공가구의 방문 횟수는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KLIPS 조사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제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문 횟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경북, 강원이 2회 미만의 방문 횟수를 보였다. 반면 광주, 충북 등은 방문 횟수도 많고 조사성공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성공률과 방문 횟수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웠다.

〈표 2-6〉 조사성공기구의 평균 방문 횟수

(단위: 회)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11차년도
전 체	2.9	3.0	3.3	3.1	2.6	2.3
서울	3.4	3.3	3.5	3.2	2.5	2.4
부산	3.0	3.3	3.5	3.3	3.3	2.3
대구	3.4	4.2	3.8	3.3	2.9	1.3
대전	1.8	2.2	3.3	3.2	1.9	2.6
인천	2.8	2.3	2.5	3.0	2.8	2.3
광주	2.3	3.1	3.4	3.9	3.2	3.0
울산	2.9	2.8	3.6	3.0	3.5	2.7
경기	2.9	2.5	2.9	2.6	2.3	2.1
강원	2.1	2.4	2.7	1.8	2.1	1.3
충북	2.3	1.9	3.7	3.6	2.6	3.1
충남	1.8	2.9	4.0	3.2	2.4	2.9
전북	2.6	3.1	3.5	3.1	2.5	1.8
전남	2.6	2.9	4.0	3.9	3.4	2.9
경북	3.4	4.1	3.3	2.4	2.2	1.5
경남	2.9	3.2	3.6	3.3	3.2	2.7
제주	1.8	3.7	3.5	5.5	1.5	2.0

〈표 2-7〉은 조사 시기별 진행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11차년도 조사는 10차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조사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11차년도 조사는 2008년 3월 18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19일에는 대전/광주, 21일 대구/부산, 27일에는 강원 지역에서 면접원 교육이 실시되었다. 한편 10차년도 대전·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한 CAPI 조사 방법이 11차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CAPI 조사 교육이 4월 2~4일, 4월 11일에 지역별로 실시되었다. 조사의 시작은 면접원 교육이 종료된 직후부터 이루어졌으며, 조사진행 상황에 대한 집계는 설문지가 조사업체의 각 지방사무소와 면접원에게 배포된 후 4월 말경부터 이루어졌다. 조사진행 상황은 초기에는 낮은 진척도를 보이다가 조사진행이 본격화되는 5월 말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름 휴가가 본격화되는 7월에는 주춤하다가 다시 8월 이후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질적으로는 조사 수행 정도가 시기별 및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실제 조사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사 초기에는 지속적으로 응답에 응하거나 조사가 용이한 가구부터 진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사 후기에는 응답을 거부하거나 이사 추적 등, 보다 높은 면접 기술과 노력이 필요한 가구들이 조사된다.

〈표 2-7〉 시기별·지역별 조사진행률 추이: 원가구

(단위: %)

	4월 22일	5월 19일	6월 2일	6월 16일	6월 30일	7월 14일	7월 27일	8월 25일	9월 29일	10월 31일
서울	5.0	24.7	36.7	45.1	52.2	60.0	62.6	68.3	70.4	71.2
부산	4.3	27.3	33.5	37.6	48.5	56.3	67.9	76.5	77.5	78.7
대구	2.6	19.9	31.6	36.8	44.0	59.9	61.9	66.4	68.1	68.4
인천	3.4	37.4	44.8	51.2	56.9	64.6	66.0	68.0	76.1	76.8
광주	5.9	25.0	39.5	44.7	50.0	59.9	66.4	71.1	71.5	74.2
대전	2.8	23.2	30.5	31.9	40.4	50.4	61.0	66.7	69.5	71.6
울산	0.0	10.0	13.6	25.5	32.7	59.1	70.9	77.3	77.3	77.3
경기	5.1	24.6	34.8	47.6	57.2	64.6	70.3	75.6	77.7	79.0
강원	0.0	13.0	26.0	39.7	48.9	54.2	58.0	70.2	76.3	76.3
충북	3.5	28.9	31.6	33.3	45.6	55.3	61.4	72.8	75.2	77.0
충남	14.8	47.4	57.0	66.7	74.1	75.6	77.0	81.5	81.5	82.2
전북	2.6	23.4	35.9	41.7	56.8	74.5	82.8	83.9	84.4	85.4
전남	0.0	24.6	38.5	47.7	56.9	68.5	80.0	85.4	86.0	86.0
경북	4.8	28.3	35.7	41.5	47.8	67.6	72.4	73.5	74.5	76.4
경남	3.0	20.5	22.2	30.8	47.0	61.6	69.2	74.2	75.4	77.4
제주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 조사 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조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표본이탈(sample attrition)을 최소화하여 일정한 수준의 표본유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1차년

도 KLIPS의 총 조사표본은 5,116가구와 그 가구 내에 포함된 가구원 11,734명이다.

KLIPS의 표본유지율은 외국의 주요 패널조사와 비교할 때에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8>은 각국의 가구패널조사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비교하고 있다.

원표본유지율은 두 가지 기준에서 산출할 수가 있다. 첫째, 1차년도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를 기준으로 조사성공률을 산출할 수 있다. 다

<표 2-8> 각국의 가구패널조사와 KLIPS 원표본유지율

(단위: %, 연도, 가구)

	미국 PSID	독일 GSOEP	영국 BHPS	대우 KHPS	KLIPS		
					원표본 유지율	유효표본 유지율	조사성공 원표본가구수
2차 년도	89.0 (1969)	89.9 (1985)	87.7 (1992)	79.0 (1994)	87.6 (1999)	87.6 (1999)	4,378
3차 년도	86.3 (1970)	86.0 (1986)	81.5 (1993)	66.0 (1995)	80.9 (2000)	80.9 (2000)	4,044
4차 년도	83.7 (1971)	84.9 (1987)	79.9 (1994)	59.0 (1996)	77.3 (2001)	77.3 (2001)	3,866
5차 년도	81.2 (1972)	81.3 (1988)	76.8 (1995)	56.0 (1997)	76.0 (2002)	76.0 (2002)	3,798
6차 년도	78.8 (1973)	79.2 (1989)	77.3 (1996)	44.0 (1998)	77.2 (2003)	77.3 (2003)	3,862
7차 년도	76.4 (1974)	78.4 (1990)	76.0 (1997)	종료	77.3 (2004)	78.0 (2004)	3,863
8차 년도	74.1 (1975)	78.9 (1991)	74.1 (1998)	-	76.4 (2005)	77.4 (2005)	3,822
9차 년도	71.2 (1976)	78.4 (1992)	72.1 (1999)	-	76.4 (2006)	77.7 (2006)	3,820
10차 년도	69.0 (1977)	78.8 (1993)	70.4 (2000)	-	75.5 (2007)	77.1 (2007)	3,775
11차 년도	67.0 (1978)	77.7 (1994)	68.4 (2001)	-	74.2 (2007)	76.3 (2007)	3,709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조사연도를 의미함.

2) 유효표본유지율 계산에 사용된 분모는 6차년도 4,993가구, 7차년도 4,950가구, 8차년도 4,935가구, 9차년도 4,914가구, 10차년도 4,899가구, 11차년도 4,862가구임.

음으로, 소멸가구를 고려하여 성공률을 조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1인 단독가구에서 그 가구원의 사망이나 이민 등으로 인해 가구가 소멸한 경우, 이를 분모가 되는 원표본가구수에서 빼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서는 편의상 전자를 원표본유지율, 후자를 유효표본유지율이라고 하겠다.

KLIPS의 11차년도 원표본유지율은 74.2%, 유효표본유지율은 76.3%였다. 원표본유지율의 추세를 살펴보면, KLIPS뿐 아니라 다른 패널조사의 경우에도 2차년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패널조사 초기에 표본이탈률이 높다는 일반적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후 3~5차년도 KLIPS는 외국의 패널조사에 비해 그 하락폭이 컸으나, 6차년도 이후 표본유지율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다른 패널조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6차년도부터는 원가구원의 사망이나 해외이민 등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가구 자체가 소멸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 소멸가구는 6차년도에는 불과 7가구에 지나지 않았으나, 매년 증가하여 11차년도에는 138가구에 달했다.

지역별 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표본추출 당시의 거주지를 기준<sup>9)</sup>으로 하여 살펴보겠다(표 2-9 참조). 지역적으로 대구, 대전, 충북 지역의 표본유지율이 11차년도 기준 70% 미만이었고, 충남, 전북, 전남 지역이 80% 이상의 표본유지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원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도 지역이 광역시 지역에 비해 표본유지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도 지역 응답자들에 비해 더 자주 이사를 하는 등 패널추적이 어려운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응답자의 성향, 면접원의 특성과 숙련도, 지역의 실사 단위의 체계, 지역별 정치적·문화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유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그 지역에서 조사성공 하였더라도, 1차 당시 서울 거주자였다면 서울지역으로 계산하였다.

〈표 2-9〉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

(단위: 가구, %)

	원표 본수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11차 년도
전체	5,000	87.6	80.9	77.3	76.0	77.2	77.3	76.4	76.4	75.5	74.2
서울	1,353	84.9	77.6	72.4	70.7	74.0	72.9	72.4	72.0	71.8	71.4
부산	486	90.5	89.7	88.3	84.4	80.2	78.4	77.8	77.2	77.8	76.1
대구	314	84.1	72.0	67.5	71.0	77.4	70.1	73.6	72.3	71.3	68.2
대전	153	83.7	81.0	79.7	76.5	80.4	79.7	75.8	73.9	69.9	69.3
인천	298	85.6	81.9	73.2	77.9	75.8	79.5	78.2	79.9	75.8	74.8
광주	158	78.5	69.0	77.2	80.4	79.1	77.2	76.6	75.3	73.4	74.7
울산	116	96.6	96.6	89.7	86.2	83.6	82.8	79.3	79.3	74.1	72.4
경기	856	90.2	80.0	72.7	70.2	75.5	79.7	78.3	77.6	77.3	74.8
강원	130	87.7	86.2	73.8	65.4	63.8	67.7	71.5	73.8	75.4	75.4
충북	113	87.6	75.2	77.0	75.2	70.8	69.9	67.3	70.8	68.1	69.0
충남	131	91.6	87.8	84.0	83.2	80.9	80.9	79.4	79.4	81.7	80.2
전북	199	88.9	74.4	84.9	83.4	81.9	81.9	80.4	81.9	82.4	81.9
전남	127	92.1	89.8	89.8	89.0	84.3	89.0	86.6	87.4	88.2	86.6
경북	274	89.4	82.5	80.3	82.1	83.6	84.3	82.1	83.2	77.7	76.3
경남	292	89.7	88.4	89.4	84.9	83.2	81.2	79.8	80.8	79.8	77.1

주: 지역 구분은 1차년도 조사 당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당해연도 조사가가구수/원표본 가구수)×100.

## 제 4 절 응답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 1. 응답 가구의 특성

패널조사의 조사성공률과 함께 패널응답가구의 지속응답 여부 또한 자료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표 2-10>은 1~11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성공가구들이 조사에 몇 번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했던 가구의 수는 6,786가구이며, 이 중 원가구는 73.7%(5,000가구), 2차년도 이후 분가한 비원가구는 26.3%

〈표 2-10〉 1~11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

(단위: 가구, %)

	전 체		원가구		비원가구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1회	495	7.3	198	4.0	297	16.6
2회	445	6.6	189	3.8	256	14.3
3회	426	6.3	196	3.9	230	12.9
4회	389	5.7	182	3.6	207	11.6
5회	370	5.5	175	3.5	195	10.9
6회	357	5.3	149	3.0	208	11.7
7회	332	4.9	211	4.2	121	6.8
8회	376	5.5	245	4.9	131	7.3
9회	399	5.9	316	6.3	83	4.7
10회	590	8.7	532	10.6	58	3.3
11회	2,607	38.4	2,607	52.1	0	0.0
전 체	6,786	100.0	5,000	100.0	1,786	100.0

(1,786가구)이다. 원가구 중에서는 1~11차년도 기간 동안 모두 응답한 가구가 5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차년도에 응답한 후 아직까지 조사에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원가구는 4.0%(198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기할 만한 점은 1차년도 응답 이후 계속 조사되지 않던 원가구는 10차년도에 200가구였는데 이들 중 2가구가 10년 만에 다시 조사에 응했다는 점이다.

분가가구들은 2차년도 이후 새롭게 형성된 가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11회 모두 응답한 가구가 존재할 수 없다.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분가가구 중 원가구에서 분가한 이후 매해 조사에 모두 응답한 가구는 총 865가구(48.4%)<sup>10)</sup>였으며, 1회만 응답한 가구는 210가구<sup>11)</sup>였다. 참고로 2차년도에 분가하여 조사에 성공한 가구의 수는 총 227가구였으며, 이 중에서 58가구(25.6%)가 11차년도까지 모두 응답하였다. 분가차수가 최근 일수록 매해 지속 응답하는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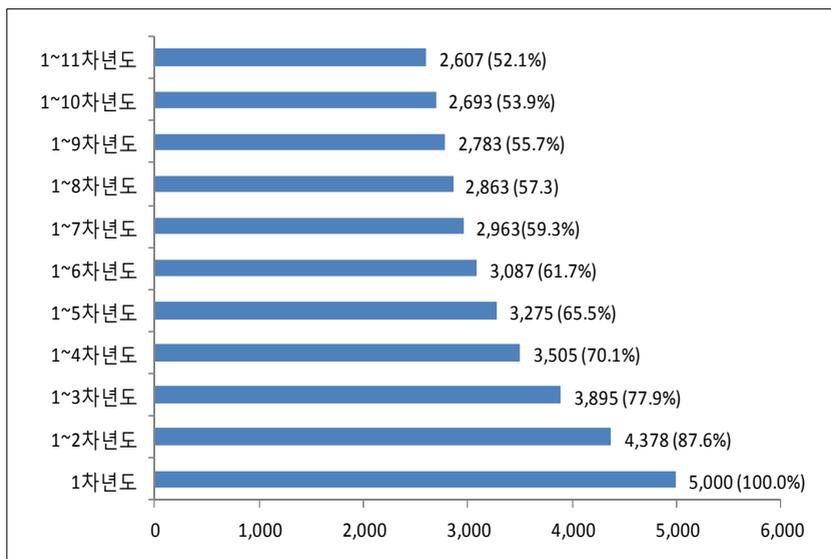
10) 11차년도 분가가구는 1회 응답가구지만 모두 응답한 가구로 계산하였으며, 전체 분가가구수는 1,786가구이다.

11) 11차년도 분가가구는 1회 응답가구면서 모두 응답가구이므로 제외하였다.

[그림 2-1]은 KLIPS 연도별로 계속해서 응답한 원가구수와 1차년도 대비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1~11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계속 응답한 가구는 2,607가구로 1차년도 5,000 원표본가구의 52.1%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차년도의 경우 87.6%로, 3차년도 77.9%, 4차년도 70.1%로 매년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 노동패널조사 연도별 계속응답가구수

(단위: 가구, %)



1~11차년도 계속응답가구에 속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11>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계속응답가구주의 79.5%가 남성으로 1차년도 조사(85.9%) 당시에 비해 그 비중이 6.4%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자의 비중이 97.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차년도 조사 당시 40대(28.4%) > 30대(26.7%) > 50대(20.2%) > 60세 이상(18.4%) > 30세 미만(6.4%) 순으로 나타난 데 반해, 1~11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경우 60세 이상이 42.6%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와 40대가 각각 27.3%, 25.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구주가 30세 미만인 경우는 0.2%에 그치고 있어, 조사 차수에 따른 연령 증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응답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 분포에서는 가구주가 고학력자일수록 지속응답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학력이 고졸 미만인 경우는 1차년도가 39.9%였으나, 계속응답가구 중에서는 48.2%가 고졸 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표 2-11〉 1~11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가구주 특성<sup>1)</sup>

(단위: 명, %)

		1차년도 원표본가구(1차)		1~11차년도 계속응답가구 <sup>2)</sup>	
전 체		4,989	100.0	2,569	100.0
성 별	남 성	4,283	85.9	2,041	79.5
	여 성	706	14.1	528	20.5
혼인상태	기혼(무배우 포함)	4,655	93.4	2,505	97.5
	미 혼	330	6.6	64	2.5
연 령	30세 미만	318	6.4	6	0.2
	30대	1,332	26.7	120	4.7
	40대	1,417	28.4	650	25.3
	50대	1,006	20.2	700	27.3
	60세 이상	916	18.4	1,093	42.6
교육수준	고졸 미만	1,988	39.9	1,237	48.2
	고 졸	1,750	35.1	801	31.2
	대학 재학 및 중퇴	143	2.9	62	2.4
	전문대졸	245	4.9	111	4.3
	대졸 이상	862	17.3	358	13.9
취업상태	임금근로자	2,227	44.6	996	38.8
	비임금	1,440	28.9	733	28.5
	미취업자	1,322	26.5	840	32.7

주: 1) 1차년도(1998년) 조사 당시 개인설문 응답자를 기준으로 함.

2) 해당 가구에 가구주가 없거나 개인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는 제외함.

취업상태별로는 1차년도 조사 당시와 비교할 때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소폭 감소한 데 비해, 미취업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11차년도 계속응답가구주 중 임금근로자는 38.8%, 비임금근로자는 28.5%, 미취업자는 32.7%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살펴볼 때,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고연령, 저학력, 미취업자일수록 지속적으로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2. 조사성공가구원의 특성

KLIPS는 조사 대상 가구에 소속된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모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성공률과 관련된 가구원의 특성들 또한 전적으로 가구의 성공률에 의해 좌우된다. <표 2-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차년도에서 11차년도 조사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한 개인은 17,989명이다. 조사 기간 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모두 응답한 개인은 5,289명으로 전체 원표본가구원 대비 50.8%이며, 1회만 조사에 응답한 원표본가구원은 223명으로 2.1%를 차지했다.

<표 2-12> 1~11차년도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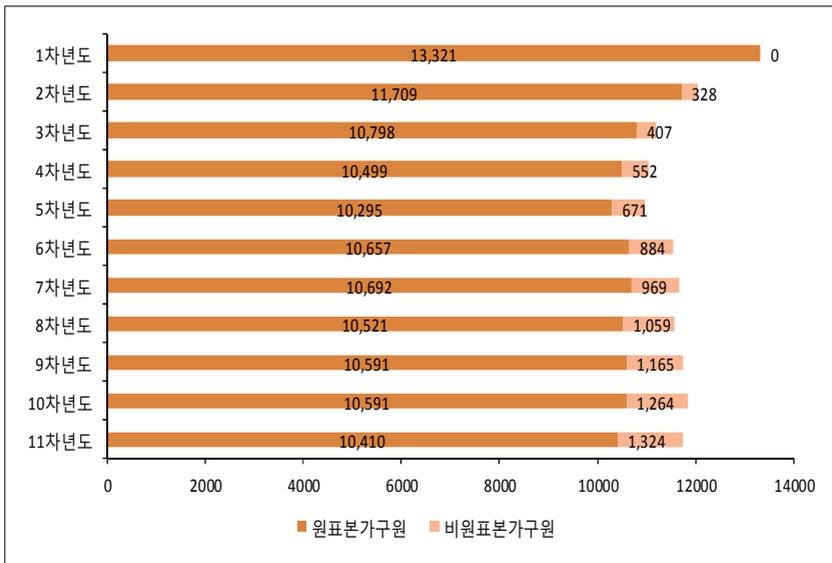
(단위: 명, %)

	전 체	원표본가구원		비원표본가구원	
	가구원수	가구원수	%	가구원수	%
1회	1,423	223	2.1	1,200	15.8
2회	1,321	218	2.1	1,103	14.6
3회	1,244	279	2.7	965	12.7
4회	1,196	280	2.7	916	12.1
5회	1,158	338	3.3	820	10.8
6회	1,101	421	4.0	680	9.0
7회	1,071	492	4.7	579	7.6
8회	1,259	752	7.2	507	6.7
9회	1,288	867	8.3	421	5.6
10회	1,639	1,251	12.0	388	5.1
11회	5,289	5,289	50.8	0	0.0
전 체	17,989	10,591	100.0	7,012	100.0

각 연도별로 응답한 15세 이상 원표본가구원의 수를 살펴보면 [그림 2-2]와 같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총 가구원인 17,506명 중 개인조사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총 13,321명이었다. 2차년도에는 개인조사에 성공한 총 가구원 12,037명 중 97.3%에 해당하는 11,709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가구원의 수는 점차 감소하다가, 6차년도 조사에서 소폭 증가한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11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1,734명 중 88.7%에 해당하는 10,410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그림 2-2) 각 연도별 원표본가구원수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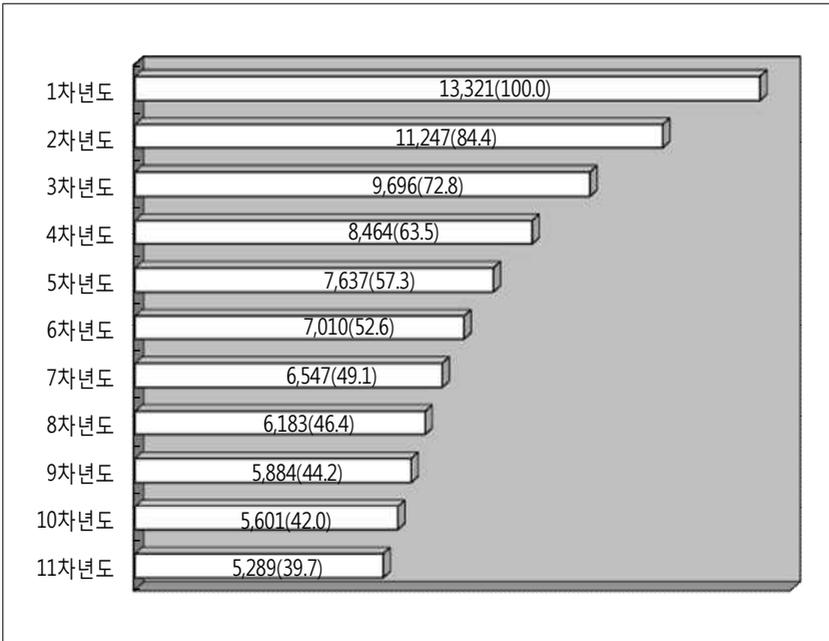


다음으로 각 연도별 계속응답가구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2-3]과 같다. 1차년도 총 조사성공가구원 13,321명 중 84.4%인 11,247명이 2차년도 조사에 응답하였으며, 3차년도 조사에는 전년도보다 11.6%포인트가 감소한 9,696명이 지속응답하였다. 지속응답가구원의 숫자는 계속 감소하여 11차년도에는 5,289명(39.7%)만이 응답하였다. 차수가 거듭될수록 계속응답가구원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감소폭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KLIPS의 설문은 지난 조사 이후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떤 개인응답자가 중간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사에 복귀할 경우 공백기간의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에 직접조사할 경우와 비교할 때, 중간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답자의 회고 에러 등으로 인해 일관성 측면에서 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림 2-3) 각 연도별 계속응답가구원수 추이

(단위: 명, %)



## 제 5 절 이사·분가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 1. 이사가구의 특성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이동률이 18.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2)</sup>. 경제활동, 주택, 교육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인구이동은 인구사회학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동일한 가구를 추적 조사해야 하는 패널조사의 경우 조사 성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KLIPS 11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의 이사 여부에 대한 설문은 2008년에 새

〈표 2-13〉 이사가구 분포

(단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11차년도	7~11차 평균
전 체	18.8	15.0	16.2	15.2	14.2	15.9
서 울	21.8	15.2	18.9	17.5	17.2	18.1
부 산	11.7	9.4	12.0	11.6	11.6	11.3
대 구	16.9	12.5	14.0	14.1	8.0	13.1
대 전	18.0	21.4	11.3	14.0	10.8	15.1
인 천	22.5	13.1	13.0	15.9	12.9	15.5
광 주	13.3	6.9	15.0	11.4	11.8	11.7
울 산	12.7	15.9	11.2	13.2	12.7	13.1
경 기	27.1	20.3	21.2	17.7	17.4	20.7
강 원	15.0	10.8	14.3	16.0	11.5	13.5
충 북	12.2	21.2	17.2	16.5	15.0	16.4
충 남	9.0	15.6	13.6	15.4	13.1	13.3
전 북	12.8	12.9	12.8	14.3	12.4	13.0
전 남	14.7	12.3	12.1	13.8	8.8	12.3
경 북	11.2	8.9	12.2	12.2	12.5	11.4
경 남	15.1	14.9	15.4	9.9	11.9	13.4

12) 통계청 홈페이지, 「국내인구이동 통계결과」에서 인용하였다.

롭게 분가한 가구를 제외한 5,02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11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이사가구는 총 712가구로 분가가구를 제외한 전체 성공가구의 14.2%이다.

<표 2-13>을 통해 7~11차년도 기간 동안 평균적인 이사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와 서울 지역이 각각 20.7%와 1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이사가구의 비중이 낮은 지역으로는 부산(11.3%), 경북(11.4%), 광주(11.7%)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 인구가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8차년도(2004~05년)에는 신행정도시 결정과 관련하여 대전·충북 지역의 이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 2. 비원표본가구(분가가구)의 특성

KLIPS 11차년도 조사성공가구(5,116가구) 중에는 원표본 3,709가구 이외에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가구는 아니었지만 2차년도 이후 분가하여 새롭게 조사에 진입한 비원표본 1,407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분가성공가구 중 2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62가구이며, 11차년도에 87가구가 새롭게 진입하였다(표 2-14 참조).

<표 2-14>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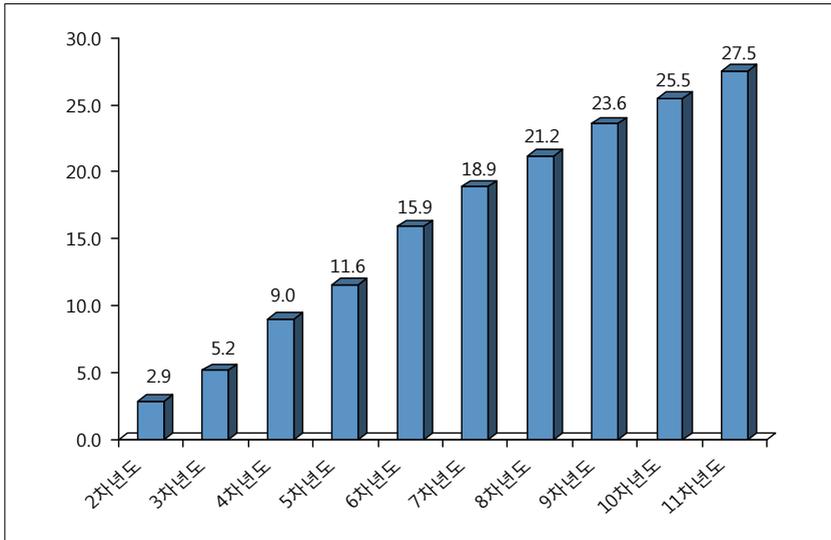
(단위: 가구, %)

진입시점	전 체		응답가구		비응답가구	
전체	1,786	100.0	1,294	100.0	492	100.0
2차년도	227	12.7	162	11.5	65	13.2
3차년도	151	8.5	106	7.5	45	9.1
4차년도	196	11.0	142	10.1	54	11.0
5차년도	185	10.4	135	9.6	50	10.2
6차년도	217	12.2	154	11.0	63	12.8
7차년도	192	10.8	149	10.6	43	8.7
8차년도	175	9.8	147	10.5	28	5.7
9차년도	192	10.8	174	12.4	18	3.7
10차년도	164	9.2	151	10.7	13	2.6
11차년도	87	4.9	87	6.2	0	0

한편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이들 분가가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2-4]에서 볼 수 있듯이, 2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비원표본가구의 비중이 2.9%에 그치고 있으나,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 6차년도 15.9%, 11차년도에는 27.5%에 이르고 있다.

(그림 2-4) 각 연도별 전체응답가구 대비 비원표본가구의 비중

(단위 : %)



### 3. 비성공가구의 특성

11차년도까지 파악된 전체 조사 대상 가구는 모두 7,287가구(소멸가구 제외)로 집계되었다. 이 중에서 11차년도 응답가구를 제외한 비성공가구는 2,171가구이다. 이 중에서 264가구는 당해 연도에 분가했으나 조사에 성공하지 못한 가구이며, 10차년도 이전에 분가하였으나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가구가 466가구, 이전조사에 응했으나 11차년도에 성공하지 못한 가구가 1,441가구이다.

<표 2-15>는 11차년도 비성공가구의 지역별 분포 및 비성공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비성공가구들의 비성공 사유를 살펴보면, ‘강력 거

절'이 절반을 넘는 56.6%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이사를 하였으나 연락처나 주소를 알 수 없어서 추적할 수 없었던 '이사/추적 불가'가 31.8%, '접촉 안됨'이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11차년도 비성공가구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가구, %)

비성공 이유	전 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사례수	1,907	534	152	148	59	105	54	39	370
강력 거절	56.6	61.6	59.9	42.6	55.9	39.1	70.4	59.0	61.9
이사/추적불가	31.8	27.7	30.9	37.2	27.1	41.9	27.8	35.9	29.2
접촉 안됨	7.3	6.2	7.2	17.6	8.5	15.2	0.0	0.0	5.7
사 망	0.6	0.2	0.7	0.7	1.7	1.0	0.0	2.6	0.5
이 민	1.3	2.1	1.3	1.4	1.7	0.0	0.0	2.6	0.8
기 타	2.3	2.3	0.0	0.7	5.1	2.9	1.9	0.0	1.9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비성공 이유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주	해 외
사례수	46	42	37	54	29	112	116	2	8
강력 거절	17.4	83.3	78.4	37.0	44.8	50.0	60.3	50.0	12.5
이사/추적불가	71.7	4.8	16.2	55.6	48.3	33.0	31.0	50.0	0.0
접촉 안됨	10.9	9.5	0.0	1.9	3.5	9.8	5.2	0.0	0.0
사 망	0.0	0.0	0.0	0.0	0.0	1.8	1.7	0.0	0.0
이 민	0.0	0.0	0.0	1.9	0.0	1.8	0.9	0.0	12.5
기 타	0.0	2.4	5.4	3.7	3.5	3.6	0.9	0.0	75.0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당해연도 분가 비성공가구인 246가구는 거절사유가 기록되지 않음.

비성공가구에 대한 면접원의 접촉 횟수는 평균 2.7회로 성공가구의 평균 면접 횟수 2.2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공가구와 비성공가구간에 체계적인 방문 횟수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0차년도에는 성공가구의 방문 횟수가 오히려 많았던 반면, 9차년도에는 비성공가구의 방문 횟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구의 방문 횟수가 체계적으로 성공률을 높인다든지 혹은 낮춘다기보다는 면접원 개인의 성향, 기록의 성실성 여부 등에 따라 편차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는 3회가 37.2%로 가장 많았으며, 성공가구는 1회인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다(표 2-16 참조). 일반적으로 비성공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접촉 노력을 하기 때문에 방문 횟수가 성공가구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이는 비성공 이유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표 2-16〉 비성공가구 방문 횟수

(단위: 가구, %)

	가구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전 체	7,002	32.7	27.0	23.1	11.2	3.5	2.6
비성공가구	1,886	14.5	30.9	37.2	11.8	4.1	1.6
성공가구	5,116	39.4	25.5	17.9	11.0	3.2	3.0

주: 1) 당해연도 분가 비성공가구인 246가구는 방문 횟수가 기록되지 않음.  
 2) 강력 거절로 인해 방문 횟수가 0인 21가구는 제외.

〈표 2-17〉 비성공사유별 평균 방문 횟수

(단위: %)

	전 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강력 거절	100.0	9.7	30.6	43.3	10.7	4.2	1.6
이사/추적 불가	100.0	17.9	37.6	33.1	8.0	3.0	0.5
접촉 안됨	100.0	15.8	7.2	20.9	38.9	10.1	7.2
사 망	100.0	75.0	8.3	8.3	8.3	0.0	0.0
이 민	100.0	45.8	29.2	25.0	0.0	0.0	0.0
기 타	100.0	55.6	27.8	2.8	11.1	0.0	2.8

주: 1) 당해연도 분가 비성공가구인 246가구는 방문 횟수가 기록되지 않음.  
 2) 강력 거절로 인해 방문횟수가 0인 21가구는 제외.

〈표 2-17〉은 비성공사유별 평균 방문 횟수를 보여준다. ‘강력 거절’의 59.8%, ‘접촉 안됨’의 77.1%가 3회 이상 방문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10차년도에는 ‘이사/추적 불가’ 중 88.0%가 1회 방문에 그친 데 반해, 11차년도에는 ‘이사/추적 불가’일 경우라 하더라도 2회 방문이 37.6%, 3회 방문이 33.1%로 응답 패널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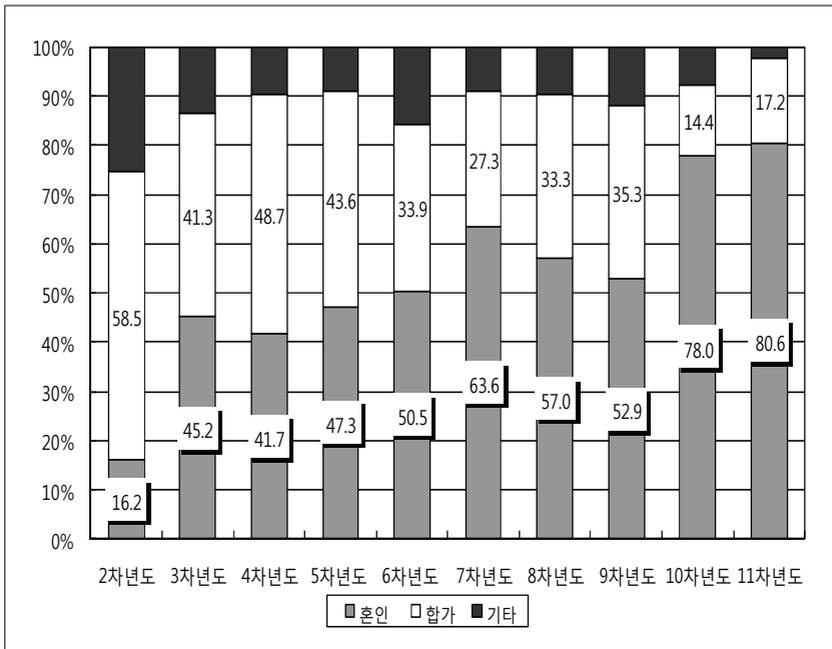
#### 4. 신규 조사자의 특성

11차년도 KLIPS의 신규 조사자는 392명으로, 이 중 원표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은 226명, 비원표본가구원으로 신규 조사된 가구원은 166명으로 파악되었다. 신규 조사자의 진입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원표본가구원이면서 신규 조사자에 포함되는 경우인데, 이들은 1~11차 조사시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case 1), 혹은 11차년도 조사시 만 15세가 되어 새롭게 개인조사에 진입하는 경우(case 2)에 해당한다. 둘째는 비원표본가구원의 진입인데, 이 경우에도 기존의 비원표본가구원이 새롭게 15세가 되는 등의 이유로 처음 개인조사에 응답하는 경우(case 3)와, 혼인이나 합가로 인해 11차년도에 새롭게 조사 대상자로 추가되는 경우(case 4)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5]는 case 4에 해당하는 비원표본가구원의 신규 추가이유에 대

(그림 2-5) 비원표본가구원 신규 추가이유(2~11차년도)

(단위: %)



한 결과이다. 그림에 따르면, 차수별로 다소간 변동은 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혼인에 의한 표본추가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11차년도에는 80.6%가 혼인에 의한 추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1차년도 신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2-18 참조), 비원표본가구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55.4%로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원표본가구는 남성이 54.0%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18〉 11차년도 신규 조사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세)

		전 체		원표본가구원		비원표본가구원	
전 체		392	100.0	226	100.0	166	100.0
성 별	남 성	196	50.0	122	54.0	74	44.6
	여 성	196	50.0	104	46.0	92	55.4
가구주와 의 관계	가구원	363	92.6	224	99.1	139	83.7
	가구주	29	7.4	2	0.9	27	16.3
혼인상태	기 혼	151	38.5	1	0.4	150	90.4
	미 혼	241	61.5	225	99.6	16	9.6
평균연령		25.3		15.6		38.4	

전체 신규 조사자 중에서 가구주는 7.4%지만, 대부분이 비원표본가구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 38.5%를 차지한 가운데 원표본가구는 대부분 미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비원표본가구의 경우에는 기혼자가 90.4%에 달했다. 한편 평균연령은 25.3세로 기존 조사자들보다는 낮은 편이며, 특히 원표본가구의 평균연령(15.6세)과 비원표본가구의 평균연령(38.4세)은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이러한 결과는 원표본가구원인 신규 조사자들이 대부분 15세가 되면서 개인조사에 편입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 제 6 절 한국노동패널의 가중치

표본조사 자료의 결과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KLIPS의 경우에도 인구센서스 및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조사구 내 가구수와 동부 및 읍면부 도시 조사구 비중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매년도 가중치를 산출하고 있다. 여기서는 가중치의 부여방법 및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1. 1차년도 조사의 가중치 부여방법

1차년도 조사의 가중치는 기본적으로 두 단계를 거쳐서 계산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표본이 ‘추출될 확률(selection probability)’을 계산하는 것인데, 이것은 표본조사구의 추출확률과 표본가구의 추출확률로 구분된다. 먼저 표본조사구의 추출확률은 인구센서스의 10% 표본조사구에 선정되고, 다시 KLIPS의 표본조사구로 선정될 확률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표본조사구에서 최종 표본가구로 추출될 확률은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응답가구수로 총 접촉가구수를 나눈 값과 인구센서스 조사구 내의 전체 가구수로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응답가구수를 나눈 값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최종적인 표본의 추출확률은 조사구 추출확률과 최종 표본가구 추출확률의 곱으로 계산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응답률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지역에 따라 응답가구와 비응답가구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응답률 계산에 지역 정보나 조사구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특성들을 가중치에 반영해 주는 것이다.

한편 KLIPS 가중치 부여에는 적절한 자료가 확보될 수 없는 관계로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를 실시하지 않았다. 우선 KLIPS의 1차조사가 1998년임을 고려할 때 가구 단위의 사후층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는 통계청의 「1995년 인구센서스」 자료이나 이를 사용하여 사후층화를 하는 것은 시의성이 없다. 개인 단위의 사후층화 자료로

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고용구조특별조사」 자료 등이 있으나, 장래인구추계 자료는 광역시가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 대한 연령·성별 인구분포 추계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나 고용구조특별조사 자료는 전수조사 자료가 아닌 표본조사 자료이므로 사후층화 의미가 퇴색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 2. 2차년도 조사 이후의 가중치 부여방법

KLIPS와 같은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는 자료의 특성상 1차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 및 가구원이 2차년도 조사 이후에 응답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조사간 표본이탈(panel attrition)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표본가구에 결혼·동거·입양·출생 등의 이유로 새롭게 진입한 가구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원표본가구원(non-sample household)으로 인해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가구구성원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2차년도 이후의 가중치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부여되었다. 1단계로 이미 산출된 1차조사의 개인가중치를 가구원들의 상이한 응답률을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가구와 가구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응답 여부에 관한 로짓(logit) 모형을 설정한 후 도출된 계수를 사용하여 모든 가구원들의 응답 확률을 추정하게 된다. 이 응답 확률의 역수를 최초의 개인가중치에 곱하여 무응답 조정 가중치(non-response adjusted weights)를 산출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새롭게 산출된 해당 조사의 개인가중치를 평균하여 적절한 조정절차를 거친 후 가구가중치를 산출한다. 이때 결혼·동거 등의 사유로 새롭게 진입한 비원표본가구원의 경우에는 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가구 차원의 무응답 조정가중치가 산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출된 가중치는 스케일 조정을 거쳤다. 1998년 가구가중치는 이미 스케일 조정된 것이므로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연도의 경우에는 통계청의 가구추계자료(2000~05년)의 5년간 총 가구수 증가율을 평균한 값을 KLIPS 1차년도 가중치 합계에서부터 매년 누적

적으로 곱해 주어 산출하였다. 개인가중치의 스케일 조정에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비농가 생산가능인구(1998~2002년)의 5년간 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1차년도 개인가중치 합계에 매년 누적적으로 곱해 주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이러한 계산 과정을 거친 최종적인 가중치의 결과 값은 <표 2-19>에 표기하였다.

<표 2-19> KLIPS의 가중치의 사례수

(단위: 명)

	가구가중치			개인가중치				
	전 체	평 균	s.d.	전 체	종단면		횡단면	
					평 균	s.d.	평 균	s.d.
1차년도	11,276,899	2,255	415	30,039,370	2,255	417	2,255	417
2차년도	11,453,518	2,541	575	30,501,162	2,534	675	2,534	576
3차년도	11,632,899	2,727	721	30,974,696	2,764	879	2,764	726
4차년도	11,815,100	2,781	851	31,453,224	2,846	1,055	2,846	854
5차년도	12,000,165	2,792	946	31,939,145	2,912	1,215	2,912	964
6차년도	12,188,092	2,654	1,001	32,432,573	2,810	1,314	2,810	1,028
7차년도	12,378,982	2,599	1,063	32,933,624	2,824	1,447	2,824	1,117
8차년도	12,572,862	2,593	1,124	33,442,416	2,888	1,608	2,888	1,210
9차년도	12,769,778	2,553	1,175	33,959,067	2,889	1,720	2,889	1,277
10차년도	12,969,778	2,558	1,216	34,486,033	2,909	1,811	2,909	1,327
11차년도	13,174,121	2,575	1,321	35,016,440	2,984	2,022	2,984	1,459

### 3. 가중치 변수 및 이용방법

가중치는 KLIPS의 분석 단위에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며, 개략적인 사용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 차원의 분석에는 가구가중치가 사용될 수 있으며, 종단면 분석이나 횡단면 분석 중 어떤 것을 하더라도 동일한 가중치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 차원의 분석에는 연구자의 분석 목적에 따라 개인 횡단면 가중치와 개인 종단면 가중치가 사용될 수 있다. 개인 횡단면 가중치는 비원

표본가구원의 추출 확률이 원표본가구원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비원표본가구원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의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반면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비원표본가구원을 제외하고 원표본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중치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현재 개발된 가중치는 스케일이 조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추계조사 내지는 표본조사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대표 모집단의 총 사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다음 장부터 제시될 요약 통계들에서는 각 특성별 비중만 제시하였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 제 3 장

## 조사가구의 특성

본장에서는 11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 성공한 5,116가구와 그 가구의 구성원들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가구와 가구원들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지난 11년간의 노동패널 조사 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표본 내에서의 인구 변동에 대해 다룬다.

이 장에서는 분석 대상이 가구일 경우 가구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는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단,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분석에서는 해당되는 가중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 제 1 절 가구 및 세대 구성

본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성을 살펴본다. KLIPS에서 가구란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가구 개념과 같이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하며, 가구원에는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을 비롯하여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 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미혼 자녀의 경우와 미혼 자녀 중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따로 사는 미혼 자녀 중 재학이나 군복무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와 기혼 자녀 중 따로 사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같이 살고 있으나 파출부,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 친·인척이 아닌 경우도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표 3-1>은 11차년도에 조사된 가구의 가구원수 변화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평균 가구원수는 3.1인으로 나타난다.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평균 가구원수는 3.10명, 광역시에 거주하는 평균 가구원수는 3.12명, 도 지역에 거주하는 평균 가구원수는 3.05명으로 거주지별 평균 가구원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인 가구원수의 분포는 4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34.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인(21.5%), 1인(16.9%)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 연도별 가구원수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전 체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평균 (인)
1차년도	5,000	10.2	13.1	19.4	38.0	13.8	5.5	3.5
2차년도	4,508	9.8	13.0	19.7	38.3	14.3	4.9	3.5
3차년도	4,266	10.3	13.7	19.7	38.0	13.6	4.7	3.5
4차년도	4,248	10.9	14.3	18.7	38.7	13.3	4.2	3.4
5차년도	4,298	11.2	15.2	19.4	38.4	12.3	3.6	3.4
6차년도	4,592	12.4	16.1	20.0	37.1	11.4	3.2	3.3
7차년도	4,762	13.4	16.4	20.8	36.4	10.5	2.7	3.2
8차년도	4,849	14.3	16.9	21.5	35.5	9.5	2.3	3.2
9차년도	5,001	16.2	17.5	20.8	34.4	9.0	2.2	3.1
10차년도	5,069	17.6	17.2	21.3	33.6	8.5	1.9	3.0
11차년도	5,116	16.9	16.5	21.5	34.2	8.9	2.0	3.1

11차년도 가구원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큰 변동은 없으나 4인 이상 가구의 비중이 1차년도에 비해 하락한 반면, 1~3인 가구의 비중

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sup>13)</sup>에서 추정된 1인 가구의 비중보다는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KLIPS의 경우 표본설계 당시 도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표본추출 과정에서 1인 가구가 인구센서스에 비해 과소표집된 것으로 보인다.

<표 3-2>에서 보듯이 조사가구의 세대 구성<sup>14)</sup>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주와 그의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 가구가 63.2%로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주와 그의 배우자 또는 가구주와 그의 형제,

<표 3-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전체 (가구수)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 가구
1차년도	5,000	10.2	10.1	69.8	9.8	0.1
2차년도	4,508	9.8	10.2	70.2	9.8	0.1
3차년도	4,266	10.2	10.7	69.7	9.4	0.1
4차년도	4,248	10.9	11.0	69.2	8.9	0.2
5차년도	4,298	10.9	11.8	68.9	8.3	0.1
6차년도	4,592	12.4	12.1	67.9	7.6	0.1
7차년도	4,762	13.4	12.1	67.7	6.8	0.1
8차년도	4,849	14.3	12.6	66.5	6.6	0.1
9차년도	5,001	16.2	12.9	64.5	6.3	0.0
10차년도	5,069	17.6	12.7	63.6	6.0	0.0
11차년도	5,116	18.3	13.1	63.2	5.3	0.0

13) 장래가구추계에 의한 1인 가구 비중은 2002년 17.3%, 2003년 18.2%, 2004년 19.1%, 2005년 20.0%, 2006년 20.0%, 2007년 20.1%, 2008년 20.1%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14) 가구의 세대별 구성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에 따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 가구 구성원이 1명인 가구.

1세대 가구 : 가구주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또 가구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가 이에 속한다.

2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3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 가구주의 손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 그리고 가구주의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4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의 형제로 이루어진 1세대 가구는 13.1%를 차지하였다. 한편 1인 가구가 18.3%이고, 가구주와 그의 자녀, 가구주의 손자·손녀가 같이 살거나 가구주와 그의 부모, 가구주의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의 비중은 5.3%였다.

세대 구성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인 가구는 1차년도에 그 비중이 10.2%에 그쳤던 데 반해 11차년도 조사에서는 8.1%포인트가 증가한 반면, 3세대 가구는 1차년도 9.8%에 비해 오히려 4.5%포인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핵가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1]은 제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11차년도 조사에서 3세대 가구라고 응답한 가구 중 54.5%가 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지역과 광역시 지역의 3세대 가구 비중을 합한 값보다도 많은 것으로 중소도시일수록 여전히 확대가족 형태를 지닌 가구가 많음을 보여준다.

(그림 3-1) 11차년도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

(단위: %)



<표 3-3>은 가족구성 형태의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핵가족이란 부부만 사는 경우(부부 단독), 부모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부모+미혼자녀), 부모님 중 한 분과 미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

〈표 3-3〉 연도별 가족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전체 (가구수)	핵가족 가구	핵가족			1인가구	비핵가구
			부부 단독	부모+ 미혼자녀	편부모+ 미혼자녀		
1차년도	5,000	74.4	9.0	59.3	6.1	10.2	15.4
2차년도	4,508	74.8	9.1	59.6	6.1	9.8	15.5
3차년도	4,266	75.0	9.5	59.1	6.5	10.2	14.8
4차년도	4,248	75.8	10.2	59.2	6.4	10.9	13.4
5차년도	4,298	76.0	10.8	58.6	6.6	10.9	13.1
6차년도	4,592	75.6	11.2	56.6	7.7	12.4	12.1
7차년도	4,762	75.6	11.2	56.4	8.0	13.4	11.0
8차년도	4,849	75.0	11.7	55.0	8.2	14.3	10.7
9차년도	5,001	73.6	12.1	53.6	8.0	16.2	10.2
10차년도	5,069	72.7	12.0	52.9	7.8	17.6	9.8
11차년도	5,116	72.7	12.3	52.4	8.0	18.3	9.0

우(편부모+미혼자녀)로 정의한다. 11차년도를 보면, 먼저 부모+미혼 자녀 가구가 52.4%로 가장 높았으며, 이것이 전형적인 핵가족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 단독 가구가 12.3%, 편부모+미혼자녀 가구가 8.0%로 나타나고 있다. 각 연도별 핵가족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1차년도 74.4%에서 조금씩 증가하다 6차년도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11차년도에 72.7%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가구추계 자료의 경우 핵가족 가구의 비중이 2000년 68.3%, 2001년 67.6%, 2002년 67.0%, 2003년 66.3%, 2004년 65.6%, 2005년 65.0%, 2006년 65.1%, 2007년 65.2%, 2008년 65.2%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KLIPS의 핵가족 비중이 약 6~8%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핵가족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제 2 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본절에서는 KLIPS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KLIPS의 가구주는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sup>15)</sup>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가구에 대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KLIPS의 경우 비혈연 관계로만 이루어진 가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 1. 가구주의 특성

<표 3-4>에서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1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50.1세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80.2%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차년도 조사 이후 남성 가구주의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역시 계속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중이 전체 연령 계층 중 가장 많은 비중인 27.0%를 차지하였다. 9차년도까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40대는 25.0%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가구주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11차년도에는 38.8%까지 증가하였다.

15) 인구주택총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가계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표 3-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분포 추이

(단위: 명,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11차 년도
전 체		4,989	4,473	4,227	4,221	4,230	4,548	4,684	4,763	4,923	4,986	5,041
성 별	남 성	86.1	86.1	86.1	85.9	85.4	83.5	83.2	82.0	81.5	81.0	80.2
	여 성	14.0	13.9	13.9	14.1	14.6	16.5	16.8	18.0	18.5	19.0	19.8
혼인 상태	미 혼	6.5	6.0	6.5	5.8	6.0	6.7	7.4	8.0	9.0	9.8	10.0
	기혼유배우	79.6	79.5	78.8	79.1	78.8	77.0	75.6	74.2	72.8	72.1	71.6
	기혼무배우	13.9	14.5	14.7	15.1	15.2	16.4	17.0	17.8	18.2	18.2	18.3
연령	30세 미만	6.3	5.1	4.3	4.7	4.3	5.0	4.7	5.2	5.0	5.1	5.4
	30대	26.9	26.8	25.4	23.1	22.9	22.9	22.8	22.4	22.5	22.6	22.3
	40대	28.4	28.2	28.7	30.0	28.9	28.7	28.2	27.0	26.1	25.6	25.0
	50대	20.1	19.7	19.8	19.2	19.3	18.8	19.5	20.2	20.8	20.5	20.3
	60세 이상	18.3	20.3	21.8	23.0	24.5	24.6	24.8	25.3	25.5	26.3	27.0
	평균(세)	46.8	47.5	48.2	48.7	49.1	49.1	49.4	49.6	49.8	50.0	50.1
교육 수준	무 학	6.3	6.2	6.2	6.0	6.1	5.8	5.6	5.6	5.3	5.1	5.0
	고졸 미만	33.7	33.1	32.7	33.4	31.9	30.4	29.2	28.1	26.6	25.5	24.4
	고 졸	34.9	34.4	34.3	32.8	32.6	32.6	31.6	30.8	30.3	29.4	27.9
	대재밋중퇴	2.8	2.8	2.6	2.8	2.6	2.8	3.2	3.2	3.5	3.8	3.9
	대졸 이상	22.3	23.5	24.2	25.1	26.8	28.4	30.4	32.3	34.2	36.2	38.8

## 2. 가구원의 특성

여기서는 개인 설문과 신규 조사자 설문에 응답한 15세 이상 가구원 11,734명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표 3-5>에서는 11차년도 조사 15세 이상 가구원의 특성을 보여준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여성의 비중이 51.4%로 남성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조사 차수가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11차년도 조사에서는 여성이 47.4%, 남성이 52.6%로 전년도에 비해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41.9세로 나타났다. 11차년도 현재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중은 17.3%로 1차년도(13.5%)에 비해 3.8%포인트 높아진 반면, 15세 이상 20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1차년도(10.9%)에

비해 1.6%포인트가 하락한 9.3%로 나타났다. 개인 응답자의 주 연령대는 30대(20.9%)지만, 40대(19.4%)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두 연령대의 격차가 조사를 거듭할수록 좁혀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구원들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 미만자가 2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무학력자의 비중도 4.1%나 뒀으며, 고졸 학력 소지자는 24.7%였다. 전반적으로 고학력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1차년도에 12.2%에 불과하던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11차년도에 23.1%까지 증가하였다.

〈표 3-5〉 1~11차년도 조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11차 년도
전 체		13,321	12,037	11,205	11,051	10,966	11,541	11,661	11,580	11,756	11,855	11,734
성 별	남 성	48.6	48.9	49.3	49.6	49.9	50.1	50.8	51.1	51.8	52.3	52.6
	여 성	51.4	51.1	50.7	50.4	50.1	49.9	49.2	48.9	48.2	47.7	47.4
연 령	15~19세	10.9	11.0	10.1	9.4	8.9	8.9	8.9	8.7	8.7	8.8	9.3
	20~24세	9.3	9.1	9.6	10.1	9.8	9.6	9.5	8.4	8.2	7.7	7.3
	25~29세	10.9	10.8	10.8	10.8	10.4	10.9	10.7	11.5	11.5	11.7	11.7
	30~39세	23.0	22.7	22.2	21.4	21.7	21.3	21.5	21.6	21.1	21.4	20.9
	40~49세	19.7	19.5	19.6	20.5	20.4	20.5	20.5	20.4	20.1	19.5	19.4
	50~59세	12.8	12.5	12.6	12.4	12.6	12.6	12.8	13.3	13.9	14.0	14.1
	60세 이상	13.5	14.5	15.1	15.5	16.2	16.1	16.0	16.3	16.5	16.9	17.3
	평균(세)	39.7	39.9	40.3	40.6	40.9	41.0	41.1	41.4	41.6	41.8	41.9
혼인 상태	미 혼	28.8	29.7	30.9	30.9	31.1	31.9	32.6	33.0	33.5	34.4	35.1
	기혼 유배우	62.6	61.6	60.6	60.5	60.2	59.2	58.3	57.5	56.8	56.0	55.3
	기혼 무배우	8.7	8.7	8.6	8.6	8.7	8.9	9.1	9.5	9.7	9.7	9.6
교육 수준	무 학	6.5	6.3	6.0	5.7	5.6	5.2	5.0	4.8	4.5	4.3	4.1
	고졸 미만	35.4	34.3	33.2	32.8	31.5	30.5	29.4	28.6	27.6	26.6	26.2
	고 졸	31.9	31.8	31.6	30.0	29.6	29.1	28.2	27.7	26.8	26.1	24.7
	대재밋중퇴	8.5	8.8	9.1	9.9	9.6	9.6	10.0	9.6	10.3	10.7	10.9
	전문대졸	5.4	5.9	6.5	7.2	8.0	8.6	9.1	9.7	10.0	10.5	11.2
	대졸 이상	12.2	12.8	13.5	14.4	15.6	17.1	18.4	19.6	20.7	21.7	23.1

### 제 3 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KLIPS의 조사 대상 가구에는 매년 가구원의 출생·결혼 등으로 인한 가구원의 진입 및 유학, 군입대, 사망 등으로 인한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 이 중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의 인구 변동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sup>16)</sup>

먼저, 출생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1~11차년도 기간 동안 총 출생아는 1,857명이며, 각 연도별 출생아의 수는 2차년도 148명, 3차년도 122명, 4차년도 191명, 5차년도 150명, 6차년도 217명, 7차년도 206명, 8차년도 172명, 9차년도 187명, 10차년도 217명, 11차년도 247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4차, 7차, 10차년도의 경우에는 여아의 비중이 남아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연도에는 남아의 비중이 여아의 출생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3-6> 2~11차년도 출생자의 특성

(단위: 명, %)

	전 체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11차 년도
전 체	1,857	148	122	191	150	217	206	172	187	217	247
남 성	969 (52.2)	76 (51.4)	64 (52.5)	86 (45.0)	82 (54.7)	112 (51.6)	100 (48.5)	93 (54.1)	108 (57.8)	105 (48.4)	143 (57.9)
여 성	888 (47.8)	72 (48.7)	58 (47.5)	105 (55.0)	68 (45.3)	105 (48.4)	106 (51.5)	79 (45.9)	79 (42.3)	112 (51.6)	104 (42.1)

주: ( ) 안은 전체 대비 비중임.

16) 이 절의 분석에는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KLIPS에서 부여되는 개인 단위의 가중치는 15세 이상의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1~11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출생하는 가구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가중치가 부여될 수 없으며, 사망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개인조사에서 당연히 누락되므로 역시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1~11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사망한 표본에 대한 특성을 살펴본다. 총 사망자는 700명으로 이 중에서 2차년도 사망자가 64명, 3차년도 59명, 4차년도 92명, 5차년도 60명, 6차년도 80명, 7차년도 72명, 8차년도 80명, 9차년도 76명, 10차년도 54명, 11차년도 63명으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각 연도별 사망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전체 사망자 중에서 남성이 60%(420명), 여성이 40%(280명)로 남성이 20%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망자의 성별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추세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사망 당시의 연령을 살펴보면, 조사 기간 동안의 전체 사망자

<표 3-7> 2~11차년도 사망자의 특성

(단위: 명, %)

		전체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11차 년도
전체		700	64	59	92	60	80	72	80	76	54	63
성 별	남 성	420 (60.0)	44 (68.8)	36 (61.0)	41 (44.6)	36 (60.0)	50 (62.5)	51 (70.8)	47 (58.8)	47 (61.8)	34 (63.0)	34 (54.0)
	여 성	280 (40.0)	20 (31.3)	23 (39.0)	51 (55.4)	24 (40.0)	30 (37.5)	21 (29.2)	33 (41.3)	29 (38.2)	20 (37.0)	29 (46.0)
사 망 당 시 연 령	50세 미만	89 (12.8)	12 (19.1)	6 (10.3)	10 (10.9)	12 (20.0)	15 (18.8)	11 (15.3)	7 (8.8)	8 (10.5)	3 (5.6)	5 (7.9)
	50~ 59세	76 (10.9)	6 (9.5)	6 (10.3)	12 (13.0)	6 (10.0)	9 (11.3)	12 (16.7)	11 (13.8)	5 (6.6)	5 (9.3)	4 (6.4)
	60~ 69세	146 (20.9)	18 (28.6)	15 (25.9)	11 (12.0)	10 (16.7)	20 (25.0)	16 (22.2)	14 (17.5)	18 (23.7)	8 (14.8)	16 (25.4)
	70~ 79세	183 (26.2)	14 (22.2)	17 (29.3)	26 (28.3)	23 (38.3)	14 (17.5)	20 (27.8)	19 (23.8)	19 (25.0)	13 (24.1)	18 (28.6)
	80세 이상	204 (29.2)	13 (14.1)	14 (24.1)	33 (35.9)	9 (15.0)	22 (27.5)	13 (18.1)	29 (36.3)	26 (34.2)	25 (46.3)	20 (31.8)
평균연령		69.7	65.5	69.3	70.7	66.8	67.2	65.4	72.2	72.5	75.3	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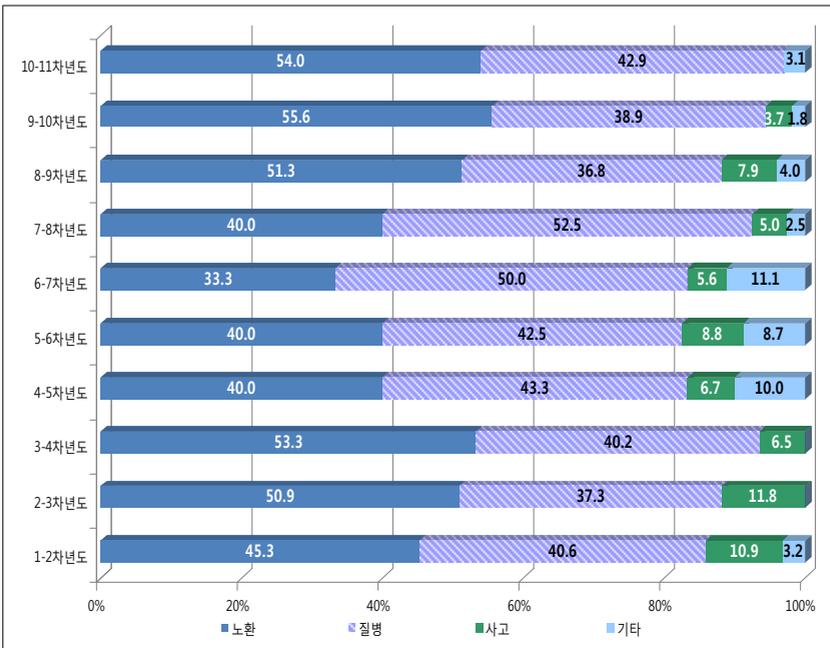
주: 사망 시기를 응답하지 않아 사망 당시 연령을 알 수 없는 경우가 2명 있음.

중에서 사망 당시 50세 미만이었던 가구원의 비중은 12.8%이며, 50~59세가 10.9%, 60~69세는 20.9%, 70~79세는 26.2%, 80세 이상은 29.2%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사망한 가구원의 절반 이상이 70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망자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2차년도 사망자는 65.5세였는데, 이후 증감을 되풀이하며 11차년도에는 72.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연령 또한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를 통해 10~11차년도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노환이 54.0%(3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질병이 42.9%(27명), 기타가 3.1%(2명)로 각각 조사되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분석 결과 1~4차년도 조사기간 동안은 노환이 가장 많은 사망 원인으로 나타났으나, 5~8차년도 기간 동안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였다가 9차년도 이후부터 노환이 다시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3-2] 사망자의 사망원인

(단위: %)



## 제 4 장

# 가계경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11차년도(2008년) 조사에서도 지난 조사에 이어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절 가구소득 부분에서는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 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지출을 생활비와 저축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가구의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가구의 자산을 크게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부채의 특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기본적으로 가구가중치를 사용한 것이며, 예외적으로 분석 내용의 특성상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를 밝히도록 하였다. 또한 2~11차년도의 연간총소득 및 월평균 생활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제시하였다.

## 제 1 절 가구소득

KLIPS에서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그 중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은 세부 항목별로 조사되었다. 각 영역별 가구소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소득은 가구원 중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을 의미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도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지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소득은 가구원 중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을 수급한 액수의 총액을 의미한다. 이전소득은 가구원 중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특별히 9차년도 조사에서부터는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보다 세분화하여, 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 도움,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그 외 친척·친지 보조금으로 나누어 물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은 보험금 지급이나 퇴직금, 복권 탄 돈과 같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소득의 총액을 의미한다. 기타소득 또한 9차년도 조사에서는 그 항목이 대폭 늘어났으므로, 연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sup>17)</sup>.

한편 KLIPS에서 가구의 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11차년도의 경우 2007년 한 해) 얻은 소득으로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며 연간 총액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다만, 1차년도의 경우 조사일 이전 1년간 소득으로 1997년 4월부터 1998년 11월에 걸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17) 11차년도에 조사된 기타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금-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받은 보험금(손해보험을 받은 금액 포함), (2) 보험금-저축성 보험의 만기지급금 및 중도해약으로 받은 금액, (3) 보험금-종신보험, (4) 퇴직금, (5) 증여·상속, (6) 축의금·조의금, (7) 복권이나 경마, 오락 경기 등의 당첨 상금/상으로 받은 상금, (8) 교통사고나 폭설·폭우 등 재해로 인해 받은 보상금, (9) 기타.

## 1. 가구의 총소득

가구의 총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 등 모든 항목별 가구소득을 합한 액수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와의 비교가능성을 생각하여 기타소득 중에서 보험금과 기타소득 항목은 제외하였다. 또한 당해 연도에 분가한 가구의 소득은 온전한 지난해 1년간의 소득이 아니라 분가한 이후의 소득이기 때문에 낮게 추정된 소득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의 소득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sup>18)</sup>

〈표 4-1〉을 통해 연도별로 가구의 연간 평균 총소득<sup>19)</sup>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를 거듭할수록 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차년도의 명목 연간 총소득은 3,755만 원(월평균 313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6만 원 정도 늘어났으며, 이를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환산<sup>20)</sup>하면 10차년도에 비해 61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연간 가구의 총소득

(단위: 만 원)

	2차년도 (1998년)	3차년도 (1999년)	4차년도 (2000년)	5차년도 (2001년)	6차년도 (2002년)	7차년도 (2003년)	8차년도 (2004년)	9차년도 (2005년)	10차년도 (2006년)	11차년도 (2007년)
명목 소득	1,894 (0.016)	2,019 (0.021)	2,173 (0.015)	2,663 (0.018)	2,818 (0.018)	2,966 (0.017)	3,111 (0.016)	3,372 (0.017)	3,599 (0.018)	3,755 (0.017)
실질 소득	2,301	2,433	2,560	3,015	3,105	3,157	3,196	3,372	3,522	3,583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임.

실질소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차년도(1998년 소득)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18) 성제민,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득자료 특성」, 『노동리뷰』 2006년 2월호(통권 14호) 참조.

19) 소득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소득액을 0으로 처리하였다.

20) 실질소득=(명목소득/당해 연도 소비자물가지수)×100으로 산출하였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조사」의 물가지수(2005년=100 기준)를 사용하였다.

##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그림 4-1]과 <표 4-2>를 통해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에 대해 알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86.0%였으며, 그 금액도 가장 큰 것(3,652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부동산소득과 기타소득이 각각 연평균 1,817만 원, 1,956만 원으로 비교적 가계소득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평균 소득액이 가장 낮은 소득원천은 이전소득으로 375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소득액 기준이 아닌 소득 유무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48.6%의 가구가 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해 매우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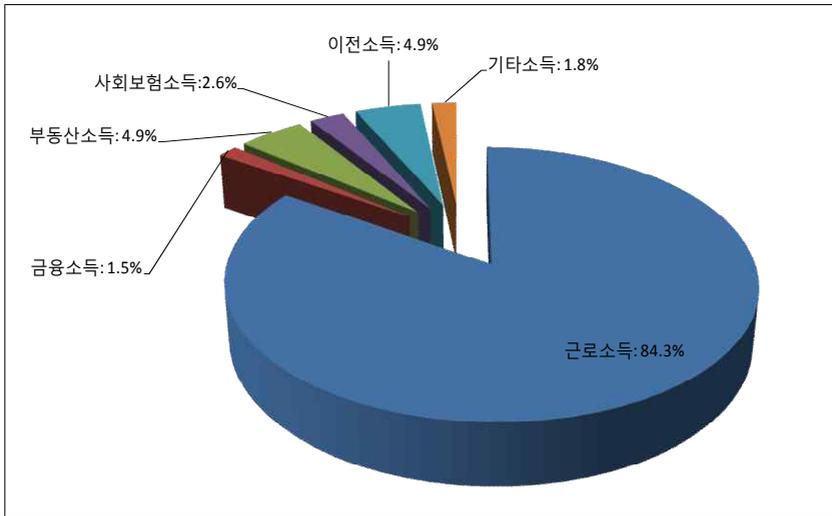
<표 4-2>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

(단위: 만 원, %)

	연평균 소득	해당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
근로소득	3,652	86.0
금융소득	513	10.7
부동산소득	1,817	10.0
사회보험소득	640	15.1
이전소득	375	48.6
기타소득	1,956	3.5

한편 가구의 전체 소득액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을 살펴보면, 역시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비중(84.3%)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금융소득은 가구 총소득 중 1.5%에 지나지 않았으며, 연평균 금융소득액 또한 513만 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4-1) 가구 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



## 제 2 절 가구지출

이 절에서는 11차년도 조사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지출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KLIPS에서 가구지출은 작년 한 해(11차년도의 경우 2007년) 동안 소비한 생활비와 저축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생활비는 월평균 교육비, 주거비, 식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각종 공과금 등 생활하는 데 드는 돈을 의미하며, 저축이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은 제외된다. 동시에 혼수장만, 교통사고 보상금 등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도 생활비에서 제외된다. 4차년도 조사부터는 1~3차년도 조사와는 달리 월평균 생활비 외에 세부항목별 생활비를 묻고 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외식비,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문화비(TV·케이블TV·위성TV 시청료 또는 취미, 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용돈, 피복비, 현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기타 생활용품비 등이다. 이 중 용돈 항목은 5차년도 조사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고, 6차년도 조사에서는 피복비 항목, 그리고 7차년도 조사에는 현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항목이 추가되었다. 9차년도 조사부터는 용돈 항목을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자녀 용돈, 그 외 가구원의 용돈으로 세분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11차년도 조사부터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로 각각 분리하여 조사하고 있다.

저축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일반저축, 개인연금, 적금, 보험, 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저축 역시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4차년도 조사부터 세부항목별 저축액을 묻고 있는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예·적금, 개인연금,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저축성보험(재테크보험, 교육보험 등), 계, 기타로 구성되었다. 이후 9차년도 조사부터는 종신보험 항목을, 10차년도 조사부터는 적립식 펀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다.

## 1. 생활비

<표 4-3>은 2~11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1차년도 조사에서 월평균 생활비는 전년도에 비해 4만 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의 증가폭은 4차년도까지 점차 커지다가 5차년도부터는 완만해진 이후, 10차년도 들어 다시 대폭 상승하였다.

생활비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50만 원 미만의 소비계층은 2차년도 16.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1차년도 조사에서는 6.7%까지 감소한 반면, 월 25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계층은 2차년도에는 2.9%에 불과했으나 5차년도부터는 크게 증가하여 11차년도에는 29.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sup>21)</sup>을 살펴보면(표 4-4 참조), 월평균 식비는

21) 한국노동패널 2, 4~11차년도 조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평균 생활비 항목 외에도 각각의 생활비 항목별 액수를 함께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전체 생활비’는 항목별 생활비의 합계를 기준(100%)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것이다.

〈표 4-3〉 2~11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

(단위: 가구, %, 만 원)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11차년도
전 체	4,474	4,248	4,212	4,290	4,567	4,746	4,804	4,954	5,032	5,114
50만 원 미만	16.7	15.6	13.8	11.6	10.7	9.4	8.6	8.7	8.2	6.7
50만~100만 원 미만	34.9	31.1	28.7	21.3	20.3	18.3	17.6	16.5	15.8	15.0
100만~150만 원 미만	28.4	25.9	28.1	26.3	23.9	21.6	21.3	20.1	18.3	16.8
150만~200만 원 미만	11.3	14.5	15.5	19.0	18.7	19.7	18.7	17.8	16.9	17.1
200만~250만 원 미만	5.8	7.8	8.0	11.5	12.8	13.7	14.7	14.8	14.5	15.5
250만~300만 원 미만	1.1	2.4	2.5	4.8	5.6	6.9	7.1	7.9	9.5	9.8
350만 원 이상	1.8	2.8	3.5	5.5	7.9	10.4	12.0	14.2	16.8	19.2
월평균 생활비 (변동계수)	101 (0.010)	108 (0.011)	118 (0.011)	137 (0.011)	151 (0.011)	163 (0.011)	169 (0.011)	177 (0.011)	190 (0.011)	194 (0.011)

31만 원으로, 식비의 비중이 전체 생활비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16.0%)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교육비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월평균 공교육비는 14만 원, 사교육비는 17만 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9차년도부터 새롭게 추가된 생필품 구입비는 월평균 4만 원으로 전체 생활비의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차년도부터 세분화하여 질문하고 있는 용돈의 경우에는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이 1만 원, 자녀 용돈이 10만 원, 그 외 가구원의 용돈이 19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의 액수가 낮은 이유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은 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1차년도부터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있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은 각각 7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저 축

11차년도 조사가구 중에서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60.8%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47.9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5 참조).

〈표 4-4〉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

(단위: 만 원, %)

	항목별 월평균 생활비	생활비에서의 비중
식 비	31	16.0
외식비	7	3.7
공교육비	14	6.9
사교육비	17	8.7
차량유지비	18	9.0
주거비	18	9.3
경조사비	7	3.4
보건의료비	6	2.8
교양오락비	4	2.1
내구재	2	0.9
통신비	11	5.8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1	0.3
자녀 용돈	10	4.9
그외 가구원의 용돈	19	9.8
피복비	5	2.8
현금 및 기부금	3	1.7
국민연금	7	3.7
의료보험	7	3.5
대중교통비	5	2.3
생필품 구입비	4	2.3
기 타	0	0.2
전체 생활비	194	100.0

2~11차년도 기간 동안 저축을 한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각각 52.1%와 51.3%로 다소 낮은 비중을 보였으나, 4차년도에는 69.8%까지 증가하였으며, 5차년도에는 73.1%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6차년도에 저축을 하는 가구의 비중은 65.6%, 7차년도에는 64.9%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비중은 8차년도 이후 다시 소폭 상승하다가 11차년도에 다시 60.8%로 감소하였다. 월평균 저축액의 변화는 2차년도 24만 6,000원에서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11차년도에는 47만 9,000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4-5〉 2~11차년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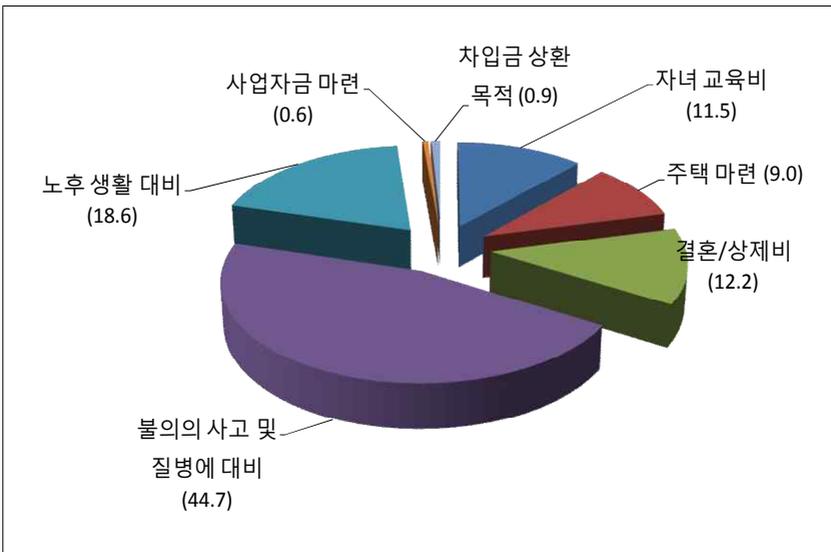
(단위: 가구, %, 만 원)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11차 년도
전 체	4,508	4,266	4,248	4,298	4,592	4,762	4,849	5,001	5,069	5,116
저축 안함	47.9	48.7	31.1	26.9	34.4	35.1	31.5	31.2	30.3	39.2
저축함	52.1	51.3	68.9	73.1	65.6	64.9	68.5	68.8	69.7	60.8
월평균 저축액	24.6	28.6	34.1	41.7	40.7	42.9	44.8	46.1	52.6	47.9

다음으로 11차년도에 저축을 한 가구의 저축 목적을 살펴보면 [그림 4-2]와 같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로 전체 응답가구 중 44.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2) 11차년도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

(단위: %)



다음으로는 ‘노후생활 대비’와 ‘자녀 교육비’가 각각 18.6%와 11.5%로 이들 세 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4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는 가구의 비중은 9.0%로 나타났다.

### 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이 절에서는 따로 사는 가족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KLIPS는 4차년도 이후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에 관해 조사해 왔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존재 여부, 부모님과의 왕래 빈도, 경제적 교류 여부,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 정도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교류에 대해서만 파악이 가능할 뿐, 따로 사는 자녀들과의 교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9차년도 조사부터는 따로 살고 있는 자녀들과의 교류에 관한 설문을 추가하여, 가구의 사적 이전에 관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조사하였다. 또한 현금과 현물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하던 8차년도 이전 조사와는 달리 9차년도부터는 현금 교류액과 현물 교류액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가 있었는지는 <표 4-6>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가구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24.8%였으며,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던 경우는 24.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도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66.8%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대로 가구주의 부모님과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도움은 각각 72.3%, 67.5%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도움은 26.8%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교류는 자녀 세대에서 부

<표 4-6>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유무

(단위: 가구, %)

	가구주의 부모님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		따로 사는 자녀	
	받은 도움	드리는 도움	받은 도움	드리는 도움	받은 도움	주는 도움
전 체	2,495		2,290		1,660	
없었음	75.1	27.7	75.2	32.5	33.3	73.2
있었음	24.8	72.3	24.7	67.5	66.8	26.8

모 세대로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적 교류 액수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 즉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드린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연간 평균 408만 5,000원, 가구주의 배우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345만 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금액 또한 494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구주와 그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렸던 금액은 각각 182만 8,000원, 104만 8,000원에 그쳤으며,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금액 또한 349만 5,000원에 그쳐 큰 편차를 보였다. 이는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에게 이전되는 소득이 적은 액수를 정기적으로 보내는 형태인 데 반해, 부모 세대의 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은 결혼자금, 학자금과 같이 목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4-7>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액수

(단위: 만 원)

	가구주의 부모님		가구주의 배우자 부모님		따로 사는 자녀	
	받은 금액	드렸던 금액	받은 금액	드렸던 금액	받은 금액	주었던 금액
지난해 연간총금액	408.5	182.8	345.0	104.8	349.5	494.1
현 금	362.8	166.8	159.2	93.9	323.8	454.4
현 물	45.7	16.0	185.8	10.9	25.8	39.8

한편 대체적으로 현물보다는 현금을 통한 교류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부모님과과의 경제적 교류액이 가구주의 배우자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액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제 3 절 주거형태 및 비용

이 절에서는 11차년도 패널가구의 주거형태와 비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는 매년 주거와 관련하여 입주형태 및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및 전·월세금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으며, 11차년도 조사부터는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오게 된 동기를 묻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입주형태는 자가·전세·월세·기타로 구분되며,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타로 구분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면적이 200평(660m<sup>2</sup>)을 초과하는 4층 이상의 주택을 의미한다. 또 다세대주택이란 동당 건축면적이 200평(660m<sup>2</sup>) 이하의 4층 이하 주택을, 상가주택은 1·2층은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고층의 병용주택(빌딩)을 뜻한다.

자기 집인 경우, 단독주택은 대지면적과 연건평, 주거지의 시가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인 경우 주택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해당 가구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기재 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주거면적의 평수를 기재하게 하였고, 전세금(임대보증금)과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의 경우 월세금을 기재하게 한 것은 주택의 소유형태가 전세일지라도 전세금 외에 월마다 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만약 전세금 이외에 더 내는 돈이 월 10만 원 이상이라면 입주형태가 월세가 아닌지 재차 확인하게 하였다. 월세의 경우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평수와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 1. 입주형태 및 주거 비용

먼저 <표 4-8>을 통해 11차년도 입주형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59.1%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전세 22.8%, 월세 12.6%로 나타났다. 2~11차년도 입주형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자가 소유

〈표 4-8〉 2~11차년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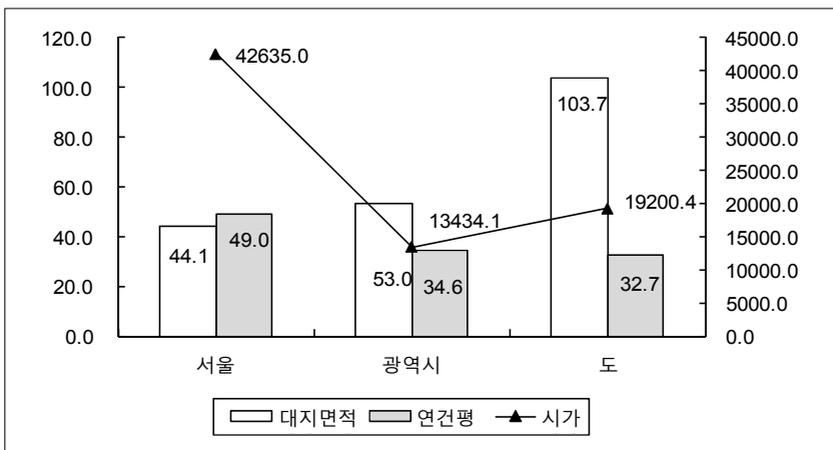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11차년도
전 체	4,508	4,258	4,247	4,286	4,592	4,762	4,849	5,001	5,069	5,116
자 가	56.6	56.8	59.2	60.1	61.1	60.7	60.7	59.7	59.1	59.1
전 세	30.1	30.4	28.6	27.7	23.8	23.1	23.3	22.8	21.7	22.8
월 세	9.1	8.4	7.6	7.3	9.2	10.6	11.3	11.7	13.1	12.6
기 타	4.2	4.3	4.6	5.0	5.9	5.7	4.7	5.7	6.1	5.5

자의 비중이 2차년도 56.6%에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전·월세의 비중은 2차년도 39.2%에서 3.8%포인트 정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4-3]을 통해 거주지별 자가의 평균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지면적의 경우, 도 지역이 서울과 광역시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건평이나 시가는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정원이나 마당, 차고 같은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실제 주거 공간은 가능한 한 넓게 확보하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4-3) 11차년도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

(단위: 평,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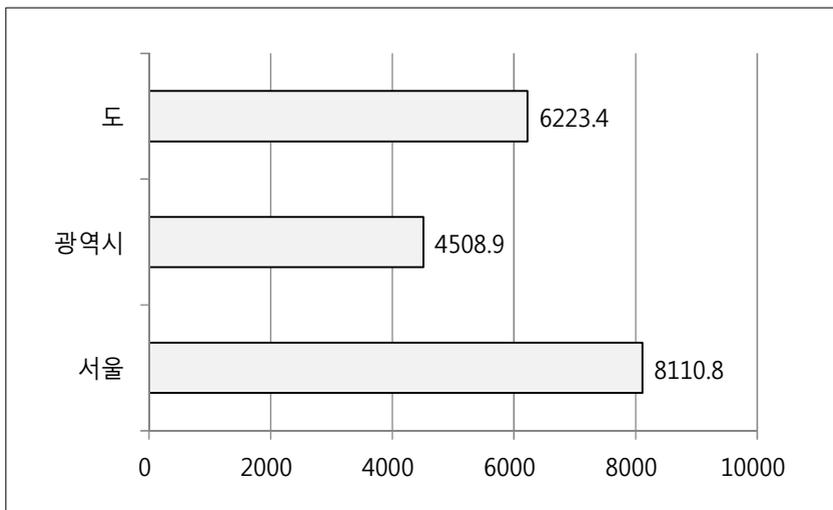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도 지역의 대지면적은 평균 103.7평인 데 비해서 광역시는 53.0평, 서울은 44.1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계한 면적인 연건평은 서울이 가장 넓은 49.0평인 데 비해서 도 지역과 광역시는 각각 32.7평, 34.6평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의 시가를 비교해 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4억 2,635만 원인 데 비해 광역시는 서울의 31.5%에 해당하는 1억 3,434만 원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도 지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1억 9,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림 4-4], [그림 4-5]는 거주지가 전세 혹은 월세인 경우 전·월세금을 비교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전세거주 응답자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8,111만 원으로 광역시(4,509만 원)의 약 1.8배 정도 되며, 도 지역(6,223만 원)의 1.3배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월세거주자의 거주지별 보증금/월세를 살펴보면, 월세는 서울이 26.5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타 지역과 큰 편차를 보이지 않은 반면, 임대보증금 금액에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서울의 월세계약 임대보증금은 평균 1,485만 원이었으며, 이는 광역시의 1.7배 도의 1.5배나 될 정도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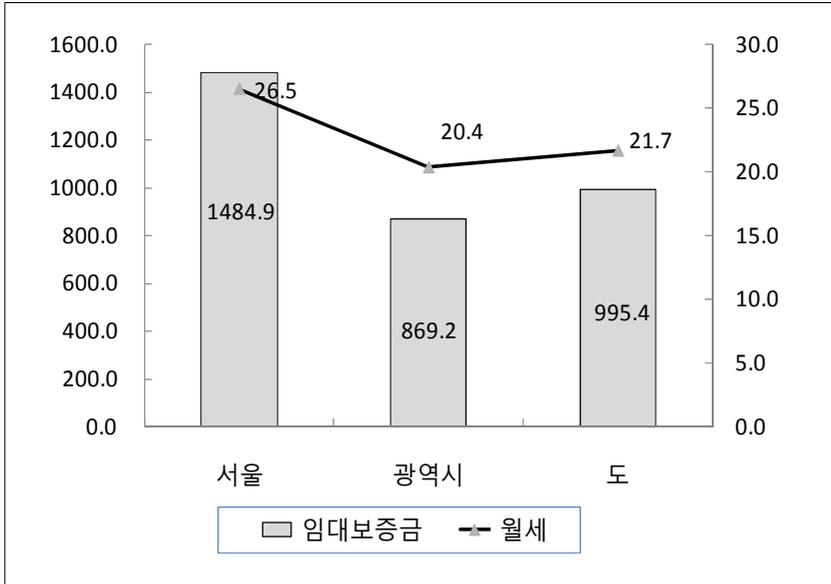
(그림 4-4) 11차년도 거주지별 전세거주자 임대보증금

(단위: 만 원)



(그림 4-5) 11차년도 거주지별 월세거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세

(단위: 만 원)



## 2. 주택의 종류

<표 4-9>는 2~11차년도 주택 종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11차년도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47.1%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다음으로는 단독주택이 26.7%, 다세대주택이 12.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8차년도부터 기타에서 분리하여 질문하고 있는 상가주택은 3.4%를 차지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주택 종류별 추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파트 거주자가 2차년도 33.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1차년도에 이르러 47.1% 포인트 증가한 반면, 나머지 주택의 거주자는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단독주택 비중의 감소(1970년 95% → 2005년 44.5%), 아파트의 비중 증가(1970년 0.7% → 2005년 41.7%)라는 추세가 KLIPS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4-9〉 2~11차년도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11차년도
전 체	4,508	4,258	4,247	4,286	4,592	4,762	4,849	5,001	5,069	5,116
단독주택	38.4	37.7	38.0	36.5	36.6	34.1	32.0	29.1	28.4	26.7
아파트	33.5	34.4	35.7	7.3	39.6	41.4	43.6	44.3	45.6	47.1
연립주택	7.8	8.0	7.8	7.7	7.5	8.3	8.7	8.4	8.7	9.0
다세대주택	15.3	15.1	12.0	12.3	10.2	10.1	11.2	13.5	12.5	12.9
상가주택	-	-	-	-	-	-	3.4	3.5	3.3	3.4
기 타	5.0	4.9	6.6	6.1	6.2	6.1	1.1	1.2	1.6	0.9

주: 상가주택은 8차년도 조사부터 세분화하여 질문한 항목으로, 이전 연도 조사에서는 기타로 분류되어 왔음.

〈표 4-10〉 11차년도 가구 현재거주지로의 이사 동기

이사 동기	비중(%)
내집 마련	31.7
집값이나 전세금이 저렴해서	17.2
현재 다니는 직장/학교의 통근 편의를 위해	9.2
평수를 넓히거나 줄이려고	7.7
환경 및 건강 때문에	5.0
신혼집 마련	4.8
보육 혹은 부모봉양 때문에 가족/친지와 가까이 살기 위해	4.6
취업/창업	4.5
어려서부터 살아왔다	4.2
동일직장 내 근무지 이동	4.0
인근의 편의시설 때문에(마트, 공원, 복지시설 등)	2.2
자녀 교육 때문에	2.2
집값이 오를 것이라 여겨져서	1.4
계약만료/철거, 재개발	0.6
기 타	0.9
전 체	100

### 3. 주거지의 선택

11차년도 조사부터는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하게 된 동기를 묻고 있다. 이 문항은 지역내 혹은 지역간 이동이 발생할 경우 그 주된 동기를 관찰하기 위한 것으로 18가지의 응답 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를 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살아왔다’로 응답을 받는다. <표 4-10>은 11차년도 응답가구들이 현재 거주지로 이사온 동기를 응답빈도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가장 주된 이사 동기 세 가지를 살펴보면, ‘내 집 마련’이 31.7%로 가장 빈도가 높은 동기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집값이나 전세금이 저렴해서’와 ‘현재 다니는 직장/학교의 통근 편의를 위해’가 각각 17.2%, 9.2%로 나타났다.

## 제 4 절 자산 및 부채

이 절에서는 11차년도 응답가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 자산은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소득이나 지출 문항과는 달리 해당 연도의 현재를 기준(11차년도의 경우 2008년 현재)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부동산자산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KLIPS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는지 여부(부동산 임대여부)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지 여부(부동산 임차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포함된다. 패널조사에서 부채는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쓴 돈이 있는지 여부와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갯돈 등을 포함한다.

## 1. 부동산자산

먼저 부동산자산을 살펴보면, 11차년도 패널 응답가구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3.5%로 전년도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1 참조).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자산에 대한 시가 총액 분포를 살펴보면 11차년도의 경우 1억~3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2.2%로 전년도에 이어 가장 높았다. 부동산 시가가 10억 원 이상인 가구는 2차년도의 1.5%에서 3차년도에 0.2%포인트 정도 감소했으나, 11차년도에는 7.2%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부동산 시가가 3억~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3차년도와 4차년도에 각각 7.6%, 7.2%에 그치던 것이 5차년도부터 증가하여 11차년도에는 23.8%에 이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11차년도 조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에 대한 조사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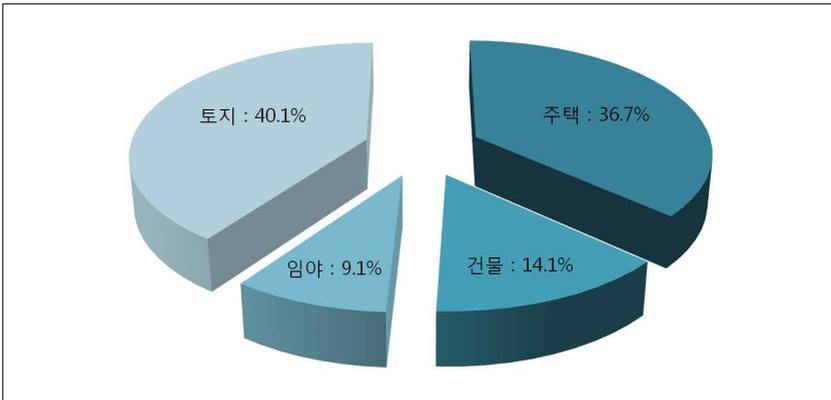
〈표 4-11〉 부동산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단위: 가구, %)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11차 년도
전 체	4,508	4,266	4,248	4,298	4,592	4,762	4,849	5,001	5,069	5,116
부동산 소유여부										
없 음	78.7	80.0	77.7	77.7	78.8	78.7	77.2	76.6	76.3	76.5
있 음	21.3	20.0	22.3	22.3	21.2	21.3	22.8	23.4	23.7	23.5
1천만 원 미만	8.7	6.3	8.3	5.8	6.8	6.1	4.1	3.0	4.0	2.9
1~5천만 원 미만	28.9	30.2	27.7	24.1	28.5	21.6	21.8	18.8	15.2	16.5
5천만~1억 원 미만	24.2	24.0	26.5	26.5	19.1	19.2	18.0	18.1	20.2	17.4
1~3억 원 미만	28.4	30.7	26.5	31.0	28.8	30.2	32.5	34.3	31.1	32.2
3~5억 원 미만		5.3	4.4	5.9	7.1	9.4	10.1	11.3	11.4	12.6
5~10억 원 미만	3.6	2.3	2.8	4.0	5.9	7.1	7.6	8.7	9.9	11.2
10억 원 이상	1.5	1.3	1.8	1.8	2.8	3.2	4.5	4.8	7.7	7.2
잘 모르겠음	4.6	-	2.0	0.9	1.0	3.2	1.3	1.1	0.5	0.1

항은 가구당 최대 5개 종류까지 복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4-6]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토지로 전체 응답 중 40.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주택이 36.7%, 건물이 14.1%, 임야가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11차년도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



주: 이 항목은 복수응답이므로 각 %는 전체 응답개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 2. 금융자산

<표 4-12>를 통해서 11차년도에 조사된 가구 중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2차년도 71.2%에서 11차년도 59.5%로 지난 10년 동안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2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7차년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8차년도 이후 다시 증가하여 11차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2,079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11차년도 조사에서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의 금융자산 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1,000만~5,0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0만 원 미만인 가구가 6.9%, 250만~5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4.8%, 500만~1,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표 4-12〉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단위: 가구, %)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11차 년도
전 체	4,494	4,243	4,201	4,276	4,575	4,739	4,794	4,975	5,023	5,116
없 음	28.8	35.1	34.1	33.7	36.7	39.0	34.5	37.6	34.2	40.5
250만 원 미만	15.7	12.7	14.7	12.4	11.8	12.0	10.8	10.0	11.1	6.9
250만~500만 원	8.6	7.4	6.1	5.6	5.3	5.7	5.6	6.2	5.9	4.8
500만~1,000만 원	12.7	12.4	12.3	11.4	10.8	9.7	11.2	10.1	11.4	10.3
1,000만~5,000만 원	27.8	25.2	25.4	27.7	27.2	24.7	28.0	26.2	26.6	27.4
5,000만~1억 원	4.4	4.6	4.4	6.1	4.7	5.3	5.8	5.5	6.1	5.8
1억 원 이상	2.0	2.7	3.1	3.0	3.6	3.6	4.2	4.4	4.8	4.3
평 균(만 원)	1,344	1,396	1,582	1,598	1,674	1,670	1,906	1,912	2,084	2,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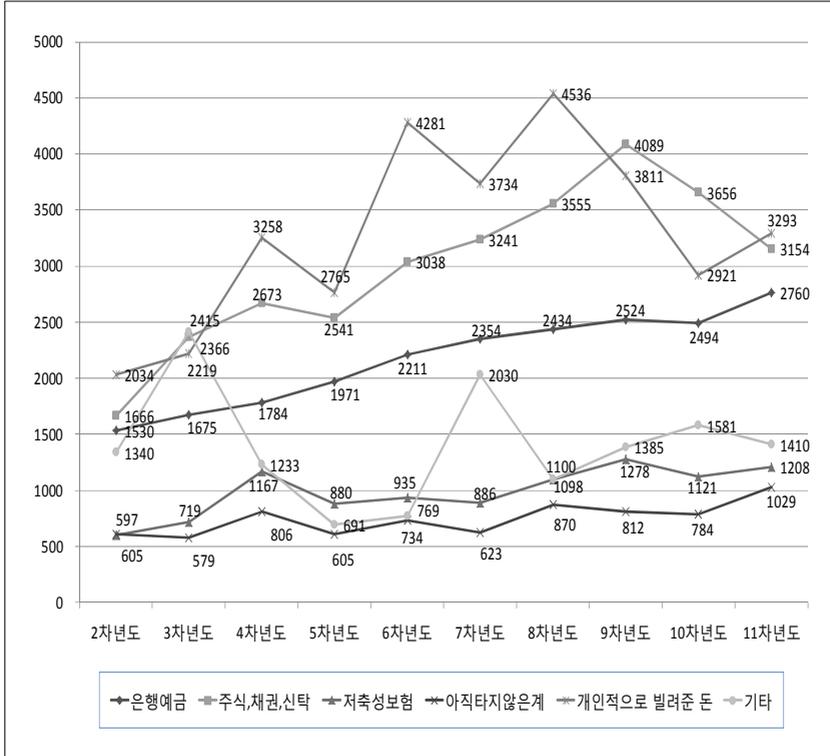
주: 금융자산 시가총액의 평균은 금융자산이 0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임.

도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금융소득이 1,000만~5,0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기준으로 이보다 금융소득이 적은 가구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금융소득이 이보다 많다고 응답한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7차년도에 금융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늘고, 5,000만~1억 원 미만의 금융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6차년도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소폭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그림 4-7]을 통해서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속되어 온 완만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의 절대적 비중 및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7~9차년도 동안 크게 증가했던 주식/채권/신탁과 같은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의 비중은 10차년도에 이어 감소세가 유지됨을 보였다. 주식/채권/신탁과 같은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은 여전히 은행예금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격차는 연도별로 증가하다가 10차년도부터 감소하였다. 2차년도에는 주식/채권/신탁이 1,666만 원으로 은행예금(1,530만 원)보다 136만 원 정도 높지만, 3차년도와 4차년도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 각각 691만 원과 88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후 5차년도에는 조금 감소하여 570만 원으로 좁혀졌으나 6차년도에는 그 격

(그림 4-7) 2~11차년도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 추이

(단위: 만 원)



주: 해당 자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 후 계산함.

차가 다시 827만 원이 되었고, 7차년도에는 887만 원으로, 9차년도에는 1,565만 원으로 확대되었다가 10차년도에는 다시 1,162만 원으로 좁혀졌으며, 11차년도에 이르러서는 394만 원으로까지 좁혀졌다.

한편 저축성보험금과 계의 경우에는 그 액수도 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변동폭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가구의 부채

11차년도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48.5%를 차지하여 2차년도 조사(50.5%) 당시보다 약 2%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3 참조). 반면 평균 부채 잔액은 2차년도 1,843만 8,000원이던 것이 3차년도에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며 11차년도에는 3,603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3〉 부채 잔액 분포

(단위: 가구, %)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11차 년도
전 체	4,491	4,259	4,225	4,281	4,581	4,742	4,829	4,988	5,046	5,105
부채 없음	49.5	53.3	50.6	50.0	49.6	49.2	48.5	47.4	47.6	51.5
500만 원 미만	7.1	5.5	5.5	5.2	4.5	3.8	4.1	4.3	3.9	2.8
500만~1,000만 원 미만	7.1	6.1	6.5	6.2	5.7	5.0	4.4	4.4	4.5	4.1
1,000만~5,000만 원 미만	26.3	24.2	26.7	26.5	25.4	25.1	25.2	24.1	22.6	21.4
5,000만~1억 원 미만	6.3	7.0	6.7	7.0	8.4	9.5	9.0	10.2	10.9	9.5
1억 원 이상	3.8	4.0	4.1	5.2	6.4	7.5	8.7	9.7	10.5	10.7
평균(만 원)	1,843.8	1,745.6	1,817.1	2,123.8	2,583.2	2,702.5	2,989.7	3,211.3	3,682.8	3,603.0

주: 가구의 부채잔액 평균은 0을 포함한 평균값임.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2차년도에는 49.5%였다가 3차년도에 53.3%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11차년도에는 51.5%로 나타났다.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 잔액은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2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2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1차년도에는 10.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 5 절 자녀 교육비

KLIPS는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KLIPS 조사가 처음 실시된 1차년도(1998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이용 여부, 이용하는 종류와 이용횟수, 이용시간, 그리고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월평균 수업료 등의 항목을 최대 5가지까지 조사하였으며, 자녀의 사교육과 탁아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정도를 ‘매우 부담된다’에서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 2차년도(1999년)에는 조사가 되지 않았고, 3차년도(2000년) 이후부터는 조사 대상이 재수생 이하 자녀로, 그리고 7차년도(2004년) 조사부터는 대학(원)생 자녀로까지 확대 조사하였다.

한편 7차년도 조사에서 신설된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 항목은 학교 또는 회사 등을 통해 제공받는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가구가 부담한 정규학교 등록금과 그 외 지출비용(학원비, 교재비, 생활비, 기타 교육관련 잡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11차년도 조사부터는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등록금 외 지출비용 중 취업준비 등을 위한 사교육비를 따로 묻고 있다.

우선 각 가구의 자녀 유무와 자녀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4-14>와 같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8.2%였으며, 2명인 경우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15.8%의 가구만이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학생 자녀는 1명인 경우가 8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4-14> 11차년도 가구내 자녀 유무 및 자녀수

(단위: %)

고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있음	38.2	대학생 이상 자녀 유무	있음	15.8
	없음	61.9		없음	84.2
고등학생 이하 자녀수	1명	42.3	대학생 이상 자녀수	1명	81.5
	2명	50.0		2명	18.1
	3명 이상	7.7		3명 이상	0.4

다음으로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생 이하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2만 2,0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5〉 11차년도 자녀의 사교육비 및 부담 정도

(단위: %, 만 원)

		고등학생 이하 자녀 (월평균)	대학생 이상 자녀 (연평균)
(사)교육비 부담 정도	매우 부담된다	30.4	55.6
	약간 부담된다	40.9	28.1
	보통이다	21.6	11.5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6.3	3.8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8	1.0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만 원)		52.2	1,154.9 (644.0)
자녀당 평균 (사)교육비(만 원)		33.3	971.0 (541.3)

주: ( ) 안의 값은 연간 정규 대학등록금임.

고등학생 이하 자녀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3,0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71.3%에 달해, 사교육을 이용하는 가정의 대부분이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연평균 1,154만 9,000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당 연평균 971만 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 이상 자녀의 총 교육비 중 정규 대학등록금만 살펴보면 가구당 연평균 644만 원, 자녀당 연평균 541만 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비 부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경우보다도 많은 83.7%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에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구는 정규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제 5 장

##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1차년도(1998년)부터 매년 잠재적 생산가능인구인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에 대해서 경제활동참가 여부, 고용형태, 구직활동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조사 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08년도 제11차 KLIPS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1차년도부터 11차년도까지 11개년간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개인 응답자들을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인구학적 분포를, 제3절에서는 미취업자들의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제1절 경제활동상태

<표 5-1>은 1~11차년도간 조사된 개인 원표본 사례수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원표본 개인에 대해서만 0을 초과하는 값이 부여되므로, 아래의 표는 종단면 가중치를 0보다 크게 부여받은 개인 표본수이다. 조사 초기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개인 원표본 사례수도 급격히 줄었으나 그 이후로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횡단면 가중치

〈표 5-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수 : 1~11차년도

(단위: 명)

		전 체	개인 자료	신규 자료
1차년도		13,321	13,321	-
2차년도		11,709	11,236	473
3차년도		10,798	10,495	303
4차년도		10,499	10,268	231
5차년도		10,295	10,072	223
6차년도		10,657	10,381	276
7차년도		10,692	10,450	242
8차년도		10,521	10,313	208
9차년도		10,591	10,378	213
10차년도		10,591	10,373	218
11차년도	종단 사례수	10,410	10,184	226
	횡단 사례수	11,716	11,329	387

주: 1~10차년도 종단 분석 사례수는 종단면 가중치 0을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수. 11차년도 종단 분석도 동일하게 계산. 11차년도 횡단 분석 사례수는 횡단면 가중치 0을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수.

는 조사원칙에 따라 조사된 모든 개인 표본에 부여되므로 개인 원표본보다 많은데, 11차년도의 경우 1,306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LIPS의 경제활동상태 구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 구분과는 다소 다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는 15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 기간<sup>22)</sup>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 수입이 있는 노동을 제공했으면 취업자로, 그 기간에 그런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며, 이들을 묶어 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반면 KLIPS는 조사일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취업자로 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취업자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된 미취업자 중 지난 1주(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한다. 이로 인해 조사일 이전 주에는 구직활동을 했지만 조사일이 있는 주에는 일자리를 구해 조사 당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은 통계청 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만 KLIPS에서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만 고려하면 되는 횡단면 조사와

22) 조사일 바로 전 주가 조사 대상 기간이다.

달리, 종단적으로 바뀌는 모든 일자리 변동 상황을 기록해야 하는 KLIPS의 특성상 미취업자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취업자를 정의할 때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오류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때문에 이와 같은 분류법을 적용하고 있다.

<표 5-2>는 조사 연도별로 경제활동상태를 요약하고 있다. 먼저 취업자는 조사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한 사람(취업자)”, 혹은 “가족 또는 친지를 위해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사람(무급가족종사자)”이 포함된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48.3%로 나타난 취업자 비중은 5차년도에 53.9%까지 증가하였다가 하락하여 11차년도의 경우 53.6%로 조사되었다. 실업자<sup>23)</sup>의 비중은 8차년도

<표 5-2> 경제활동상태 비교 : 1~11차년도

(단위: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차년도	48.3 (48.3)	7.6 (9.4)	44.1 (42.3)
2차년도	51.8 (51.8)	3.8 (4.5)	44.5 (43.7)
3차년도	51.4 (51.4)	2.4 (2.9)	46.3 (45.7)
4차년도	52.4 (52.4)	2.1 (2.6)	45.5 (45.0)
5차년도	53.9 (53.9)	2.0 (2.3)	44.1 (43.8)
6차년도	53.6 (53.6)	2.5 (2.8)	43.9 (43.6)
7차년도	53.4 (53.4)	2.8 (3.2)	43.8 (43.4)
8차년도	53.0 (53.0)	2.8 (3.4)	44.2 (43.7)
9차년도	53.2 (53.2)	2.7 (3.2)	44.0 (43.6)
10차년도	53.0 (53.0)	2.4 (2.9)	44.7 (44.2)
11차년도	53.6 (53.6)	1.9 (2.2)	44.5 (44.2)

주: 1) ILO 기준 실업자 정의. ( ) 안은 OECD 기준 실업자 정의.

2) 합쳤을 때 100.0이 안 되거나 넘는 경우는 모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들임. 비중은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100.0이 되도록 계산되어 있으므로, 실업자는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실업자 비중이지 실업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 각 연도 종단면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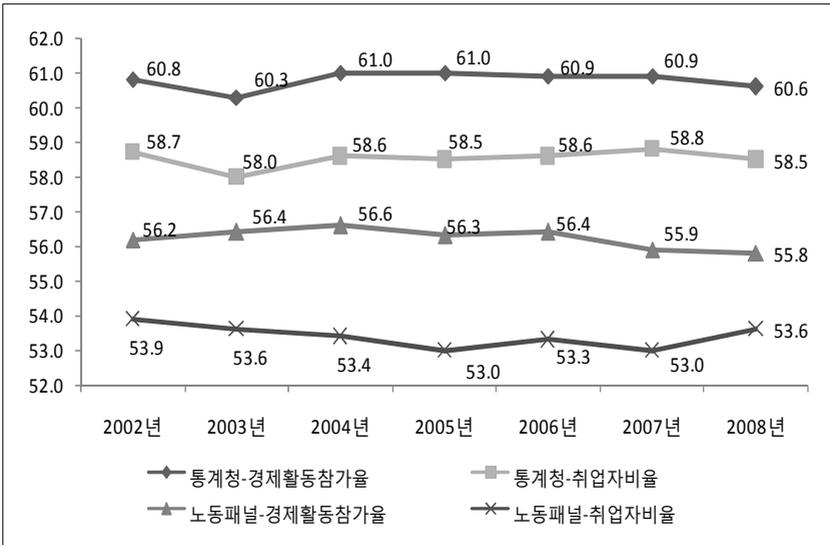
23) 현재 공식 통계에서 사용되는 실업자의 정의는 크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한 기준과 OECD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ILO 기준은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주 취업 가능했던 자”로 규정한 데 반해, OECD 기준은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주 취업 가능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OECD 기준으로 실업률을 공표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두 지표 모두 이용 가능하다.

이후 하락해 11차년도 현재 1.9%를 기록하였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11차년도 현재 44.5%를 기록했다.

[그림 5-1]과 [그림 5-2]는 지난 7년간의 경제활동참가율(취업인구비율)과 실업률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조사)와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경활조사와 비교해 볼 때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인구 비율은 약 3~4%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반대로 실업률은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1) 최근 7년간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인구비율 비교 : 2002~08년

(단위 : %)



주 :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농가부문임.

2)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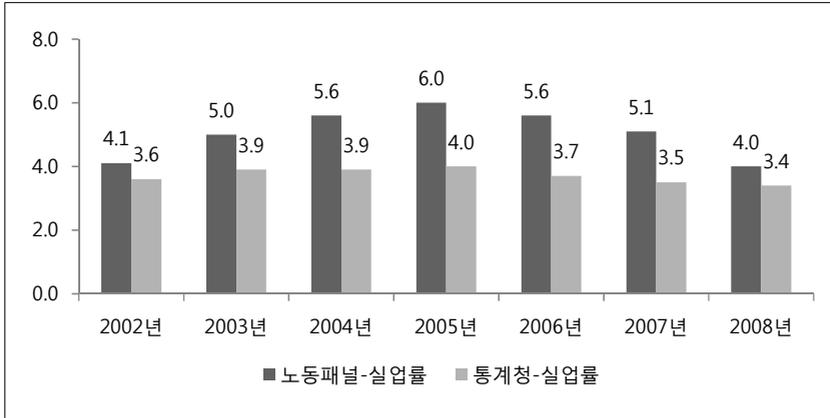
취업인구비율=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실업자를 OECD 정의에 근거해 산출했을 경우 계산되는 경제활동인구 비율.

3)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시하였음.

(그림 5-2) 최근 7년간 실업률 비교 : 2002~08년

(단위 : %)



- 주: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총조사」, 비농가부문업.  
 2) 실업률=실업자(OECD 정의)/경제활동인구×100.  
 3)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시하였음.

## 제 2 절 취업자의 특성

<표 5-3>과 <표 5-4>는 산업별로 KLIPS와 경찰조사의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KLIPS에서도 경찰조사와 마찬가지로 1차, 2차 산업 비중은 감소하고, 3차 산업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5>는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별 종사자의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의 증가 대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의 감소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전문관리직은 1998년 당시 20.8%를 차지하였으나, 이 비중이 회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8년에는 30.0%로 나타났다. 사무직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폭으로 증가했는데, 1999년 10.7%에서 2008년에는 14.4%까지 증가하였다. 반대로 서비스판매직은 1998년 25.5%에서 감소추세를 보여 2008년에는 19.7%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감소세는 농림어업직(1998년 9.4% →

〈표 5-3〉 KLIPS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8년

(단위 :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998	9.3	21.4	69.4
1999	8.7	22.5	68.9
2000	8.3	22.7	69.0
2001	7.4	21.4	71.2
2002	6.6	21.3	72.2
2003	6.3	20.9	72.8
2004	5.7	20.0	74.3
2005	5.5	20.5	74.0
2006	5.0	21.0	74.0
2007	5.0	20.4	74.6
2008	4.7	19.8	75.5

주 : 1) 2002년에 개정된 제7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2) 1차 산업 : 농업 및 임업, 어업을 포함.

2차 산업 : 광업 및 제조업.

3차 산업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그리고 가사서비스업을 포함.

3)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기.

4) 합쳐서 100.0을 넘거나 안 되는 것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임.

〈표 5-4〉 경활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8년

(단위 :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998	12.0	19.7	68.2
1999	11.3	19.9	68.7
2000	10.6	20.4	69.0
2001	10.0	19.9	70.2
2002	9.3	19.2	71.5
2003	8.8	19.1	72.1
2004	8.1	19.1	72.8
2005	7.9	18.6	73.5
2006	7.7	18.1	74.2
2007	7.4	17.7	75.0
2008	7.2	17.4	75.4

주 : 제7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표 5-5〉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8년

(단위 :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998	20.8	14.0	25.5	9.4	30.3
1999	20.8	10.7	24.4	8.5	35.6
2000	21.5	11.0	23.3	8.1	36.1
2001	21.9	12.1	23.8	7.3	34.9
2002	23.2	12.3	23.3	6.4	34.7
2003	24.9	12.8	22.1	6.3	34.0
2004	26.0	13.7	21.1	5.7	33.5
2005	27.6	14.0	20.4	5.4	32.7
2006	28.0	15.0	19.3	4.9	32.8
2007	29.2	14.3	19.4	4.9	32.2
2008	30.0	14.4	19.7	4.6	31.4

- 주 : 1) 전문관리직에는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을 포함. 서비스판매직에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를, 농림어업직에는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등을 포함. 생산직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근로자 등을 포함.  
 2) 통계청의 직업분류의 변경을 반영하여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모든 수치를 2002년에 개정된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로 조정함.  
 3) 합쳐서 100.0을 넘거나 안 되는 것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임.

2008년 4.6%)과 생산직(1999년 35.6% → 2008년 31.4%)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를 <표 5-6>에 제시된 경황조사의 직업별 종사자 비중과 비교해 살펴보면 연도별 추이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상대적인 구성 면에서는 KLIPS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가 생산직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경황조사의 경우 전문관리직보다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11차년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취업자의 산업·직업 및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자. <표 5-7>은 취업자의 산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기타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남성의 경우 광공업

〈표 5-6〉 경활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8년

(단위 :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998	18.8	12.4	23.6	11.5	33.7
1999	19.1	11.3	23.7	10.7	35.1
2000	18.9	11.6	23.8	10.0	35.7
2001	20.9	12.1	25.6	9.2	32.2
2002	21.3	12.4	25.5	8.6	32.2
2003	20.1	14.3	25.2	8.3	32.2
2004	20.5	14.1	25.0	7.5	32.8
2005	20.9	14.3	24.7	7.5	32.7
2006	21.6	14.2	24.1	7.2	32.8
2007	22.2	14.1	23.8	6.9	33.0
2008	22.4	14.9	23.5	6.7	32.6

주 : 직업분류의 변경에 따라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2001년부터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준함. 단, 연도별 비교를 위해 제4차 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 중에서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제시함.

(21.9%)에, 여성의 경우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9.7%)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농림어업에는 60세 이상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는 50대 이하의 모든 연령층에서 20% 이상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광공업은 청년층, 30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농림어업 및 건설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에, 금융 및 부동산업, 기타서비스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고졸 및 고졸 미만은 광공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업에 고루 분포하는 반면, 고졸 초과 학력에서는 기타서비스업에 몰려 있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대졸 이상은 기타서비스업에 절반 이상이 분포하고 있었다.

〈표 5-8〉은 취업자의 직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를 보면, 서비스판매직에서는 여성(29.9%)이 남성(14.6%)

〈표 5-7〉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 11차년도

(단위 : %)

		농림 어업	광공 업	건설 업	도소매/ 음식 숙박	금융 부동산	공공 행정	기타 서비스	전체
성 별	남 성	4.8	21.9	12.3	17.6	3.4	4.0	36.1	100.0
	여 성	5.8	16.7	1.6	29.7	4.5	2.3	39.4	100.0
연 령	15~29세	0.8	20.2	4.1	21.3	4.2	3.8	45.7	100.0
	30~39세	0.8	19.9	7.4	21.5	5.2	4.7	40.5	100.0
	40~49세	2.3	23.9	8.5	24.9	4.1	2.4	34.0	100.0
	50~59세	6.2	19.7	10.2	23.4	2.5	3.6	34.4	100.0
	60세 이상	28.9	7.8	9.9	17.1	1.5	1.8	33.0	100.0
교 육 수 준	고졸 미만	16.9	20.3	11.5	24.2	1.0	1.4	24.7	100.0
	고 졸	3.0	23.7	8.9	28.4	3.6	2.2	30.2	100.0
	대재·중퇴	1.1	12.0	7.9	26.6	3.4	6.5	42.7	100.0
	전문대졸	1.5	21.6	6.0	20.6	4.6	2.3	43.5	100.0
	대졸 이상	0.6	15.0	5.5	13.9	5.9	6.2	52.9	100.0

주: 기타서비스업은 3차 산업 중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보다 2배 가량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데 비해서, 생산직의 경우에는 오히려 남성(41.4%)이 여성(20.0%)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중이 높은 반면,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생산직 종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농림어업직(28.9%)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전문관리직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졸 미만의 경우 전문관리직의 종사자가 겨우 3.7%에 불과하지만, 대졸 이상의 경우 전문관리직 비중이 60.1%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직에는 고졸 미만이 53.3%나 되는 데 반해 대졸 이상은 9.4%에 불과했다.

〈표 5-8〉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 : 11차년도

(단위 : %)

		전문 관리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림 어업	생산직	전 체
성 별	남 성	28.4	10.8	14.6	4.8	41.4	100.0
	여 성	27.4	17.2	29.9	5.5	20.0	100.0
연 령	15~29세	38.1	24.1	18.6	0.6	18.7	100.0
	30~39세	39.3	18.9	17.5	0.8	23.4	100.0
	40~49세	24.8	12.8	23.2	2.3	37.0	100.0
	50~59세	20.3	5.3	24.1	6.1	44.4	100.0
	60세 이상	10.0	1.2	18.2	27.9	42.6	100.0
교 육 수 준	고졸 미만	3.7	2.4	24.3	16.4	53.3	100.0
	고 졸	14.6	12.0	26.7	2.9	43.9	100.0
	대재·중퇴	31.3	16.6	29.6	1.0	21.5	100.0
	전문대 졸	35.3	23.1	17.2	1.2	23.1	100.0
	대졸 이상	60.1	18.6	11.1	0.8	9.4	100.0

### 제 3 절 미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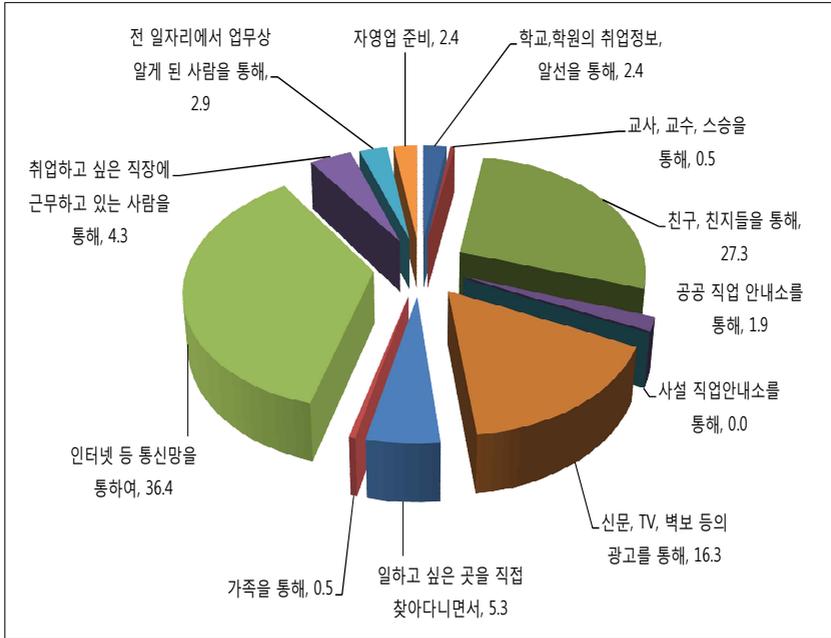
#### 1. 구직활동

구직방법은 구직자들이 직업탐색 과정에서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는지와 연관된다. 11차년도 KLIPS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게 구직시 사용한 구직방법을 최대 3개까지 기재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구직방법 중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중심으로 미취업자의 구직행위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그림 5-3]은 미취업자의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36.4%를 차지하였으며, 친구·친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은 27.3%를 차지했다. 신문 및

(그림 5-3)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 11차년도

(단위 : %)



TV, 벽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16.3%,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직활동을 했다가 5.3% 순이었다. 공공직업안내소를 이용하는 비중은 1.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좀 더 분석적으로 미취업자들이 구직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구분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여기는 공식적 구직방법, 비공식적 구직방법, 직접 접촉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sup>24)</sup>. 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학교·학원·스승의 소개, 공·사실 직업안내소, 신문, TV와 같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이용 등이 해당된다. 비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 방법으로는 ‘가족, 친구, 친지의 소개’,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24) 이 외에도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사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제도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직접 지원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KLIPS 5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의 제6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사람을 통해’, ‘전 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직접 접촉’이라 함은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원하는 경우이다.

<표 5-9>는 이러한 구분법에 따라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로 구직방법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공식적 방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9> 특성별 구직방법 : 11차년도

(단위: %)

		공식적 방법	비공식적 방법	직접 접촉	전 체
성 별	남 성	52.1	43.7	4.3	100.0
	여 성	72.4	24.8	2.9	100.0
연 령	15~29세	83.9	14.4	1.7	100.0
	30~39세	60.8	34.0	5.2	100.0
	40~49세	53.7	42.1	4.2	100.0
	50~59세	10.7	81.1	8.2	100.0
	60세 이상	21.5	78.5	0.0	100.0
교육수준	고졸 미만	26.1	64.4	9.5	100.0
	고 졸	55.5	39.2	5.3	100.0
	대재·중퇴	73.2	26.8	0.0	100.0
	전문대졸	74.3	25.7	0.0	100.0
	대졸 이상	76.5	22.1	1.4	100.0

연령별 구직방법의 비중을 살펴보면, 젊은층일수록 공식적 방법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50대 이상은 비공식적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비공식적 방법이라는 축적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식적 방법에 대한 의존이 줄고 비공식적 방법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공식적 방법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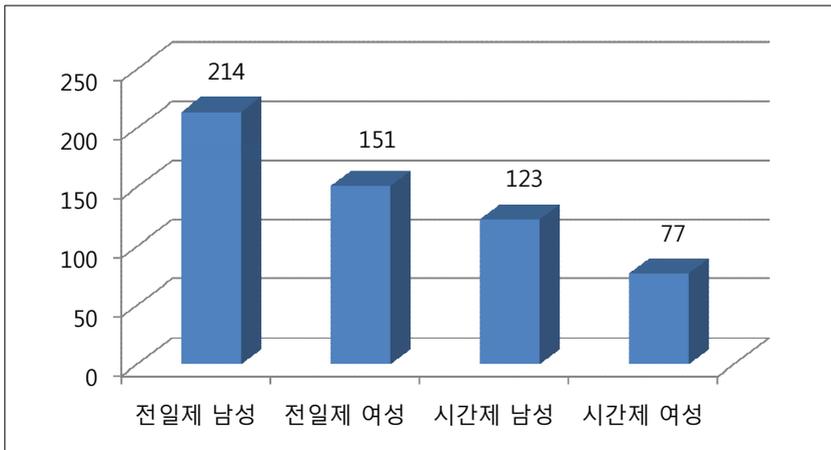
##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미취업자가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형태, 희망임금,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다. 여기서는 희망임금, 구직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5-4]에서 희망하는 임금수준에 대해 성별, 근로시간 형태별로 살펴보면, 전일제를 선호하는 남성은 214만 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희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일제를 선호하는 여성이 151만 원을 희망하였다. 시간제를 선호하는 남성은 123만 원을, 시간제를 선호하는 여성은 77만 원을 희망하였다.

(그림 5-4) 성별·근로시간 형태별 평균 희망임금

(단위: 만 원)



<표 5-10>에서는 미취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자주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표에는 이와 관련된 9가지 항목의 내용과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 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평균 점수는 ‘(1) 매우 그렇다’부터 ‘(5)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5점 척도로 산출되었으므로,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다

〈표 5-10〉 미취업자가 구직시 주로 겪는 어려움

(단위: 점)

	남 성	여 성	전 체
1.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1.8	2.0	1.9
2. 취업 또는 창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2.6	2.3	2.5
3.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는다	3.1	3.0	3.1
4. 경험이 부족하다	2.9	2.8	2.9
5.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2.3	2.2	2.3
6. 근무환경이나 근로시간이 맞지 않다	2.8	2.6	2.7
7. 나이가 너무 많다	2.8	2.9	2.9
8.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9	2.4	2.1
9.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	3.3	3.3

주: 최소 1점부터 최대 5점까지의 평균 점수임. 설문지상의 응답 항목은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됨. 따라서 점수가 작을수록 문항에 동의한다는 뜻임.

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일거리가 없거나 부족하다’라는 항목에 대해 평균 1.9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일자리의 수입’(2.3점)이나 ‘취업 또는 창업 정보의 부족’(2.5점) 및 ‘근로시간과 근로환경의 불일치’(2.7점)를 각각 지적하였다. 여성의 경우 성차별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보다는 일자리 자체의 부족, 일자리의 수입이나 근로조건, 혹은 취업 또는 창업 등의 정보 부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 6 장

##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장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본다. 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주요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취업시작 시기 및 종료 시기, 산업·직업, 기업의 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와 근로계약 유무 및 기간, 근로시간 형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및 임금,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수급현황, 노동조합 관련 사항 등이 조사되었다.

<표 6-1>은 1~11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KLIPS에서 파악되고 있는

<표 6-1> 임금근로자수와 비중

(단위: 명, %)

	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표본수	남성(%)	여성(%)	
1차년도	4,010	62.9	37.1	62.4
2차년도	3,967	60.3	39.7	64.3
3차년도	3,742	61.5	38.5	65.3
4차년도	3,843	60.8	39.2	67.3
5차년도	3,975	60.3	39.7	68.1
6차년도	4,211	60.0	40.0	69.4
7차년도	4,257	60.7	39.3	69.6
8차년도	4,085	61.5	38.6	68.3
9차년도	4,300	62.0	38.0	70.3
10차년도	4,346	61.9	38.2	70.9
11차년도	4,340	62.1	37.9	71.4

주: '표본수'를 제외하고는 중단면 가중치 적용.

임금근로자의 수를 제시한다. 11차년도에는 전체 4,340명의 임금근로자가 조사되었다. 취업자 대비로 볼 때 1차년도 62.4%에서 꾸준히 늘어 7차년도에는 취업자의 69.6%가 임금근로자였으나, 8차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여 68.3%에 그쳤다. 그러나 다시 9차년도부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11차년도에는 71.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제 1 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절에서는 11차년도(2008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 전체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본다. 본절의 모든 분포는 임금근로자 표본 4,340명을 대상으로 횡단면 가중치(w11\_pc)를 부여해 계산한 것이다.

먼저 학력별 분포를 보면, 고졸자의 비중이 29.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대졸자로 24.3%였다. 여성의 경우는 고졸 미만과 전문대졸 이하에서 전체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2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40대가 27.5%를 기록했다. 여성의 경우는 20대에서 특히 높은 비중(28.5%)을 나타냈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 진출 시기가 빠름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30대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 등 일시적으로 노동공급이 중단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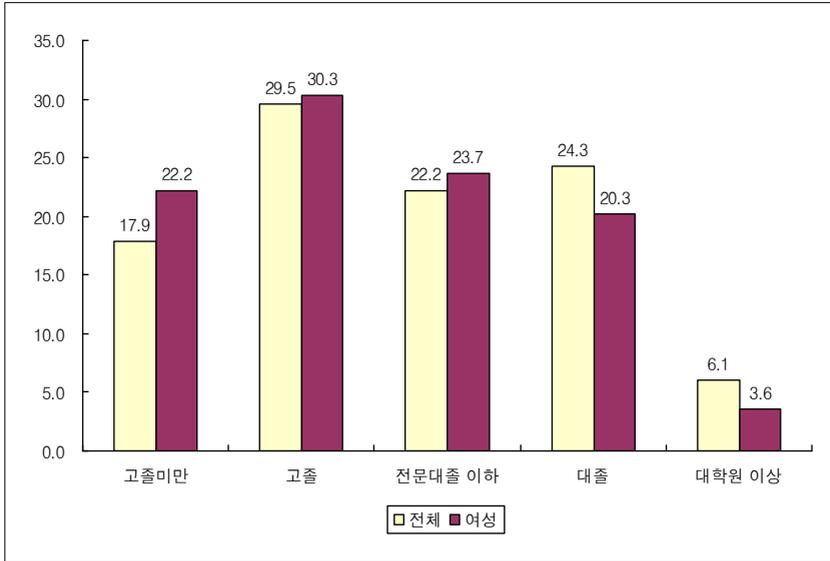
산업별 분포를 보면, 공공서비스업이 3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광공업(23.3%)이 다음을 차지했다. 반면 농림어업과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각각 0.7%로 매우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sup>25)</sup>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41.9%가 공공서비스업 종사자였으나,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산업은 광공업이 아니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3.8%)이었다.

직종에 따라서는 생산직이 36.1%로 가장 많았고, 전문관리직(31.2%)이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여성은 전체 분포와는 달리 전문관리직(30.7%)이

25) KLIPS 표본 추출시 도시 지역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농림어업의 비중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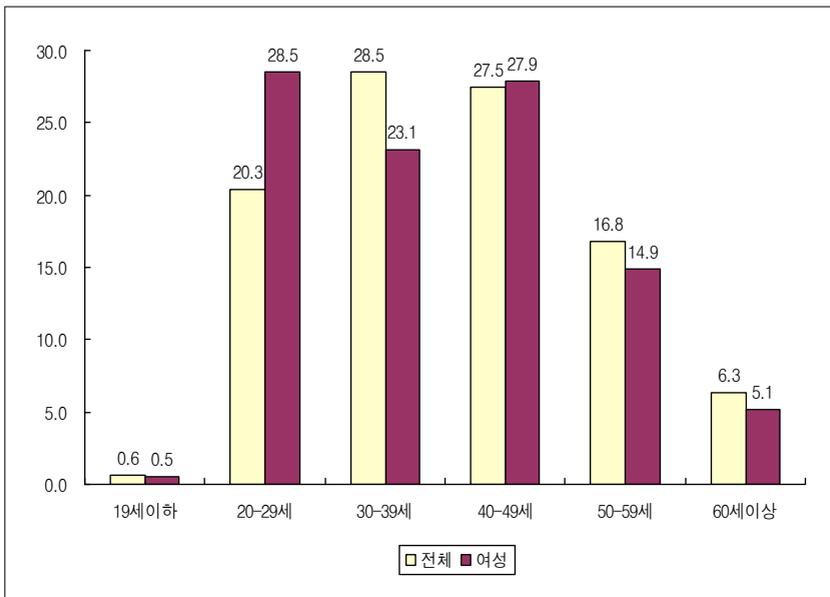
(그림 6-1) 임금근로자의 학력 분포 : 2008년

(단위 : %)



(그림 6-2) 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 : 2008년

(단위 : %)



〈표 6-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 : 2008년

(단위 : %)

		전 체	남 성	여 성
산 업	농림어업	0.7	0.6	0.9
	광공업	23.3	25.6	19.9
	건설업	9.5	14.5	2.0
	전기·가스 및 수도업	0.7	1.0	0.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7.0	12.5	23.8
	운수통신업	6.3	8.5	2.9
	금융 및 부동산업	5.3	5.3	5.3
	공공서비스업	35.9	32.0	41.9
	가사서비스업	1.3	0.1	3.0
직 종	전문관리직	31.2	31.5	30.7
	사무직	17.4	14.5	21.6
	서비스직	14.7	9.1	23.2
	농림어업직	0.6	0.6	0.7
	생산직	36.1	44.3	23.9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38.1	33.7	44.8
	10~29인	15.0	15.6	14.2
	30~99인	13.8	14.7	12.4
	100~299인	8.7	9.7	7.3
	300~499인	3.6	4.1	2.8
	500인 이상	20.8	22.4	18.5
기업 형태	민간회사	74.2	74.6	73.6
	외국인회사	1.1	1.0	1.4
	공기업	5.8	6.5	4.7
	법인단체	6.4	5.4	8.0
	정부기관	7.8	7.2	8.7
	비소속	4.2	4.7	3.4
	기 타	0.6	0.8	0.3
교대제 유무 및 형태	교대제 안함	89.7	87.3	93.4
	2조 2교대제	6.8	8.6	4.2
	3조 3교대제	2.0	2.2	1.7
	기타 교대제	1.5	2.0	0.7
종사상 지위	상용직	78.5	81.8	73.5
	임시직	11.6	7.9	17.3
	일용직	9.9	10.3	9.2

주: 결측치는 계산에서 제외.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생산직(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이 3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500인 이상(20.8%)이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전체 분포에 비해 10인 미만(44.8%)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기업형태별로는 대다수가 민간회사(74.2%)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정부기관(7.8%)이 그 다음이었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대제가 이루어지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10.3%였으며, 남성(12.7%)이 여성(6.6%)보다 많았다. 교대제를 할 경우 대부분이 맞교대제(2조2교대제)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78.5%였고, 임시·일용직은 21.5%였다. 통계청 2008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44.4%인 것으로 나타났다.<sup>26)</sup> 이와 같이 KLIPS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 수치가 차이 나는 이유는 조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퇴직금의 유무 등 부가급여를 받는지 등에 따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구분하는 다른 기준들이 존재하지만, KLIPS의 경우는 기간 이외의 다른 것을 분류기준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상용직과 일용직 비중이, 여성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은 직장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일용직의 대부분이 존재하는 건설업의 경우 산업특성상 남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을 반영한 수치로 보인다.

## 제 2 절 근로시간

제11차년도 KLIPS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현재의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와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주당 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함으로써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이 종료

26) 한국노동연구원(2009), 『2009 KLI 노동통계』.

되며,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당 근로시간 및 주당 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하게 된다. 또한 초과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 여부 및 지급방식, 월평균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 1. 평균 근로시간

우선 평균 근로시간의 연도별 추이부터 살펴보자. 여기서 평균 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근로자는 주당 정규근로시간과 주당 초과근로시간을 합쳐서 계산하였다.

<표 6-3>을 보면 1차년도(1998년) 임금근로자들은 52.3시간을 근무하

<표 6-3>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

조사시점	평균근로시간	전년대비 증가율
1차년도	52.3 (0.005)	-
2차년도	52.7 (0.005)	0.8
3차년도	52.2 (0.005)	-1.0
4차년도	50.9 (0.005)	-2.4
5차년도	50.8 (0.005)	-0.2
6차년도	50.6 (0.005)	-0.4
7차년도	49.8 (0.005)	-1.5
8차년도	49.2 (0.005)	-1.2
9차년도	48.4 (0.005)	-1.2
10차년도	48.4 (0.005)	0.0
11차년도	48.0 (0.005)	-0.8

주: 1) 종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2) 증가율은  $\{(\text{해당 연도}-\text{전년도})/\text{전년도}\} \times 100$ 으로 계산.

3) 근로시간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결측처리함.

4) ( ) 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V)임.

였으나, 11차년도인 2008년에는 48.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2차년도를 제외하면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비하여 약 8.5시간 가량 길었으나<sup>27)</sup>,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매월노동통계조사가 5인 이상 상용직의 근로시간만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4>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9.8시간)이 여성(45.5시간)에 비해 평균적으로 주당 4.3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 2008년

(단위: 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남 성	여 성
전 체		48.1	49.8	45.5
연령별	19세 미만	33.8	33.2	35.1
	20~29세	46.9	50.0	44.4
	30~39세	48.0	49.9	44.2
	40~49세	49.5	50.8	47.7
	50~59세	48.5	48.7	48.1
	60세 이상	46.4	50.4	38.2
학력별	고졸 미만	48.9	50.8	47.0
	고 졸	50.8	52.7	48.1
	전문대졸 이하	47.2	49.7	43.7
	대 졸	45.9	47.5	42.8
	대학원 이상	44.4	45.7	40.2

주: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연령별로는 40대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9.5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10대가 33.8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남성과 여성의 근로시간은 10대와 60대처럼 노동시장 참여가 그리 높지 않은 연령대를 제외하고 보면 30대에

27) 2008년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비농전산업 주당 총근로시간은 39.5시간(월 169.9시간)으로 나타났다.

서 가장 격차가 컸는데, 여성의 육아 부담 등이 그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60대 여성의 근로시간은 50대에서 가장 길었고, 남성의 경우에는 40대에서 가장 길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졸 미만과 고졸은 주당 근무시간이 각각 48.9시간과 50.8시간인 데 반해, 대졸자는 45.9시간,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44.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49.6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성별로 보아도 상용직인 남성이 51.1시간, 여성은 47.1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임시직인 경우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4시간으로 상용직보다 6시간 가량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 2008년

(단위: 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남 성	여 성
상용직	49.6	51.1	47.1
임시직	43.4	46.9	41.0
일용직	41.5	41.9	40.7

주: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한편 <표 6-6>은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종·종업원 규모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산업별로는 가사서비스업이나 농림어업에서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을 제외하면, 전기·가스 및 수도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2.9시간으로 짧은 편이며, 운수통신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0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서비스직이 51.1시간으로 가장 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기록했으며, 농림어업직이 42.1시간으로 비교적 짧은 근로시간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00~299인이 49.6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500인 이상이 47.0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08년

(단위: 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남 성	여 성
직종별	전문관리직	45.8	47.6	42.9
	사무직	46.0	47.5	44.4
	서비스직	51.1	54.2	49.3
	농림어업직	42.1	48.9	33.4
	생산직	50.0	51.3	46.3
산업별	농림어업	40.2	49.1	32.0
	광공업	50.1	51.1	48.2
	건설업	45.6	45.8	43.3
	전기·가스 및 수도업	42.9	42.6	44.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1.2	52.9	49.9
	운수통신업	52.0	53.7	44.3
	금융 및 부동산업	46.8	48.9	43.7
	공공서비스업	46.0	49.0	42.5
가사서비스업	41.5	8.0	43.5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47.4	48.7	45.8
	10~29인	49.3	52.0	44.7
	30~99인	49.3	51.2	46.1
	100~299인	49.6	51.8	45.3
	300~499인	48.6	49.5	46.7
	500인 이상	47.0	48.3	44.5

## 2. 초과근로시간

다음으로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의 유무, 초과급여 지급방식 및 월평균 초과급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표 6-7>과 같다.

이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일하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11차

〈표 6-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 : 2008년

		(단위: %)
초과근로를 안함		71.2
초과근로를 함		28.7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시간)		8.9
초과급여 지급 안함		41.5
초과급여 지급함		58.5
초과급여 지급 방식	시간에 따라 계산	83.6
	일정 금액	14.8
	기준 없음	1.6
시간당 평균 초과급여(천 원)		7.5

년도에 28.7%로 나타나, 비교적 초과근로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8.9시간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과근로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초과급여가 지급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58.5%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였다. 초과급여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간에 따라 계산’(83.6%)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초과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는 14.8%로 나타났다. 시간당 평균 초과급여는 약 8,000원으로 나타났다.

### 제 3 절 임 금

KLIPS에서는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임금 지급주기, 임금산정방식, 임금수준, 성과급 적용 여부와 해당 성과급제 그리고 임금내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임금과 관련된 여러 내용에 대하여 종사상 지위, 인구학적 특성, 사업체 특성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 1.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산정방식

<표 6-8>을 통해 임금 지급주기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94.0% 정도가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일 지급받는다’와 ‘수시로 지급받는다’의 응답은 각각 3.3%, 2.2%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 지급주기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93.4%)과 여성(95.0%)의 대부분이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8>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지급방법 : 2008년

(단위 : %)

		전 체	남 성	여 성
임금지급주기	한 달	94.0	93.4	95.0
	보름/주	0.5	0.3	0.7
	매 일	3.3	3.3	3.3
	수 시	2.2	3.0	1.1
	기 타	0.0	0.0	-
임금산정방식	연봉계약제	11.5	14.9	6.3
	월 급	77.1	74.1	81.8
	주급/격주	0.2	0.1	0.2
	일 당	7.8	8.5	6.7
	시간급제	1.7	0.8	2.9
	도급제	0.2	0.2	0.3
	실적급	1.4	1.2	1.8
	기 타	0.2	0.3	0.1

다음으로 임금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연봉계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1.5%로 나타났으며, 월급제의 비중은 77.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74.1%), 여성(81.8%) 모두 월급제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연봉제는 남성(14.9%)이 여성(6.3%)의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9>는 성과급제 실시 여부를 임금근로자 특성별로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비중은 성별로는 남성(22.2%)이 여성(1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별로는 금융 및 부동산업이 45.5%인 반면 건설업은 8.7%로 차이가 상당했으며, 직종별로도 전문

〈표 6-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 : 2008년

(단위 : %)

		성과급제 있음	성과급제 없음
성 별	남 성	22.2	77.9
	여 성	12.3	87.7
산 업	농림어업	14.3	85.7
	광공업	21.3	78.7
	건설업	8.7	91.3
	전기·가스 및 수도업	41.4	58.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9.2	90.8
	운수통신업	29.5	70.5
	금융 및 부동산업	45.5	54.5
	공공서비스업	17.6	82.4
직 종	전문관리직	27.4	72.7
	사무직	25.9	74.1
	서비스직	11.5	88.5
	농림어업직	7.9	92.1
	생산직	9.5	90.5
종사상 지위	상용직	22.3	77.7
	임시직	4.1	95.9
	일용직	3.0	97.0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9.9	90.2
	10~29인	8.2	91.8
	30~99인	15.5	84.5
	100~299인	22.6	77.4
	300~499인	25.3	74.7
	500인 이상	39.9	60.1

관리직은 27.4%가 적용받는 반면, 생산직은 9.5%에 불과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은 성과급제 적용비율이 매우 낮았다. 한편 종업원 규모에 따라서는 종업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 39.9%가 성과급을 실시하고 있으나, 10~29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8.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2. 월평균 임금

KLIPS에서는 임금 산정방식에 따른 항목별 임금수준 이외에도 “현재 이 일자리에서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월평균 임금(세후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6-10>에서도 제시되고 있듯이, 지난 11년간 KLIPS에서 조사되고

<표 6-10> 월평균 임금 비교

(단위: 만 원, %)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1차년도	111.1 (0.010)	135.0 (0.010)	130.9 (0.010)	159.0 (0.010)	77.4 (0.015)	94.1 (0.015)
2차년도	103.4 (0.010)	124.6 (0.010)	123.7 (0.011)	149.0 (0.011)	72.5 (0.015)	87.3 (0.015)
3차년도	110.0 (0.010)	129.5 (0.010)	130.8 (0.011)	154.1 (0.011)	76.7 (0.015)	90.3 (0.015)
4차년도	121.2 (0.011)	137.3 (0.011)	144.4 (0.013)	163.5 (0.013)	85.5 (0.015)	96.8 (0.015)
5차년도	132.1 (0.011)	145.4 (0.011)	156.7 (0.012)	172.6 (0.012)	94.5 (0.016)	104.1 (0.016)
6차년도	145.0 (0.011)	154.4 (0.011)	171.7 (0.012)	182.8 (0.012)	105.0 (0.018)	111.9 (0.018)
7차년도	158.8 (0.011)	163.2 (0.011)	188.1 (0.013)	193.3 (0.013)	113.2 (0.017)	116.4 (0.017)
8차년도	169.0 (0.011)	169.0 (0.011)	200.4 (0.013)	200.4 (0.013)	118.9 (0.017)	118.9 (0.017)
9차년도	180.1 (0.014)	176.3 (0.014)	213.0 (0.018)	208.4 (0.018)	126.5 (0.017)	123.8 (0.017)
10차년도	191.3 (0.015)	182.6 (0.015)	226.5 (0.019)	216.1 (0.019)	134.4 (0.019)	128.2 (0.019)
11차년도	198.3 (0.014)	180.8 (0.014)	234.6 (0.017)	213.8 (0.017)	138.8 (0.017)	126.5 (0.017)

주: 1) 실질임금 =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 2005년 = 100).

2) 중단면 가중치 적용.

3) 괄호 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V)임.

있는 월평균 실질임금은 1차년도 조사(135만 원)에 비해 2차년도 조사(124만 6,000원)에서 10만 원 정도 감소하였지만, 3차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해 10차년도에는 182만 6,000원에 달했으나, 11차년도에는 180만 8,000원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성별로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11차년도에 여성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138만 8,000원으로 남성의 59.2%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임금의 변동은 「매월노동통계조사」<sup>28)</sup>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차이가 있다.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하면 2008년 월평균 임금액은 281만 원인데, KLIPS는 198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임금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8년 「매월노동통계조사」는 1.5% 감소하였으며, KLIPS의 경우도 1.0% 감소하여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LIPS에서 추정되고 있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주요하게는 조사 대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KLIPS의 경우는 가구조사로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개인들의 임금을 조사하므로 1인 이상 사업장을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이에 반해 「매월노동통계조사」는 기업체 조사로 비농부문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sup>29)</sup>의 상용근로자가 조사 대상이며, 1인 이상 5인 미만의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는 제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는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중 상당수가 조사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고 있다.

<표 6-11>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연령별·교육수준별로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40대에 월평균 임금이 278만 7,000원으로 가장 높고, 여성은 30대에 167만 1,000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 19세 이하 집단에서 월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반면, 여성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임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은 교육수준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

28)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29) 「매월노동통계조사」는 1999년 이전에는 비농전산업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가 조사 대상이었으나, 1999년부터는 5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비교적 최근 자료인, 5인 이상 자료를 수록한 『2009 KLI 노동통계』(2009년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의 결과를 참조하였다.

<표 6-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 : 2008년

(단위 :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연 령	19세 이하	69.8	69.3	70.8
	20~29세	155.5	173.8	141.1
	30~39세	217.7	241.7	167.1
	40~49세	218.7	278.7	129.8
	50~59세	210.4	258.4	121.9
	60세 이상	114.7	138.3	66.0
학 력	고졸 미만	118.4	148.1	87.9
	고 졸	174.2	213.1	117.5
	전문대졸 이하	177.1	204.3	140.3
	대 졸	268.0	302.8	198.2
	대학원 이상	323.5	350.2	234.9

주: 1)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 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타나고 있다. 대졸자의 경우 고졸의 153.8%(268만 원)의 임금을 받는 반면, 고졸 미만은 고졸의 68%(118만 4,000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고용형태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12>에 제시되어 있듯이,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220만 8,000원으로 임시직은 상용직의 47%, 일용직은 52.3%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1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 : 2008년

(단위 : 만 원)

		월평균 임금	
		평균액	상대임금
종사상 지위	상용직	220.8	100.0
	임시직	102.7	46.5
	일용직	115.4	52.3

주: 1) 상대임금은 상용직 근로자를 100으로 하여 계산.

다음으로 <표 6-13>은 산업별·직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322만 5,000원)의

<표 6-13>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직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 : 2008년

(단위: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산 업	농림어업	100.0	15.75	48.6
	광공업	208.2	254.6	118.0
	건설업	186.6	190.6	143.2
	전기·가스 및 수도업	322.5	347.1	202.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50.1	200.5	110.0
	운수통신업	219.8	229.2	178.0
	금융부동산업	275.2	335.3	185.0
	공공서비스업	202.7	241.7	157.6
	가사서비스업	79.3	35.0	81.9
직 종	전문관리직	258.8	312.0	176.6
	사무직	211.6	255.7	166.8
	서비스직	145.1	212.9	105.4
	농림어업직	104.2	147.9	50.4
	생산직	158.5	182.3	91.7
종업원규모	10인 미만	159.6	190.9	124.0
	10~29인	173.2	204.7	120.7
	30~99인	196.6	222.9	149.4
	100~299인	217.6	249.9	152.2
	300~499인	251.1	289.5	168.3
	500인 이상	263.7	319.9	161.0
기업형태별	민간회사	183.0	223.6	120.6
	외국인회사	324.6	383.9	261.3
	공기업	273.1	318.1	179.6
	법인단체	243.2	305.8	178.6
	정부기관	260.7	296.1	216.7
	소속이 없음	118.6	137.1	80.0
	기 타	148.1	158.2	113.1

주: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 및 부동산업(275만 2,000원)과 운수통신업(219만 8,000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대표적인 서비스업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광공업 월평균 임금의 72%(150만 1,000원)로 가사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수준은 직종별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관리직의 월평균 임금은 258만 8,000원으로 사무직의 122.3%이며, 생산직과 서비스직은 사무직의 74.9%, 68.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태별로 보면, 외국인 회사가 가장 높은 324만 6천 원이었으며, 공기업이 그 다음이었다. 소속없음과 기타를 제외하면 민간회사는 가장 낮은 183만 원이었다.

종업원 규모별 임금수준은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가 263만 7,000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월평균 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 4 절 비정규직 근로자

KLIPS는 5차년도부터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정규직 관련 부가조사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하고 정교하게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먼저, 1~11차년도 조사까지 진행되어 왔던 기존의 조사 항목으로는 임금근로자용 유형 설문에서 조사되어 오던 종사상 지위(상용·임시·일용) 및 자기 판단에 기초한 정규-비정규 여부, 근로계약 기간의 유무 등이 있다. 이 외에 5차년도부터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는 유형 설문에서 조사되고 있는 호출근로(혹은 일용대기근로) 외에 취업자용 설문 중 근로의 지속가능성 여부, 향후 지속가능 기간, 근로지속 불가능 이유, 파견 및 용역근로 여부, 독립도급근로 여부, 가내근로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11차년도에서는 10차년도 부가조사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고용형태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하여 본설문에서 조사되었다. 이 절에서는 기존 본설문에서 조사되었던 조사 항목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고용 유형을 판별하고 각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비정규직의 규모

다음으로 <표 6-14>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고용형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일용근로(31.8%)이며, 다음으로 시간제근로(31.5%)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접고용에 해당되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는 각각 6.9%와 13.9%로 나타났다.

<표 6-1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과 비정규직 : 2008년

(단위 : %)

	정규직	일용 대기	파 견	용 역	독립 도급	가내 근로	시간제	단기 계약	전 체
전 체	82.5	5.6	1.2	2.4	0.8	0.4	5.5	1.5	100.0
		31.8	6.9	13.9	4.6	2.5	31.5	8.8	100.0
남 성	85.2	6.9	1.0	2.4	0.6	0.2	2.1	1.6	100.0
		47.0	6.6	16.1	4.1	1.2	14.3	10.6	100.0
여 성	78.4	3.5	1.6	2.5	1.1	0.8	10.7	1.5	100.0
		16.2	7.2	11.6	5.0	3.8	49.2	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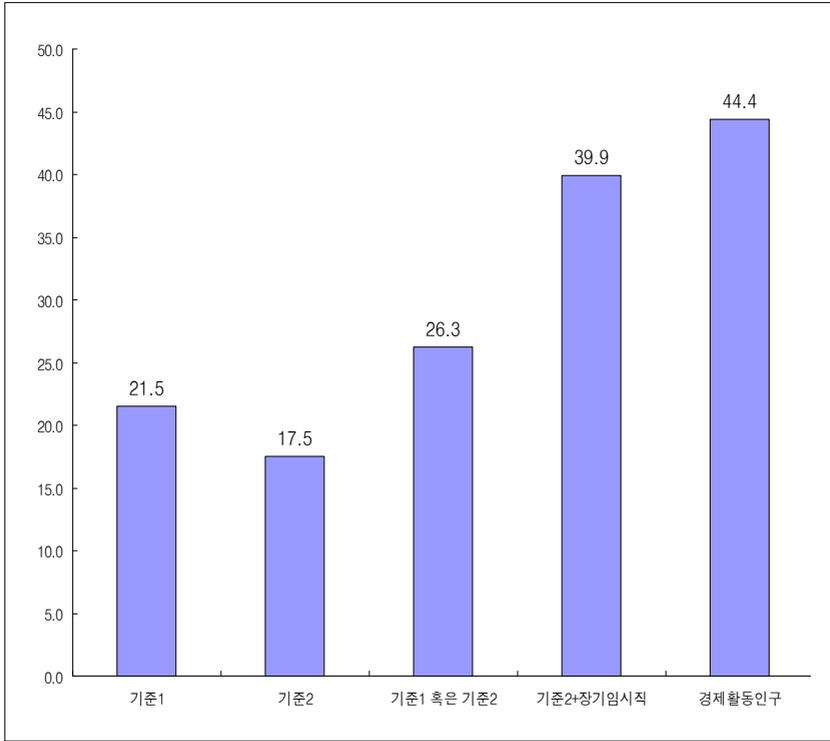
주: 1) 각 고용형태는 개별 기준에 의해 정의되어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표에서 제시된 항목의 순서에 따라 분류된 결과임.

2) 단기계약직이란, 근속이 1년 안된 사람들 중 향후 계속 근무 가능한 기간이 1년 이하인 노동자를 의미함.

이상과 같이 다양한 기준별로 살펴볼 때 KLIPS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할 때에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3]에서 볼 수 있듯이, KLIPS에서 임시·일용직 기준으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21.5%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44.4%와 비교할 때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나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에 속하거나 다양한 고용형태에 속하는 경우(기준 1 혹은 기

(그림 6-3) 다양한 정의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 : 2007년

(단위: %)



주: 기준1은 KLIPS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 비중, 기준2는 위의 고용형태별 정의를 이용. 기준2+ 장기임시직에서 장기임시직은 부가급여를 받는지,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지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 가능한데, 여기서는 퇴직금을 받는지 여부로 통제했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08년도 비농가부문 임시·일용직 비중임.

준 2) KLIPS에서 추정될 수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26.3%까지 증가한다. 또한 기준2에 장기임시직을 포함할 경우 비정규직의 규모는 39.9%로 크게 증가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슷한 비정규직 규모가 추산된다. 결국 두 조사간 조사 방법상의 차이점<sup>30)</sup>을 감안하면 양 조사에서의 비정규직 규모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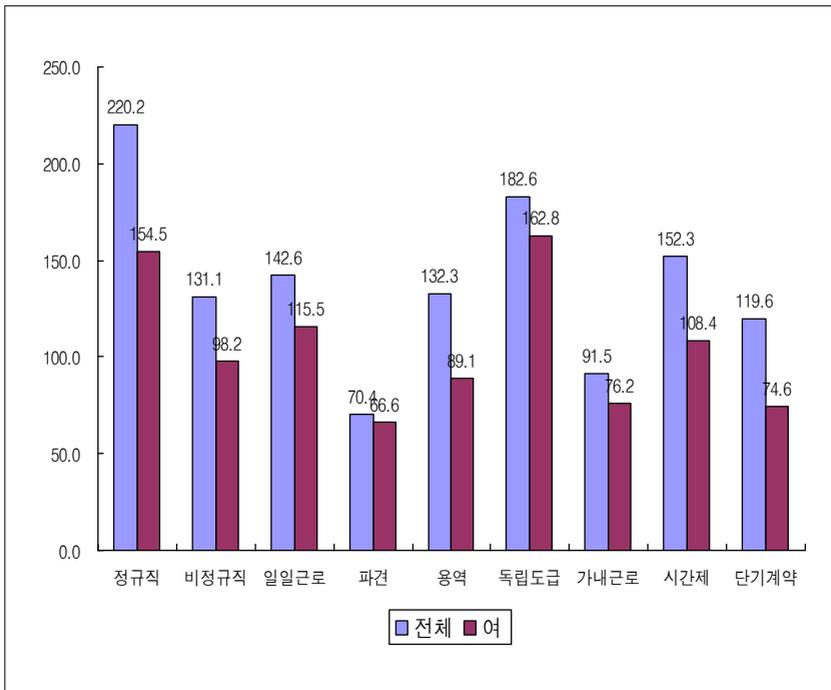
30) KLIPS에서는 각종 사회보험 및 퇴직금 가입 여부와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상여금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상여금이나 각종 부가급여 제공 등을 감안하여 조사 요원이 직접 종사상 지위를 판별하여 기입한다.

##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여기서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한 비정규직의 조작적 정의(기준 2)를 기준으로 이들의 임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6-4]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31만 1천 원으로 정규직(220만 2,000원) 근로자의 약 59.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그림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7,600원으로 정규직 근로자(1만 900원)의 69.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4)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 2008년

(단위 : 만 원)



주 : 임금수준은 명목임금임.

또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각각의 고용형태에 따라 매우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립도급근로일 때의 임금(182만 6,000원)은 정규직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시간제근로(152만 3,000원),

일일근로(142만 6,000원)는 비정규직의 평균임금보다는 높지만 정규직의 65~69%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단기계약(119만 6,000원), 용역(132만 3,000원), 가내근로(91만 5,000원) 등에서 더 심해졌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 7 장

##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비임금근로자에게도 매년 유형 설문과 취업자용 설문을 통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였다.

주요 설문 항목으로는 종사상 지위, 사업체의 규모, 월평균 소득과 연간 매출액, 근로시간 규칙성, 주당 근로시간과 주당 평균 근로일수, 사업체의 창업 및 운영과 관련한 특성들이 조사되고 있다. 특히 5차년도부터는 사업체의 창업자본금 및 화폐가치에 관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8차년도 조사부터는 적자를 보는 경우 적자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1~11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KLIPS에서 파악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표 7-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본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표 7-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단위: 명, %)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표본수	남성 비중	여성 비중	
1차년도	2,415	58.6	41.5	37.6
2차년도	2,247	59.7	40.3	35.7
3차년도	2,071	60.5	39.5	34.7
4차년도	1,984	59.8	40.2	32.7
5차년도	1,980	61.0	39.0	31.9
6차년도	2,000	61.4	38.6	30.7
7차년도	2,027	61.8	38.2	30.4
8차년도	2,125	60.8	39.2	31.7
9차년도	2,049	61.1	38.9	29.7
10차년도	2,045	61.6	38.4	29.1
11차년도	2,034	62.3	37.7	28.6

주: 표본수를 제외하고는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 제 1 절 종사상 지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된다. 이때 고용주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한 사람 이상 종업원이 있는 경우를 이르며, 자영업자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업원이 없는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을 받지 않고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로 각각 정의된다.

먼저 <표 7-2>를 통해 11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주가 27.8%, 자영업자 54.6%,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7.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1차년도에 22.1%였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11차년도에는 17.5%를 기록했다. 반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1차년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

〈표 7-2〉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

(단위: %)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차년도	21.1	56.8	22.1
2차년도	23.8	53.6	22.6
3차년도	23.7	52.8	23.5
4차년도	24.8	51.2	24.1
5차년도	26.4	50.3	23.3
6차년도	25.8	50.9	23.2
7차년도	27.5	50.8	21.8
8차년도	23.6	57.8	18.6
9차년도	24.3	57.4	18.3
10차년도	27.3	55.1	17.5
11차년도	27.8	54.6	17.5

나 8차년도에 크게 증가하여 57.8%에 달하였다가 9차년도 이후부터 약간 감소하여 11차년도에는 54.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무급가족종사자의 분포는 통계청의 2008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 19.0%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 7-3〉은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과 산업별 특성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성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63.2%), 고용주(32.8%), 무급가족종사자(4.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자영업자(40.7%)와 무급가족종사자(40.7%)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60대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30대에서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는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용주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sup>31)</sup>로는 건설업(38.9%), 공공서비스업(37.6%)에서

31) 2000년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표 7-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분포

(단위: %)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성 별	남 성	32.8	63.2	4.0
	여 성	18.6	40.7	40.7
연 령	20~29세	20.8	53.0	26.2
	30~39세	31.3	53.0	15.7
	40~49세	32.4	48.8	18.8
	50~59세	27.7	53.3	18.9
	60세 이상	14.9	66.1	19.1
학 력	고졸 미만	14.8	58.6	26.6
	고 졸	24.7	56.1	19.2
	전문대졸 이하	36.8	47.7	15.5
	대 졸	45.1	48.0	6.9
	대학원 이상	56.0	42.3	1.7
산 업	농림어업	8.7	57.0	34.2
	광공업	33.5	42.8	23.7
	건설업	38.9	51.9	9.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0.3	48.9	20.8
	운수통신업	13.5	83.8	2.7
	금융 및 부동산업	24.0	69.4	6.7
	공공서비스업	37.6	49.4	12.7
	가사서비스업	-	100.0	-

주: 결측치는 계산에서 제외.

고용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제 2 절 근로시간

본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 주당 평균 근로 일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 일

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여기서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 함은 일거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업(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라 함은 사업 또는 일 자체를 ‘하다, 안하다’ 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또한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로 다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와 관련하여서는 “이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일주일에 보통 몇 일이나 일하십니까?”라고 각각 조사하고 있다.

###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 및 주평균 근로일수의 분포는 <표 7-4>와 같다. 먼저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규칙적’인 경우가 73.4%, 불규칙적인 경우가 26.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이 계절의 영향을 받아 불규칙한 경우(18.1%)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8.6%)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시간의 규칙성에 대해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는 응답이 고용주가 88.5%인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는 67.5%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는 비중이 고용주(7.7%)보다는 자영업자(20.9%)와 무급가족종사자(25.1%)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의 76.5%와 건설업 종사자의 61.8%가 근로시간이 규칙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각각 64.6%와 4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1차년도에 조사된 비임금근로자의 주평균 근로일수는 5.8일이며,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의 근로일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로 살펴볼 때에는 가사서비스업(3.9일)에서 주평균 근로일수가 상대적으로 짧았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6.2일)과 농림어업(6일)이 길었다.

〈표 7-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주평균 근로일수 : 2008년

(단위: %, 일)

		규칙적	불규칙적		주평균 근로일수(일)
			계절영향 없음	계절영향 있음	
전 체		73.4	8.6	18.1	5.8
종사상 지위	고용주	88.5	3.9	7.7	5.8
	자영업자	67.5	11.7	20.9	5.7
	무급가족종사자	68.6	6.4	25.1	6.1
산 업	농림어업	23.5	11.9	64.6	6.0
	광공업	84.4	4.9	10.7	5.7
	건설업	38.2	17.6	44.2	5.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89.3	5.3	5.4	6.2
	운수통신업	70.4	6.1	23.4	5.0
	금융 및 부동산업	85.7	11.7	2.6	5.4
	공공서비스업	84.2	11.0	4.8	5.6
	가사서비스업	49.3	23.8	27.0	3.9

## 2. 주당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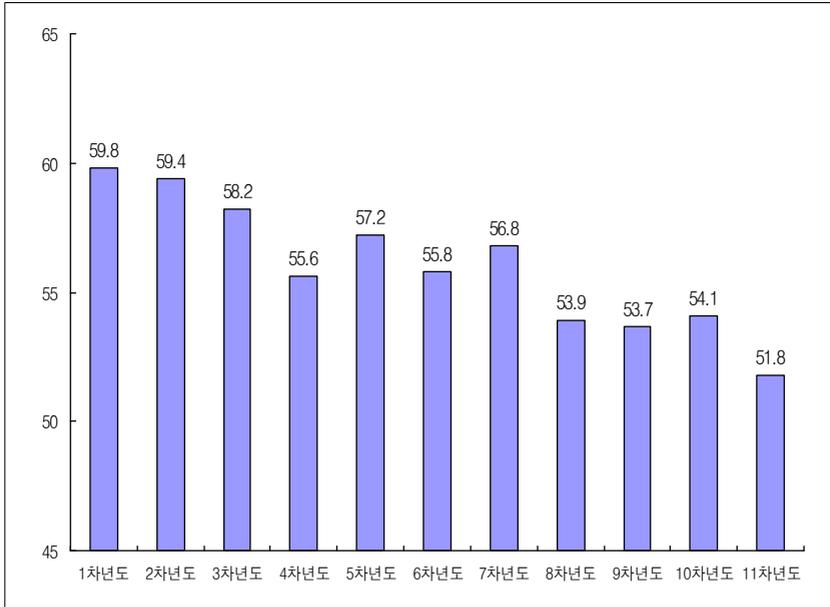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4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5차년도 조사 이후 증가와 감소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1]에서 볼 수 있듯이, 1차년도에는 59.8시간이었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차년도에는 55.6시간까지 감소하였다가 5차년도에는 57.2시간으로 1.6시간 가량 증가하였고, 7차년도에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11차년도에는 51.8시간으로 1차년도에 비하여 8시간 감소하였다.

〈표 7-5〉의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1차년도를 제외하면 고용주가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다. 11차년도의 경우 고용주는 주당 평균 54.5시간, 자영업자는 50.7시간, 무급가족종사자는 50.8시간을 근로하였다.<sup>32)</sup>

32)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68시간이라고 응답한 개인은 하루 24시간 근로를 의미하므로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7-1)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표 7-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차년도	59.8 (0.009)	58.8 (0.016)	59.8 (0.012)	60.8 (0.019)
2차년도	59.5 (0.009)	62.1 (0.016)	58.6 (0.013)	58.7 (0.019)
3차년도	58.2 (0.009)	60.2 (0.017)	57.8 (0.013)	57.2 (0.019)
4차년도	55.6 (0.010)	57.5 (0.018)	55.2 (0.015)	54.4 (0.021)
5차년도	57.2 (0.009)	58.3 (0.016)	56.6 (0.014)	57.2 (0.018)
6차년도	55.8 (0.010)	58.6 (0.018)	55.3 (0.014)	54.1 (0.021)
7차년도	56.8 (0.009)	58.5 (0.015)	56.6 (0.013)	54.9 (0.018)
8차년도	53.9 (0.009)	56.8 (0.016)	52.4 (0.014)	54.7 (0.020)
9차년도	53.7 (0.009)	55.4 (0.019)	53.0 (0.014)	53.8 (0.022)
10차년도	54.1 (0.009)	57.7 (0.016)	51.8 (0.015)	55.7 (0.021)
11차년도	51.8 (0.010)	54.5 (0.015)	50.7 (0.014)	50.8 (0.02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V)임.

<표 7-6>은 주당 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비임금근로자의 69.0%가 주당 44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3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임금근로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임금근로자(약 48.1시간)보다 4시간 정도 더 긴 수치이다.

<표 7-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 2008년  
(단위: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
전 체		3.2	12.3	15.6	24.8	31.0	13.2	52.3
성 별	남 성	1.7	9.0	13.5	28.8	34.4	12.6	53.9
	여 성	5.3	17.3	18.7	18.7	26.0	14.0	49.9
연 령	20~29세	13.2	14.1	17.2	11.9	26.4	17.3	47.2
	30~39세	5.7	11.2	17.7	23.1	31.3	11.1	49.9
	40~49세	1.8	8.7	15.4	27.5	32.5	14.1	54.4
	50~59세	1.4	9.1	14.4	27.2	31.7	16.2	55.1
	60세 이상	3.9	23.9	15.8	20.2	28.2	8.0	47.7
학 력	고졸 미만	3.1	16.6	14.8	18.8	33.4	13.3	52.6
	고 졸	0.6	8.1	15.0	26.7	34.2	15.4	55.4
	전문대졸 이하	6.0	8.3	14.1	29.7	28.1	13.9	51.3
	대 졸	5.8	14.5	18.1	28.1	25.3	8.3	47.8
	대학원 이상	8.3	18.4	23.5	31.9	8.6	9.4	43.0

주: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함.

성별로 살펴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4시간 가량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보면 남성 비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49.8시간)보다 주당 4.1시간 정도 더 일했으며,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여성 임금근로자(45.5시간)보다 4.4시간 정도 더 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는 50~59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5.1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연령대는 47.2시간의 20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자(55.4시간)가 가장 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대학원 이상'(43.0시간)의 근로시간과의 차이는 주당 평균 12.4시간이었다.

<표 7-7>은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7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특히 71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 응답자가 이 산업에서 2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업원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체의 경우가 53.4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1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시간은 5인 미만 사업체에 비해 5.9시간 가량 짧은 46.6시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 2008년

(단위: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평균 근로시간
산 업	농림어업	3.4	26.6	18.3	21.1	25.8	4.9	45.7
	광공업	1.7	9.9	18.9	34.4	28.0	7.1	49.8
	건설업	2.4	13.8	20.8	37.6	23.4	2.0	46.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0.9	7.1	7.2	20.5	40.0	24.3	60.7
	운수통신업	2.5	9.3	13.8	23.3	36.8	14.2	54.4
	금융 및 부동산업	2.4	9.5	40.3	27.1	19.2	1.4	45.4
	공공서비스업	6.3	12.7	16.8	26.7	26.4	11.2	48.8
	가사서비스업	63.6	36.4	-	-	-	-	14.9
종업원 규모	1~4인	3.3	12.6	15.1	23.7	31.7	13.6	52.5
	5~9인	1.7	5.7	10.3	41.7	28.0	12.6	53.4
	10인 이상	1.0	12.6	33.4	28.8	19.7	4.5	46.6

### 제 3 절 근로소득

<표 7-8>은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소득(이하 월평균 소득)과 월

<표 7-8> 월평균 소득 비교

(단위: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소득	실질소득	명목소득	실질소득	명목소득	실질소득
1차년도	132.6 (0.026)	161.1 (0.026)	149.2 (0.030)	181.3 (0.030)	88.5 (0.042)	107.6 (0.042)
2차년도	128.3 (0.023)	154.5 (0.023)	142.6 (0.026)	171.8 (0.026)	83.7 (0.042)	100.8 (0.042)
3차년도	144.9 (0.027)	170.6 (0.027)	160.6 (0.029)	189.2 (0.029)	95.8 (0.062)	112.8 (0.062)
4차년도	181.6 (0.047)	205.7 (0.047)	202.5 (0.054)	229.4 (0.054)	121.0 (0.072)	137.0 (0.072)
5차년도	214.8 (0.042)	236.6 (0.042)	237.3 (0.047)	261.3 (0.047)	144.3 (0.092)	158.9 (0.092)
6차년도	213.8 (0.039)	227.7 (0.039)	237.7 (0.044)	253.1 (0.044)	142.3 (0.065)	151.5 (0.065)
7차년도	246.5 (0.049)	253.4 (0.049)	275.1 (0.056)	282.7 (0.056)	154.0 (0.068)	158.2 (0.068)
8차년도	240.5 (0.119)	240.5 (0.119)	275.5 (0.144)	275.5 (0.144)	152.3 (0.082)	152.3 (0.082)
9차년도	251.7 (0.067)	246.2 (0.067)	282.2 (0.082)	276.1 (0.082)	173.2 (0.066)	169.4 (0.066)
10차년도	255.6 (0.035)	243.9 (0.035)	290.0 (0.040)	276.7 (0.040)	166.8 (0.059)	159.1 (0.059)
11차년도	274.2 (0.040)	249.9 (0.040)	305.5 (0.048)	278.5 (0.048)	194.1 (0.058)	177.0 (0.058)

주: 1) 실질소득=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 2005년=100).

2) 적자를 보는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

3) 종단면 가중치 적용.

4) 괄호 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V)임.

평균 실질소득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지난 11년간 월평균 명목 소득의 추세를 살펴보면, 1998년 132만 6,000원에서 2차년도에 128만 3,000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11차년도에 들어 274만 2,000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는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2차년도뿐 아니라 6차년도와 8차년도에 이어 10차년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간 소득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11차년도의 여성 월평균 명목소득은 194만 1,000원으로 남성(305만 5,000원)의 6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표 7-9>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연령 및 교육수준별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연령별 월평균 소득액을 보면 40대에서 정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소득이 300만 원 이상에 분포하는 사람은 40대가 42.1%로 가장 많았고, 30대(39.4%)와 50대(34.3%)도 300만

<표 7-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명목소득 : 2008년

(단위 : %)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만 원)
		적 자	100만 원 미만	100만 ~ 200만 원 미만	200만 ~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전 체		4.3	17.0	25.9	19.7	33.1	267.3
연 령	20~29세	13.2	27.2	22.6	15.6	21.4	210.5
	30~39세	3.0	9.8	26.3	21.5	39.4	289.0
	40~49세	4.8	6.0	22.1	24.9	42.1	337.4
	50~59세	4.8	13.2	28.3	19.5	34.3	274.2
	60세 이상	2.4	45.9	29.3	10.1	12.3	128.8
학 력	고졸 미만	3.0	34.8	31.9	15.8	14.6	155.5
	고 졸	4.9	9.0	27.0	23.7	35.5	279.4
	전문대졸 이하	6.9	10.5	15.8	26.8	40.1	300.1
	대졸 이하	4.1	8.0	22.3	15.7	49.9	269.2
	대학원 이상	1.8	14.7	18.6	11.3	53.6	463.6

주: 월평균 근로소득 계산시 '적자' 응답자 제외. 횡단면 가중치 적용.

원 이상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반면 20대(27.2%)와 60대(45.9%)의 경우에는 100만 원 미만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 및 월 300만 원 이상 소득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자영업자 및 고용주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300만 원 이상에 53.6%가 위치하고 있었던 반면, 고졸 미만은 단지 14.6%만이 300만 원 이상에 분포하고 있었다.

<표 7-10>은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에 대해 사업체 특성 및 매출액 규모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광공업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405만 6,000원)이 가장 높으며, 금융 및 부동산업(312만 원)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 : 2008년

(단위: %)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만 원)
		적 자	100만 원 미만	100만~ 200만 원 미만	200만~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산 업	농림어업	6.6	50.2	20.7	11.6	10.9	128.5
	광공업	2.0	7.0	20.6	22.7	47.6	405.6
	건설업	7.4	3.1	22.3	18.2	49.0	306.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1	14.0	25.6	17.8	37.5	275.1
	운수통신업	0.5	10.4	37.7	35.6	15.9	188.9
	금융 및 부동산업	6.8	5.8	5.8	18.2	43.3	312.0
	공공서비스업	3.0	16.2	27.5	21.3	32.0	275.4
	가사서비스업	-	51.7	43.4	4.8	-	103.0
종업원 규모	0명(자영업자)	4.0	23.8	31.4	21.2	19.6	183.7
	1~4인	6.0	4.0	16.1	18.3	55.6	369.5
	5~9인	2.7	2.1	9.8	19.2	66.2	502.8
	10인 이상	0.8	-	12.3	5.7	81.2	729.7

주: 월평균 근로소득 계산시 '적자' 응답자 제외. 횡단면 가중치 적용.

고 있다. 종업원수가 0(자영업자)인 경우 월평균 소득은 183만 7,000원이며, 사업체 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729만 7,0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8차년도 조사부터 새롭게 추가된 적자액의 규모는 <표 7-11>에서 알 수 있다. 11차년도에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4.3%로 비교적 작은 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적자액의 월평균은 154만 3,000원으로 조사되었다. 범주별로는 100만 원 미만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아 41.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7-11>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 : 2008년

(단위 : %)

월평균 적자의 분포						월평균 적자액 (만 원)
적자 아님	적자임	100만 원 미만	100만~ 200만 원 미만	200만~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95.6	4.3	41.6	27.8	20.2	10.3	154.3

## 제 4 절 사업체의 창업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주와 자영업자 중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경우(유형 7)는 301명으로 조사되고 있으며<sup>33)</sup>, 이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시작한 사업체의 창업 과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표 7-12>를 통해 창업 주체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가족 또는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기(4.8%)보다는 87.9%가 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가 고용주보다 창업 비율이 다소간 더

33)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표 7-12〉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 : 2008년

(단위 :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창 업	87.9	82.1	90.5
가족 및 친지로부터 물려받음	4.8	7.7	3.5
기 타	7.3	10.2	6.0

높았다.

다음으로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시작하는 응답자에게 사업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표 7-13>을 통해 보면, 응답 대상자의 84.3%가 본인 또는 가족, 친지를 통해 사업 비용을 조달하였으며, 정부의 보조는 전혀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용주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친지에 의한 자본금 조달비중이 72.5%,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용자가 21.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금조달 방식이나 그 비중은 고용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13〉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 : 2008년

(단위 :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본인 또는 가족, 친지	84.3	72.5	89.3
동업자	1.1	3.8	-
은행 등의 용자	13.0	21.3	9.5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려서	1.4	2.2	1.1
사채업자	0.1	0.2	-
정부의 보조	-	-	-
기 타	0.1	-	0.1

## 제 8 장

## 교육 부가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서는 주요한 이슈에 대한 심층조사로 부가 조사를 하고 있다. 3차년도(2000년)에는 만 30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및 경제활동에 대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졌고, 4차년도(2001년도)에는 ‘건강과 은퇴’를 주제로 만 15세 이상 개인의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노동시장의 활동과 연계된 내용이 다루어졌다. 6차년도(2003년)에는 만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은퇴자의 은퇴생활과 비은퇴자의 은퇴계획 및 노후생활 준비 그리고 가족관계 및 경제적 부양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7차년도(2004년)에는 근로시간과 여가를 주제로 일자리에서의 시간 배분과 결정 과정, 휴가, 일상에서의 시간 배분과 여가생활에 대해 조사하였다. 8차년도(2005년)에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를 주제로 노사관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일자리에서의 노동조합, 노사 협의회, 인적자원관리 등 노사관계 실태를 조사하였다. 9차년도(2006년)에는 3차년도에 이루어진 청년층에 대한 조사를 만 35세까지 확대하고 설문 문항도 대폭 확대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10차년도(2007년)에는 고용형태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문 문항을 포함하여 비정규직의 다양한 정의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고용형태의 특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11차년도(2008년) 조사에서는 교육에 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11차년도 부가조사는 각급 교육수준별로 다녔는지 여부, 다니지 않았다면 그 이유, 검정고시 여부, 학교 생활 만족도, 학교 활동, 성적 성취

도, 사교육, 공부시간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문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 제 1 절 중학교 재학과 사교육 경험

이 절에서는 중학교 재학 여부와 중학교 재학 당시 사교육을 받았는지를 중심으로 부가조사 결과를 요약하겠다.

<표 8-1>은 연령별로 중학교 다닌 사람의 비중을 요약하고 있다. 2008년 기준 만 39세 이하인 사람들은 거의 모두 중학교 재학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40대의 경우 92.7%, 50세 이상에서는 70%에 약간 못 미치는 재학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39세 미만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으며, 40대에서도 3%포인트 차이가 있을 뿐이었지만, 50세 이상 집단에서는 현격한 성별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

<표 8-1> 연령별 중학교 다녔는지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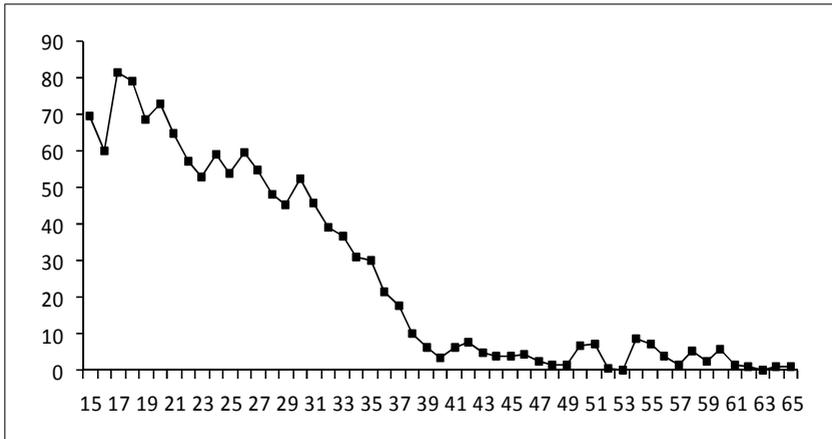
연령		중학교 다녔는지 여부			전 체
		다녔다	다니지 않았다	중퇴했다	
전 체	30세 미만	99.6	0.3	0.2	100.0
	30~39세	99.0	0.6	0.4	100.0
	40~49세	92.7	6.5	0.8	100.0
	50~65세	69.6	27.8	2.6	100.0
남 자	30세 미만	99.7	0.1	0.2	100.0
	30~39세	98.7	0.6	0.7	100.0
	40~49세	94.2	4.7	1.1	100.0
	50~65세	81.0	16.4	2.6	100.0
여 자	30세 미만	99.5	0.4	0.1	100.0
	30~39세	99.4	0.6	0.0	100.0
	40~49세	91.2	8.4	0.5	100.0
	50~65세	58.1	39.3	2.6	100.0

에 비해 낮았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중학교 2학년 재학 당시 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연령별로 계산해 보았다. 2008년 기준 40세 이상 연령에서는 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다소간의 등락은 있지만 10% 미만에서 머무르는 반면, 40세 미만, 즉 대략 1980년대 중후반에 중학교를 다닌 연령대부터는 지속적으로 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교 재학자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을 경험하는 시대는 2008년 기준 만 30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중학교 2학년일 때인 1990년대 중반경 개막되어, 현재는 절대다수가 사교육을 경험하는 수준으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1] 연령별 중학교 재학 당시 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중

(단위: %)



## 제 2절 고등학교 재학과 사교육 경험

<표 8-2>는 연령별로 고등학교 다닌 사람의 비중을 요약하고 있다. 2008년 기준 만 39세 이하인 사람들은 거의 모두 고등학교 재학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40대의 경우 86.1%, 50~65세에서는 70%에 약간 못 미치

〈표 8-2〉 연령별 고등학교 다녔는지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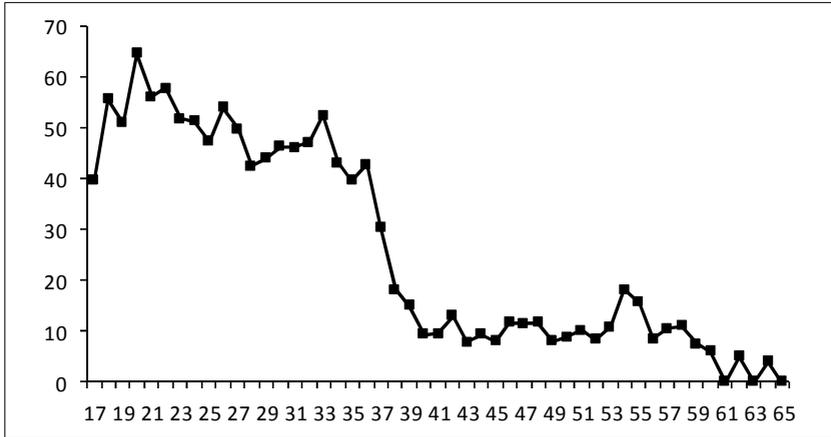
		고등학교 다녔는지 여부				전 체
		재학 중	다녔다	다니지 않았다	중퇴했다	
전 체	30세 미만	22.4	75.7	0.5	1.4	100.0
	30~39세	0.0	96.9	1.6	1.4	100.0
	40~49세	0.0	86.1	12.3	1.6	100.0
	50~65세	0.1	66.5	31.4	2.0	100.0
남 자	30세 미만	23.2	74.4	0.4	2.0	100.0
	30~39세	0.0	95.9	1.8	2.3	100.0
	40~49세	0.0	89.9	8.2	1.9	100.0
	50~65세	0.0	72.9	24.0	3.1	100.0
여 자	30세 미만	21.6	77.0	0.7	0.8	100.0
	30~39세	0.0	98.1	1.4	0.5	100.0
	40~49세	0.0	82.3	16.4	1.3	100.0
	50~65세	0.1	57.5	41.8	0.6	100.0

는 재학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65세의 경우 중학교 경험률과 큰 차이가 없어 이들 연령대부터는 중학교에 들어간 사람은 대체로 고등학교까지는 마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별로 보면 39세 미만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으며, 40대에서도 3%포인트 차이가 있을 뿐이었지만, 50세 이상 집단에서는 현격한 성별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낮았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연령별로 계산해 보았다. 2008년 기준 39세 이상 연령에서는 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다소간의 등락은 있지만 10% 정도에서 머무르는 반면,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경 고등학교를 다닌 36~39세 사이에서 사교육 경험률이 폭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8년 기준 만 39세 15%, 38세 18%, 37세 30%, 36세 43%로 폭증했는데, 이들의 고등학교 입학 즈음인 1989년 과외금지가 해제되면서 학원 설립이 증가하는 등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

(그림 8-2) 연령별 고등학교 재학 당시 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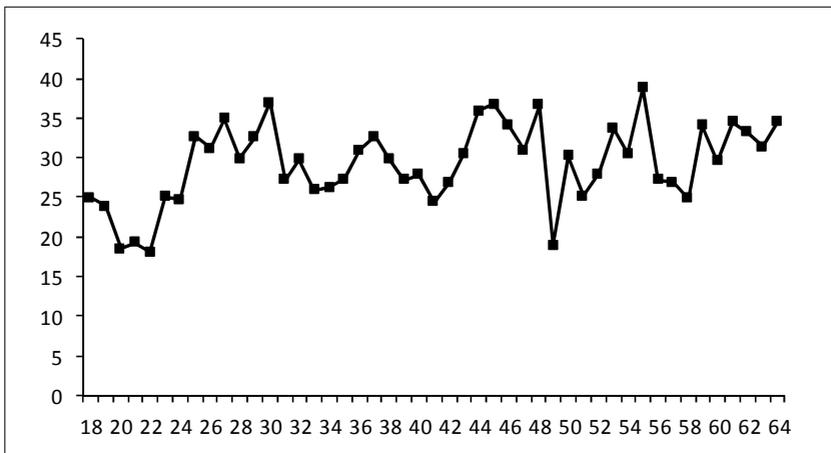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후로는 완만히 늘어 대략 50~60% 대의 사교육 경험률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사람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들어간 사람들의 비중이 연령별로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았다. 등락이 있긴 하지만 약간의 감소 추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3) 연령별 고등학교 진학자 중 실업계 진학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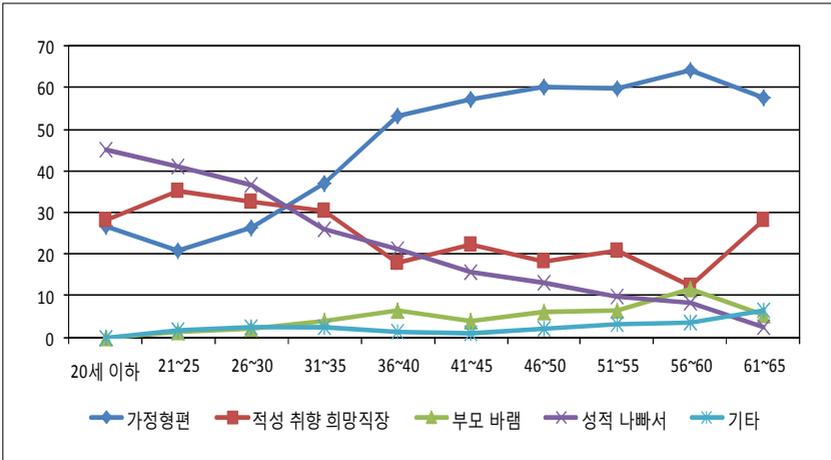
(단위: %)



위의 추이는 실업계 고교의 정원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보긴 어렵겠지만, 실업계 고교 진학 이유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실업계고에 진학했다는 응답은 과거 시대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40대 중반 이상은 그 수치가 60% 이상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반면 성적이 나빠서 실업계고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는 응답은 현대로 올수록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세대는 실업계 진학자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성적이 나빠서 실업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응답한 반면, 56세 이상은 10%도 되지 않았다. 실업계고의 설립목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적성, 취향, 희망직장과의 연관성 때문에 실업계고를 선택했다는 응답은 36세 이상 세대에서는 20% 안팎, 36세 미만 세대에서는 30% 안팎으로 나타나 시대를 불문하고 실업계고 진학의 부차적인 이유로 나타났다.

(그림 8-4) 연령 구간별 실업계 고교에 진학한 이유

(단위: %)



실업계고의 설립 목적은 굳이 대학에 갈 필요 없이 직업세계로 나갈 사람들이 보다 원활하게 직업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을 것이다. 실업계고가 그런 위상을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다면 대학 진학률이 적성이나 취향, 희망 직업과 맞아서 진학한 사람들에게서는 낮게 나타

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겠다. <표 8-3>은 실업계 진학 이유별 대학 진학률을 요약하고 있는데, 짐작과는 달리 적성, 취향 또는 희망 직업과 맞아서 실업계고에 진학했다는 응답자 중 최근 세대인 20~29세 집단의 대학 진학률이 다른 이유들에 비해 매우 높은 70.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성적 때문에 실업계고에 진학했다는 응답자의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았고, 40대는 부모가 원해서 실업계고에 진학했다는 응답자의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인문계고 졸업자는 20대의 경우 90% 이상이, 30대는 80% 가까이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 실업계 진학 이유별 대학 진학률

(단위: %)

실업계 진학 이유	대학 진학 여부	20~29세	30~39세	40~49세	50~65세
가정형편	대학 비진학	44.0	66.9	81.7	81.7
	대학 진학	56.0	33.2	18.3	18.3
적성, 취향 또는 희망 직업과 맞아서	대학 비진학	29.1	59.5	71.4	66.2
	대학 진학	70.9	40.5	28.6	33.8
부모가 원해서	대학 비진학	53.6	63.9	61.2	82.1
	대학 진학	46.4	36.1	38.8	17.9
성적 때문에	대학 비진학	40.2	54.7	72.4	85.6
	대학 진학	59.8	45.3	27.6	14.5
기 타	대학 비진학	76.2	41.5	73.0	32.7
	대학 진학	23.8	58.5	27.0	67.3
인문계고 졸업자	대학 비진학	7.8	20.7	44.6	57.5
	대학 진학	92.2	79.4	55.4	42.5

주: 기타는 응답자가 적으므로 의미 없음. 대학은 전문대, 4년제 모두 포함.

### 제 3절 대학 선택과 대학 재학

<표 8-4>는 연령별로 대학에 다닌 사람의 비중을 요약하고 있다. 2008년 기준 50~65세는 32.7%가 대졸자였으며, 40대는 40.7%, 30대는 62.0%로 대학 경험자가 늘어 왔으며, 30세 미만에서는 80% 가까이가 대학을 졸업했거나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30대까지는 남성의 대학 졸업자 비중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30세 미만에서는 중퇴까지 포함시 성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는 30대에서도 남녀 차이가 없었지만, 대학의 경우는 30대에서도 남녀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에 다닌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대학을 먼저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했

<표 8-4> 연령별 대학교에 다녔는지 여부

(단위: %)

		대학교 다녔는지 여부				전 체
		재학 중	다니지 않았다	대학 졸업	중퇴했다	
전 체	30세 미만	36.0	17.1	43.0	3.9	100.0
	30~39세	1.9	32.8	62.0	3.4	100.0
	40~49세	1.3	54.8	40.7	3.3	100.0
	50~65세	1.1	63.4	32.7	2.9	100.0
남 자	30세 미만	43.5	17.7	33.6	5.2	100.0
	30~39세	1.9	26.9	67.2	4.0	100.0
	40~49세	1.1	45.1	49.9	3.8	100.0
	50~65세	0.9	58.9	36.9	3.4	100.0
여 자	30세 미만	28.8	16.5	52.1	2.7	100.0
	30~39세	1.9	38.9	56.5	2.8	100.0
	40~49세	1.4	65.6	30.4	2.6	100.0
	50~65세	1.4	71.5	25.2	2.0	100.0

는지, 아니면 전공을 먼저 선택하고 대학을 골랐는지를 질문하였다. 이 질문을 다녔던 대학에 대한 만족도와 교차해서 분석한 결과가 <표 8-5>에 요약되어 있다. 이를 보면, 전공을 먼저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한 경우 자신이 다녔던 대학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만족도를 점수로 평균낸 값도 제시하고 있는데, 전공을 먼저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한 경우의 만족도 평균이 가장 낮았고, 대학을 먼저 선택하고 전공을 나중에 선택한 경우가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았다. 매우 만족이 1, 만족이 2, 보통이 3, 불만족이 4, 매우 불만족이 5점이므로 이는 전공을 먼저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한 경우의 만족도가 대학을 먼저 선택하고 전공을 나중에 선택한 경우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차 검증을 해본 결과 전공 먼저/대학 나중과 대학 먼저/전공 나중 집단 간에는 만족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대학 먼저/전공 나중 집단과 대학 전공 동시선택 집단 간에는 만족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8-5> 대학/전공 우선선택 여부별 대학교 만족도 여부

(단위: %)

	매우 만족	만 족	보 통	불 만 족	매우 불 만 족	평 균
대학을 먼저 선택한 후 전공을 선택	1.9	43.4	47.9	6.7	0.1	2.60
전공을 먼저 선택한 후 대학을 선택	2.2	53.3	37.9	5.8	0.8	2.50
대학과 전공을 동시에 고 려	1.4	40.6	51.5	6.3	0.2	2.63

주: 평균이란 매우 만족=1, 만족=2, 보통=3, 불만족=4, 매우 불만족=5로 할 때 이 점수를 평균낸 값을 의미. 평균이 낮으면 높은 쪽에 비해 만족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의미.

다음으로는 전공을 본인이 선택했는지 여부별 대학 만족도도 조사해 보았다. 본인이 선택한 경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고,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서와 유사하게 만족도 평균을 비교해 보아도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대학 만족도 평균이

높은 것을(=즉, 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표 8-6〉 전공을 본인이 선택했는지 여부별 대학 만족도

(단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본인선택	2.1	48.1	44.0	5.5	0.4	2.54
본인선택 안했음	0.5	35.4	44.9	18.0	1.2	2.84

주: 평균이란 매우 만족=1, 만족=2, 보통=3, 불만족=4, 매우 불만족=5로 할 때 이 점수를 평균낸 값을 의미. 평균이 낮으면 높은 쪽에 비해 만족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의미.

본인이 원하던 대학에 간 경우 자신이 다닌 대학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해 보았는데, 역시 원하던 학교에 진학한 경우 만족에 응답한 사람도 더 많고, 불만족에 응답한 사람도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차 검증해 보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원하던 학교에 진학한 사람의 만족도 평균이 더 낮았다(=즉, 만족도가 더 높았다).

〈표 8-7〉 본인이 원하던 대학인지 여부별 대학 만족도

(단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원하던 학교	4.2	68.7	25.7	1.3	0.2	2.25
원하지 않은 학교	0.5	32.0	57.0	9.9	0.6	2.78

주: 평균이란 매우 만족=1, 만족=2, 보통=3, 불만족=4, 매우 불만족=5로 할 때 이 점수를 평균낸 값을 의미. 평균이 낮으면 높은 쪽에 비해 만족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의미.

## 제 4 절 기타 항목

이상 소개한 항목 외에도 교육 부가조사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와의 대화 정도, 자녀 교육을 위한 이민이나 해외 유학, 이사 고민 여부, 학교 만족도 등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복무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도 포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간략하게 설문결과를 소개하겠다.

자녀와의 대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자녀의 생활이나 고민 등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눈다고 응답한 부모는 전체의 절반을 겨우 넘는 50.8%로 나타났으며, 일상적인 대화만 나눈다는 응답은 45.7%로 나타났다. 거의 대화가 없다는 응답도 3.5%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는 역시 어머니가 주로 자녀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아버지는 일상적인 대화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8〉 자녀와의 대화

(단위: %)

	전 체	부	모
자녀의 생활이나 고민 등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눈다	50.8	35.1	65.7
일상적인 대화만 나눈다	45.7	59.0	33.1
거의 대화가 없다	3.5	5.9	1.1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들 중 13.1%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민이나 해외유학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3.7%는 가정이나 대안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좋은 학교나 학군으로 이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6.9%로 나타났다. 위의 세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된다고 대답한 부모는 19.1%였으며, 모두에 아니라고 응답한 부모는 80.9%로 나타났다.

〈표 8-9〉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위해 다음을 해본 적이 있다

(단위: %)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민이나 해외유학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	13.1
없다	86.9
가정이나 대안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다	3.7
없다	96.3
자녀의 교육을 위해 좋은 학교 근처 등으로 이사한 적이 있다	6.9
없다	93.1
위의 경우 중 하나이라도 해당됨	19.1
위의 경우 중 하나도 해당되지 않음	80.9

남성의 경우 군복무 경험도 질문했는데, 2008년 현재 만 25세 이상인 응답자 중 80%가 군복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복무를 안한 이유 중에는 신체검사 결과 중 시력이 나빠서라는 응답이 11.4%, 시력을 제외한 다른 신체검사 결과 때문이라는 응답이 51.5%, 가정 사정 때문이라는 응답이 28.3%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8.7%였다. 군복무 경험이 현재 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1.1%(=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25.5%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쪽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를 보아도 2.88점으로 그렇지 않다는 쪽에 약간 치우친 값이 나왔다.

〈표 8-10〉 군복무 경험이 현재 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8.1	23.0	43.4	23.5	2.0	2.88

## 제 9 장

##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

제9장은 패널자료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노동시장의 동학(dynamics)을 분석하기로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패널자료는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적하여 조사한 자료이다. 따라서 패널자료는 동일한 개체의 시간에 걸친 변화들을 보여줄 수 있다. 이는 매우 큰 장점으로써 패널자료가 아닌 다른 형태의 자료에서 구하기 어려운 정보이다. 물론 횡단면 자료에서 회고적 조사를 통해 패널조사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다. 그러나 회고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회고기간이 길어질수록 회고오차의 문제는 더욱 커지므로 종단분석에 사용하는 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제9장은 조사된 개인들, 즉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상태가 동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어떠한 동태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실업률을 비롯하여 노동시장의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들은 정태적으로 측정되나, 이러한 저장(stock) 변수들은 유량(flow), 즉 동태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동학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깊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시사점들도 도출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9장은 10차 및 11차에 모두 응답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활동상태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어떠한 특징들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비교를 위해 9차년도와 10차년도의 경제활동상태 변화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모든 분석은 기준연도의 종단 가중치를 사용

하여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0차년도에서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가 11차년도에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분석할 경우 10차년도 종단 가중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9-1>은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는 흔히 언급되고 있듯이 이행확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쉽게 읽기 위해 100을 곱하여 나타내었다. 이행확률을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10차년도에 취업상태에 있던 100명 가운데 다음 차수인 11차년도에 실업으로 옮겨간 사람 수는 1.1명이며, 취업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의 수는 92.0명,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로 옮겨간 사람의 수가 6.9명이다. 이를 확률로 해석해도 좋다. 즉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이행확률은 0.011이다. 한편 취업상태에서 다른 노동력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은 9차→10차의 경우 표에서 보듯이 1.6%로 나타난다. 취업에 그대로 머물 가능성은 92.0%로서 전년의 91.5와 매우 유사하다. 비경제활동상태로의 이행은 전년과 동일한 6.9이다. 즉 취업상태에서 다른 경제활동상태로의 이행은 시공간에 걸쳐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표 9-1>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단위 : %)

이전상태	이후상태	9차 → 10차	10차 → 11차
취업	취업	91.5	92.0
	실업	1.6	1.1
	비경제활동	6.9	6.9
실업	취업	42.7	50.8
	실업	16.0	17.2
	비경제활동	41.3	32.0
비경제활동	취업	10.1	10.6
	실업	2.1	1.9
	비경제활동	87.7	87.5

한편 실업상태에 있었던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살펴보면 방금 보았던 취업상태의 경우와 달리 이행확률들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난다.

10차에서 11차년도로의 이행을 보면 실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50.8로서 전년의 42.7에 비해 상당 정도 증가하여 실업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할 확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실업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은 17.2로서 이 역시 전년의 16.0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실업에 머물 가능성도 높아졌고 취업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높아졌으므로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옮겨갈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의 수는 100명 가운데 32.0명이며 전년의 41.3명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비경제활동상태에서의 변화는 취업상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안정적이다. 표에서 보듯이 10차→11차의 경우 비경제활동에서 취업으로의 이

〈표 9-2〉 성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이전상태	이후상태	9차 → 10차	10차 → 11차
남 성	취 업	취 업	93.5	94.4
		실 업	1.8	1.1
		비경제활동	4.7	4.4
	실 업	취 업	44.0	55.3
		실 업	23.3	18.6
		비경제활동	32.7	26.1
비경제활동	취 업	10.7	11.2	
	실 업	2.9	2.7	
	비경제활동	86.4	86.0	
여 성	취 업	취 업	88.2	88.0
		실 업	1.3	1.1
		비경제활동	10.5	10.9
	실 업	취 업	40.8	42.1
		실 업	5.4	14.4
		비경제활동	53.8	43.5
비경제활동	취 업	9.7	10.2	
	실 업	1.7	1.4	
	비경제활동	88.6	88.3	

행은 10.6으로서 전년의 10.1과 매우 유사하고 실업으로의 이동 역시 1.9로서 전년의 2.1과 비슷하다. 비경제활동상태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역시 87.5로서 전년의 87.7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경제활동상태에서의 변화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표 9-2>는 이를 요약하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남성과 여성은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에 있어 매우 구분되는 특징들을 보여준다. 먼저 취업상태에서의 변화를 보면, 여성이 취업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은 남성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낮은 반면,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즉 남성의 취업지속 가능성은 10차→11차의 경우 94.4인데 여성의 경우는 88.0에 불과하다. 반면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은 여성의 경우 10.9으로서 남성의 4.4에 비해 매우 높다. 이러한 특징은 전기인 9차→10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던 현상이다.

실업상태에서의 변화를 보면 여성의 경우 실업에서 비경활로의 이동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에서 보듯이 10차→11차에서 여성의 실업→비경활 이행이 43.5로서 남성의 26.1에 비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실업에 그대로 머물 가능성은 여성이 14.4로서 남성 18.6에 비해 낮다. 여성의 이러한 강한 비경제활동화 경향은 여성 노동력이 갖는 매우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9차→10차에 비해 크게 완화되었다. 이는 실업→비경활 이행률의 감소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매우 컸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성은 비경제활동상태에서 그대로 머무는 경향이 남성보다 더 강하다. 표에서 보듯이 여성의 비경제활동 지속 경향은 88.3으로서 남성의 86.0에 비해 다소 높다.

이제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자. <표 9-3>은 이를 나타낸다. 표를 보면 몇 군데에서 이행률의 급격한 변화가 관찰된다. 즉 20대의 실업지속률이 13.1에서 31.4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30대의 경우는 24.4에서 6.9로 급락하고 있다. 50대의 실업지속 가능성도 10.0에서 2.7로 하락하였으며, 60세 이상에서도 20.5에서 7.4로 하락하였다. 각 상태별 이행률의 합은 100.0이 되어야 하므로 실업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률 역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표본의 수와

〈표 9-3〉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

	이전상태	이후상태	9차 → 10차	10차 → 11차
20대	취업	취업	84.0	88.5
		실업	2.4	1.4
		비경제활동	13.5	10.1
	실업	취업	39.6	38.4
		실업	13.1	31.4
		비경제활동	47.3	30.2
비경제활동	취업	22.5	24.9	
	실업	5.5	4.4	
	비경제활동	72.0	70.7	
30대	취업	취업	93.3	92.9
		실업	1.7	1.4
		비경제활동	5.0	5.7
	실업	취업	31.2	65.9
		실업	24.4	6.9
		비경제활동	44.4	27.3
비경제활동	취업	14.2	16.6	
	실업	3.5	3.2	
	비경제활동	82.2	80.2	
40대	취업	취업	94.8	94.6
		실업	1.3	1.1
		비경제활동	3.9	4.3
	실업	취업	66.2	66.1
		실업	14.5	17.6
		비경제활동	19.3	16.2
비경제활동	취업	16.1	15.9	
	실업	1.7	2.0	
	비경제활동	82.2	82.1	
50대	취업	취업	92.7	92.9
		실업	1.3	0.7
		비경제활동	6.0	6.5

〈표 9-3〉의 계속

	이전상태	이후상태	9차 → 10차	10차 → 11차
50대	실업	취업	42.1	40.3
		실업	10.0	2.7
		비경제활동	48.0	57.0
	비경제활동	취업	8.8	7.6
		실업	2.2	2.5
		비경제활동	89.0	89.8
60세 이상	취업	취업	89.2	87.3
		실업	0.8	0.6
		비경제활동	10.1	12.2
	실업	취업	46.7	40.5
		실업	20.5	7.4
		비경제활동	32.8	52.1
	비경제활동	취업	2.5	2.7
		실업	0.3	0.4
		비경제활동	97.2	96.9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9가지로 구분한 상태에서 다시 5개의 연령집단으로 구분할 경우 해당하는 셀에 몇 안 되는 관측만 남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이행자 수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이행률의 커다란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이행률의 급변이 관측수가 적은 실업과 관련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행률의 급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별 이행률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취업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40대에서 가장 높고 40대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특히 20대의 취업지속 가능성이 88.5로서 지난 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으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40대가 취업상태에서 계속 머물 확률은 94.6으로 높다. 30대와 50대의 취업지속 가능성은 92.9로서 동일한데, 이는 40대의 취업지속 이행률에 근접할 정도로 높은 수치

이다. 60세 이상에서 취업지속률은 87.3으로서 20대 청년보다 다소 낮은데, 이는 지난 기의 경우와 다른 모습이다.

실업에서 취업상태로의 탈출 역시 40대에서 66.1로 가장 높다. 반면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의 이동은 40대에서 16.2로 가장 낮다. 실업상태에 계속 머물 가능성은 20대에 가장 높아 31.4를 기록하고 있어 이들이 장기실업을 경험할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다.

비경제활동상태에서 계속 머물 가능성은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20대의 경우 이 이행률은 70.7인 반면, 30대 80.2, 40대 82.1, 50대 89.8, 그리고 60세 이상의 경우 96.9이다. 청년의 비경활 지속률이 가장 낮다는 것은 이들이 다른 경제활동상태로 쉽사리 옮겨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로 20대가 비경활에서 취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은 24.9로 가장 크며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 가능성은 낮아져 60세 이상의 경우 2.7에 불과하다. 비경활에서 실업으로의 이동도 20대 청년에서 4.4로 가장 높으며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져 60세 이상에 이르면 0.4에 불과하다. 이는 젊을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하면, 20대 청년 노동시장이 매우 역동적이라는 것이다. 취업이나 실업 또는 비경활에서 계속 머물 가능성은 매우 낮고 다른 노동력상태로 손쉽게 이동하고 있어서 이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아울러 이러한 특징은 청년들에게 보다 적합한 일자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의 제공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9-4>는 학력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들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표에서 읽을 수 있는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중졸 이하를 제외할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고졸자의 경우 취업상태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90.8명이나 전문대졸의 경우 93.2명으로 높아지며 대졸 이상 학력집단의 경우 93.6명으로 높아진다.

실업상태에 계속 머물 확률은 지난 기의 경우와 다른 특징을 보인다. 전기인 9차→10차에서 실업지속률은 15.1~19.1 사이에서 분포하고 있어

〈표 9-4〉 학력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이전상태	이후상태	9차 → 10차	10차 → 11차
중졸 이하	취업	취업	91.7	91.2
		실업	1.2	0.9
		비경제활동	7.2	7.9
	실업	취업	45.9	34.3
		실업	19.1	4.3
		비경제활동	35.0	61.4
비경제활동	취업	4.5	3.8	
	실업	1.1	0.8	
	비경제활동	94.4	95.4	
고졸	취업	취업	89.5	90.8
		실업	2.0	1.6
		비경제활동	8.5	7.6
	실업	취업	39.9	46.3
		실업	15.4	20.0
		비경제활동	44.7	33.7
비경제활동	취업	15.9	16.0	
	실업	3.1	3.0	
	비경제활동	81.0	81.0	
전문대졸	취업	취업	91.9	93.2
		실업	2.1	1.4
		비경제활동	6.0	5.4
	실업	취업	37.2	67.2
		실업	15.1	7.2
		비경제활동	47.7	25.6
비경제활동	취업	15.9	18.5	
	실업	4.7	3.0	
	비경제활동	79.4	78.5	
대졸 이상	취업	취업	93.9	93.6
		실업	1.2	0.5
		비경제활동	4.9	5.9
	실업	취업	49.5	58.1
		실업	15.6	29.3
		비경제활동	34.9	12.6
비경제활동	취업	12.5	16.4	
	실업	2.4	2.6	
	비경제활동	85.1	81.0	

학력집단간 실업지속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10차→11차에서 학력간 실업지속률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중졸 이하의 실업지속률은 4.3으로 전기의 19.1에 비해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전문대졸의 경우도 15.1에서 7.2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대졸 이상의 경우 실업지속률은 15.6에서 29.3으로 급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실업지속률의 학력집단간 격차가 매우 커졌다.

마지막으로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머물 가능성을 살펴보자. 표에서 보듯이 비경활지속률은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낮아지나, 대졸 이상의 비경활 지속확률은 전문대졸의 경우보다 높으며 고졸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대졸 이상의 경우 비경활 지속 가능성은 81.0으로 전문대졸 78.5보다 더 높고 고졸과 같은 수준이다. 중졸 이하의 경우 이 가능성은 95.4로서 가장 높다. 대졸 이상에서 비경활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며, 고학력화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 執筆陣

-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최효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신선옥(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 배기준(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제11차(2008)년도 한국 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 발행연월일 | 2010년 12월 27일 인쇄  
2010년 12월 30일 발행
- 발 행 인 | 김 주 섭 원장직무대행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 대표 (02) 785-5080 Fax (02) 3775-0697  
150 - 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35
- 조판 · 인쇄 | 거목정보산업(주) (02) 2164-3232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등 록 번 호 |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                      정가 8,000원

ISBN 978-89-7356-827-7